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6

연구보고 06-R12-5

스웨덴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과정 연구

책임연구자 : 최연혁(남스톡홀름대학)

공동연구자 : 피터 스트랜브링크(남스톡홀름대학)

한국청소년개발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	한국청소년개발원
06-18-02	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	한국여성개발원
06-18-03	일본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게이오대학교
06-18-04	미국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아이오와 대학교
06-18-05	독일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베를린 자유대학교
06-18-06	스웨덴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남스톡홀름 대학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개발원	김현철 부연구위원 (총괄책임자) 김은정 부연구위원	손승영 (동덕여대) 이기재 (한국방송통신대학) 박현주 (함부르크 대학)
	한국여성개발원	장혜경 선임연구위원 홍승아 연구위원 김혜영 연구위원	정경자 (호주 사회정책연구원) 김보영 (영국 요크 사회정책학과)
협력 연구 기관	게이오 대학교	와타나베 히데키 교수	마즈다 시게키 (다이이치세메 경제연구소) 무쿠오 아사코 (게이오 대학) 배지혜 (게이오 대학)
	아이오와 대학교	김재은 교수	김상학 (아이오와 대학)
	베를린 자유대학교	서병문 교수	안드레아스 헤네커 (베를린 자유대학) 제스퍼 코글린 (베를린 자유대학)
	남스톡홀름 대학교	최연혁 교수	피터 스트렌브링크 (남스톡홀름 대학)

연구결과요약

- 이 보고서는 스웨덴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에 대한 기존의 조사결과 및 문헌을 정리한 부분과 스웨덴 290개 콤문 중에서 16세~19세의 청소년 1,500명(유효표본수 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 및 가족생활에 대한 조사」의 결과표로 나뉨. 결과표는 조사개요와 함께 부록에 제시하였으며, 분석은 이 연구의 종합보고서인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에 5개국 비교결과로서 제시되어 있음.
- 스웨덴의 청소년 정책에 포함되는 청소년층의 연령은 13세에서 25세까지를 포함함. 2004년 스웨덴 정부에서 산출한 청소년 인구는 전체 8백9십만의 15.7%를 차지하는 140만명에 이르고 있음.
- 스웨덴에서는 이미 1950년대에 여성의 사회참여가 50%에 이르렀으며, 이 때부터 양성평등 사상에 입각한 가족정책을 개발·발전시켜왔음. 그 이후 꾸준히 진행된 시민당의 정치적 지배와 이에 따른 복지제도의 구축은 비전통가족에게 매우 관대한 가족정책의 틀을 갖추게 했음.
- 스웨덴에서는 복지제도의 구축으로 자녀양육과 사회화를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가정 내 부모의 영향과 역할은 급격히 감소하게 됨. 부모의 전통적 역할 감소와 함께 가정 내에서 자녀들이 경제적, 재정적으로 부모로부터 간섭을 덜 받는 관계로 발전하였음. 이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장악력은 많이 약화되는 양상을 보임.
- 복지제도의 확대와 후기산업사회의 진행과 함께 가족 해체현상이 급격히 진행됨. 스웨덴가정의 높은 동거율, 이혼율 및 재혼율 (동거관계에 있는 파트너들의 빈번한 교체 등을 포함)로 동일한 부모를 둔 청소년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함. 한부모 가정, 재혼가정의 증가로 복잡한 가

정구성에 따라 부모 통제기능의 역할이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현재 스웨덴 가족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음. 결과적으로 청소년, 청소년을 포함한 가정정책은 급속히 복지제도의 틀 속에 편입되었고, 가족관계 정책예산은 국가복지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음.

- 2000년부터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었고, 이에 따른 종교적 세속성 (Secularization)의 진행은 가정 내에서의 기독교적 교리와 전통을 약화시키면서 자녀들의 양육방식에 변화를 초래함. 즉 부모의 탈교회화와 세속화의 진행으로 현재 스웨덴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은 그 이전의 양태와 비교하여 볼 때 부모에게 덜 의존적이며 탈기독교적 경향을 띰. 스웨덴 인구의 거의 20%에 이르는 국민이 이민자로 구성되면서 새로운 가치체계가 상존하는 다양한 사회로 변화하고 있음.
- 자녀가 18세가 되면 부모로부터 분가 혹은 출가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가족정책, 주택정책, 노동정책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하고 있음.
- 스웨덴 청소년의 자살, 정신병, 알코올 중독, 마약중독 등의 통계를 통해 스웨덴 젊은이들이 복지의 후유증을 앓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자살률, 정신병 발병률, 알코올소비에 따른 중독, 마약의 경험 등은 최근의 조사로부터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전반적으로 스웨덴 청소년들의 정신육체 건강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스웨덴 청소년들의 또 하나의 특성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이용, 전자메일, 이동전화 및 문자사용, 인터넷 게임 등의 IT 및 정보지식사회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결과적으로 스웨덴 청소년의 사회생활은 컴퓨터가 중요한 정보획득 도구이자, 여가활용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

음. 스웨덴 사회에서도 어느 정보사회에서나 발견되는 개인화, 폐쇄화, 즉흥성의 증가, 정서불안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SMS 중독 그리고 포르노 등과 같은 음란 사이트의 접속을 통한 탈선 등의 부작용 등 부정적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

- 적극적인 복지와 청소년 정책을 통해 가족해체 현상에서 노정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가족을 보조하는 국가의 역할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음.

목 차

I. 청소년의 정의·개념화	
1. 청소년의 정의	3
2. 청소년의 개념과 청소년 정책	4
II. 청소년의 생활양식과 태도	
1. 가치체계	9
1) 사회제도적 배경	9
2) 스웨덴 청소년의 가치 체계	10
3) 사회복지 제도와 가치체계의 변화양상	13
2. 생활양식과 태도	15
1) 여가, 직업, 교육, 사회, 삶에 대한 사고방식	15
2) 스웨덴 청소년의 건강	21
3. 일탈행위	25
III. 사회화 과정의 사회적 배경	
1. 사회변화 : 인터넷 및 정보화 사회	31
1) 컴퓨터 사용의 증가	31
2) 휴대폰 사용 증가	34
2. 학교, 복지체계와 관련이슈들	36
1) 스웨덴 학교 제도 역사적 배경	36
2) 교육복지 체계	37
3) 교육과 관련한 이슈 - 학교선택권(school choice) 제도	39
3. 청소년인구 : 성, 인종, 결혼상태	41
1) 청소년 인구	41
2) 다민족국가에서의 인구변화와 교육기회	43
3) 청소년의 주거형태와 경제적 의존성	48
4. 청소년 노동인구와 관련이슈들	51
1) 스웨덴의 노동시장과 실업률	51
2) 청소년 노동인구	52

IV. 사회화 과정의 장으로서의 가족

1. 스웨덴 가족의 역사	59
1) 전통적인 가족 개념	59
2) 가족의 역할 변화	60
3) 스웨덴 가족의 특징	61
2. 가족구조의 변화	63
1) 이혼율의 증가	63
2) 경제상황변화와 이혼율	65
3) 핵가족화	66
3. 성역할	70
4.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양육방식	75
1) 부모자녀 관계와 생활의 변화	75
2) 양육방식의 변화	76
3)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	81
5. 가족과 청소년 정책	84

V. 사회화 과정에 대한 제안점

1. 가치체계	91
2. 가족상호작용	92
3. 공식/비공식 교육체계, 친구관계	96
4. 부모의 역할	98

VI. 요약 및 결론

1. 요약	103
2. 결론	106
※ 참고문헌	109

부 록

1. 조사개요	115
2. 단순집계표	117
3. 질문지	138

표 목차

<표 II-1> 스웨덴 청소년의 고민거리 (복수응답)	11
<표 II-2> 스웨덴 청소년의 자아개념	12
<표 II-3> 시대별 청소년의 최초 출산연령 (1980~2004) ...	16
<표 II-4> 불법적 행위에 대한 관용도(2002)	19
<표 II-5> 16~24세 청소년의 체중과다 및 비만을 (2005년) 21	
<표 II-6> 15~24세 청소년의 자살, 정신병,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등으로 인한 의료시설방문 비율 (2004년)	22
<표 II-7> 15~24세 청소년의 자살, 마약복용사망, 교통사고사망 빈도수 (2004년)	23
<표 II-8> 16~24세 청소년의 흡연을 및 폭음경험율 (2005년) · 24	
<표 II-9> 16~24세 청소년의 마약 경험율* (2004~2005년) 25	
<표 II-10> 13~24세 폭력으로 인한 상해경험 (2005년)	25
<표 II-11> 16~24세 청소년의 최근 3개월간 왕따 혹은 인격모독 등의 경험률 (2005년)	26
<표 II-12> 13~24세 청소년의 낙태와 출산건수 (2004년) ...	26
<표 II-13> 15~24세 청소년의 성병감염실태 (2004년)	27
<표 III-1> 16세 스웨덴 청소년들의 컴퓨터 사용 형태에 있어서의 성 비교.	31
<표 III-2> 22세 스웨덴 청소년들의 컴퓨터 사용 형태에 있어서의 성 비교	33
<표 III-3> 스웨덴 국민의 휴대폰 SMS 사용빈도 변화	35
<표 III-4> 가정에 지급되는 아동 및 학업수당	38
<표 III-5> 주택보조금 수준과 최저 및 최고 수입 범위	39
<표 III-6> 청소년 남녀구분 인구 구성비 (2005)	42
<표 III-7> 스웨덴 인구와 이민자 비율	44
<표 III-8> 9학년 학생의 성별, 출신별 고등학교 진학률 (2004/5~ 2005/6)	46
<표 III-9>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 (2003/4)	47

<표 III-10> 고등학교 졸업생의 연차별 대학진학률 (1998/1999~2003/2004)	48
<표 III-11> 청소년의 연령별 주거형태와 비율 (2003년)	48
<표 III-12> 청소년의 거주 주택형태 (2003년 기준)	50
<표 III-13>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와 경제적 독립시기 결정	53
<표 III-14> 청년 취업자 및 실직자의 건강상태 (20~24세) 54	
<표 III-15> 청소년의 노동시장 분류별 미래 전망 (20~24세) 55	
<표 IV-1> 인구분포 및 가족의 변화 (1960~2005)	62
<표 IV-2> 16~17세 청소년 가정의 부모이혼율 추이 (1916~1999) · 63	
<표 IV-3> 1세부터 21세까지의 자녀를 둔 가정의 가족관계 (2002) 64	
<표 IV-4> 이혼건수의 변화 (1960~2005)	65
<표 IV-5> 스웨덴 가족의 주택형태	67
<표 IV-6> 성인 (18~89세)들의 가족구성	68
<표 IV-7> 가구수와 평균 가족수의 변화 (1960~2005)	68
<표 IV-8> 성 혹은 남성폭력성에 대한 규제내용	72
<표 IV-9> 사회계급에 따른 양육방식의 특징	80
<표 IV-10> 스웨덴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	81
<표 IV-11> 스웨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	81
<표 IV-12> 아버지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 상관분석 .. 82	
<표 IV-13> 스웨덴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행동	82
<표 IV-14> 스웨덴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83
<표 IV-15>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상관분석 .. 84	
<표 V-1>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	94
<표 V-2> 부모님이 나(청소년)에게 가지고 있는 관심 정도 ... 95	
<표 V-3>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1·2 순위 기대 ... 96	

그림 목차

[그림 I -1] 청소년 정책의 구조(2004. 법안 기준)	5
[그림 II-1] 스웨덴 청소년의 고민거리	11
[그림 II-2] 스웨덴 청소년의 사회의식	18
[그림 II-3] 불법적 행위에 대한 관용도 (2002)	20
[그림 III-1] 16세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 내역	32
[그림 III-2] 22세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 내역	34
[그림 III-3] 스웨덴 사립학교 증가 추이	40
[그림 III-4] 청소년 연령별 비율(13~25세)	43
[그림 III-5] 청소년 인구 남녀 비율(13~16세)	43
[그림 III-6] 스웨덴의 연도별 이민자 수	45
[그림 III-7] 16~19세 청소년의 주거형태	49
[그림 III-8] 16~19세 청소년의 거주 주택형태 (2003년 기준) ..	51
[그림 IV-1] 양성평등 고취를 위한 정책목표 (Varannan damernas 법안 1987)	71
[그림 IV-2] 가족정책과 청소년 정책의 범위와 연관정책분야 ...	85
[그림 V-1]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94

I. 청소년의 정의 · 개념화

1. 청소년의 정의
2. 청소년 개념과 청소년 정책

I. 청소년의 정의·개념화

1. 청소년의 정의

스웨덴에서 청소년에 대한 개념은 13세에서 25세 연령층으로 정의될 수 있다. 청소년의 연령적 정의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스웨덴에서 청소년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심을 끌기 시작한 1950년대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들의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정치적 수준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스웨덴에서는 본격적으로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적극적 참여하게 되면서 자녀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방과후 아이들이 특별히 할 것이 없어 배회할 경우 청소년 비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정신 및 육체 건강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자 국가가 적극적으로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착수했다.¹⁾

1994년 법안에서 16세에서 24세까지를 포함한 학생 및 청년층으로 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나 2005년 새롭게 입안된 법안에 따라 보다 포괄적 개념으로 13세에서 25세까지의 연령층으로 좀 더 확대되었다. 이 연령의 기준은 2004년 정부가 제시한 청소년 정책 법안에 따라 설정된 것인데²⁾, 이 연령층의 인구는 140만명에 이르고 전체인구 8백9십만명의 15.7%를 차지한다. 이 법안은 13세에서 25세까지의 연령층과 함께 후기 청년그룹인 26세에서 29세까지 포함한 연령층을 청소년 정책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즉 정부의 청소년 정책이 곧 바로 13세에서 25세까지만 포함하는 학생층을 넘어 대학을 졸업한 후 4~5년 정도의 기간 동안 가정을 구성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기간까지의 연령층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1) Ministry of Education, Research and Culture. 2004/2005:02. Summary version.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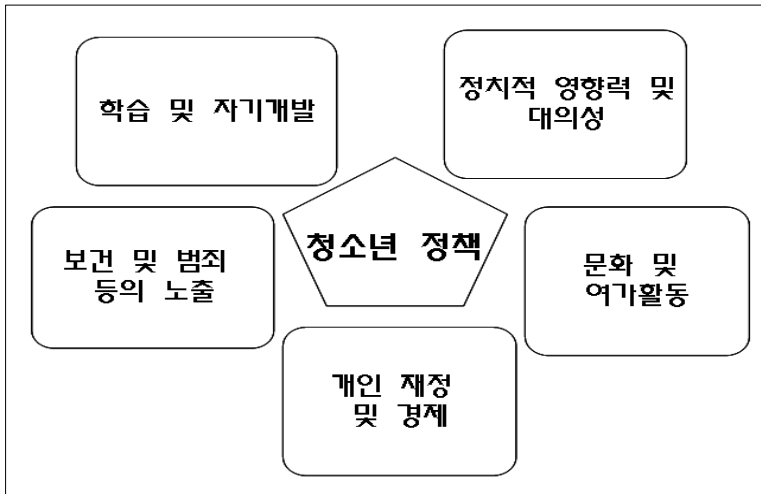
2) Proposition 2004/05:2. 사민당 정권 하에서 입안된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 즉시 효력이 개시되었다.

그러나 엄밀한 정의차원에서의 청소년이란 위에서 언급한 13세에서 25세 까지를 말하며, 청년실업, 청년주택난 해소 등의 정책입안과 집행에 있어서는 그 혜택을 29세까지 확대함으로써 20대 전체를 망라하고 있다.

2. 청소년의 개념과 청소년 정책

13세에서 25세의 청소년 연령층은 스웨덴의 교육제도에서 초등 8학년부터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는 나이인 25세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기간의 특징으로 16세까지 부모의 보호 하에 있고 한 달에 1080 크루네(1쿠르네 = 130원)를 국가로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데, 수당은 부모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즉 16세까지는 부모의 보호 하에서 직접 부모의 통제를 받는 나이라 할 수 있다. 17세부터는 고등학교 1-2학년 나이로 학업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아동수당과 같은 액수를 국가로부터 지급받는다. 직업학교의 경우 주로 3년제이나 4년제인 경우도 있어 18세나 19세에 대학에 진학을 한다. 성인이 되는 18세부터는 학업보조금이 개인구좌에 직접 입금이 되기 때문에 명실공히 성인으로 인정을 받는 셈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입학할 경우 학업보조금 2400크로네와 본인이 원할 경우 4700크로네를 장기저리 학자금 융자를 매월 지급받는다. 위에서 언급한 2004년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정책은 학습 및 자기개발, 보건 및 범죄들의 노출, 개인 재정 및 경제, 정치적 영향력 및 대의성, 문화 및 여가활동의 다섯 가지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I-1] 청소년 정책의 구조(2004. 법안 기준)

위와 같이 분류된 청소년 정책내용은 교육정책, 산업정책, 시민활동 정책, 문화정책, 보건 및 의료정책, 사회서비스정책, 체육정책, 주택정책, 노동정책, 소비자정책, 장애인정책, 사법정책, 민주주의 정책, 환경정책, 언론정책 등 기본적인 청소년 정책을 수행하고 담당하기 위한 하위 정책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청소년 정책목표는 청소년의 실질적 복지향상, 교육 및 여가 활동 등의 사회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실질적 권력부여, 부모를 떠나 가정을 구성하여 독립적 개체가 되기의 과정을 책임지는 모든 정책분야를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및 지방자치체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같은 전통은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 구축과 가족제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

Ⅱ. 청소년의 생활양식과 태도

1. 가치체계
2. 생활양식과 태도
3. 일탈행위

II. 청소년의 생활양식과 태도

생활양식은 삶에 대한 개인의 기본적인 지향이며 개인의 존재를 특징짓는 주체이자 특정개인이나 특정계층, 특정문화, 가치관, 생활의식 및 행동양식의 총화로 통합된 체계라고 할 수 있다(윤은정 외, 2005). 그러므로 한 사회의 특정 계층에 대한 생활양식의 탐구는 그 사회와 계층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장에서는 스웨덴 청소년들의 생활양식을 다양한 관점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치체계

1) 사회제도적 배경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대표되는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1930년대 이후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 까지 고도성장이 구축되는 기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과정의 중심에서 가족의 재편성이라는 중요한 변화가 함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1930년대 알바 뮈르달(Alva Myrdal)의 유토피아적 사회정책의 복지제도의 틀 속에서 사회경제적 요구와 노동시장의 필요성에 따라 보육과 육아는 국가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사민주의적 전통은 1970년대 중반까지 커다란 사회적 저항과 비판 없이 유지되었다.³⁾

2차 대전 이후부터 1950년대와 60년대를 거치면서 여성의 전통적 역할인 아동보육, 가내노동 등에서 벗어나 사회에 진출한 결혼여성의 비율이 50%를 넘기 시작했고 1980년에는 노동시장 진출 여성비율이 80% 정도에 이르면서 자녀들의 보육은 점차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탁아소로 전이되었다⁴⁾.

3) 스웨덴의 아동정책과 가족정책의 골격은 1930년대 알바 뮈르달과 군나르 뮈르달의 사상적 모델에 기초한다. 상세한 것은 Strandbrink and Pestoff, 2006: 19-25와 Bjornberg and Jurgen, 1997을 참조.

4) 1980년 임신이 가장 왕성한 25-35세 여성 중 81%가 사회에 진출했으며 1997년의 비율은 거의 같은 수준인 82%에 머물고 있다. Ds 2001: 57과 SOU 2000:3, p. 48 참조. 전체 여성 중 사회참여율은 1960년 48%, 1970년 59% 그리고 1985년 80%로 상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함께 이루어진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변화는 다양한 해진 자녀들의 방과후 프로그램이다. 이전에는 학교가 파한 후 주로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직접 귀가하는 학생이 대다수를 이루었으나, 산업화에 따라 핵가족제도가 정착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점차 늘어나자 자녀들을 사회제도적으로 맡아 양육 보호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 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방과후 프로그램과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초·중·고등 학생들의 여가활동까지 책임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산업화와 여성의 활발한 사회 참여는 국가와 지방자치체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분이 전통적 가정의 역할을 대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함께 복지제도의 구축으로 자녀수당, 청소년 학업보조금 등의 각종 보조금제도 등은 자녀의 용돈까지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가정 내 부모의 영향과 역할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부모의 전통적 역할의 감소와 함께 결과적으로 가정 내에서 아이들이 경제적, 재정적으로 부모로부터 덜 간접적인 관계로 발전되면서 부모의 자녀 장악력은 많이 약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2) 스웨덴 청소년의 가치 체계

이번 한국청소년개발원의 가족내 사회화 5개국 비교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스웨덴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드러났다. 이번조사에서 스웨덴의 조사 대상자는 총 514명으로, 그중 중학생이 12.8%, 고등학생이 6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조사 대상 청소년의 출생년도는 1982~1990년생까지였다.

청소년기는 독립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시기이자 또 실제로 그런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의 독립의식에 대한 이번 한국청소년개발원의 가족내 사회화 5개국 비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스웨덴 청소년들의 독립의식(자립의식)에 대한 조사에서 ‘결혼 전까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16.0%로 스웨덴 청소년들은 기타 조사대상국가에 비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시기부터 비교적 높은 경제적 자립·독립 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승했다. Hinnfors, 1992: 4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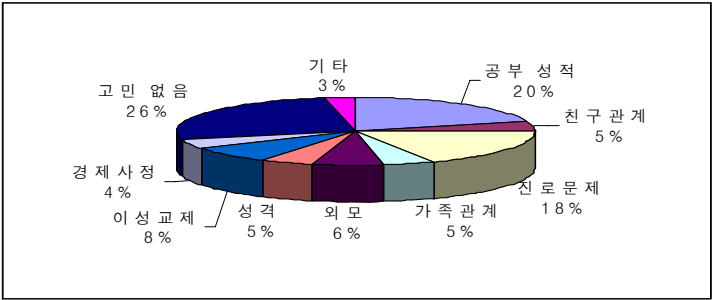
한편 스웨덴 청소년 위원회(National Board of Youth Affairs)⁵⁾의 조사에 의하면 스웨덴 청소년들이 부모의 집에서 이사 나오는 평균나이는 19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의 동일한 조사에서 스웨덴 청소년들이 어떤 내용을 고민하는지, 심각한 고민거리는 무엇인지 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부와 성적’, ‘친구관계’, ‘진로문제’, ‘가족문제’, ‘외모’, ‘성격’, ‘이성교제’, ‘집안 경제 사정’ 등으로 범주를 나누어 청소년의 고민거리를 조사하였다. 스웨덴 청소년들은 ‘고민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제시된 고민거리 내용이 스웨덴 청소년의 실제 고민거리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웨덴 청소년들은 다른 국가에 비해 고민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점이 특이할만하다.

<표 II-1> 스웨덴 청소년의 고민거리 (복수응답)

	공부 성적	친구 관계	진로 문제	가족 관계	외모	성격	이성 교제	경제 사정	고민 없음	기타	전체
빈도(명)	183	46	162	44	58	44	70	41	243	25	916
비율(%)	20.0	5.0	17.7	4.8	6.3	4.8	7.6	4.5	26.5	2.7	100.0

자료 :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5개국 조사 (청소년개발원)



자료 :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5개국 조사 (청소년개발원)

[그림 II-1] 스웨덴 청소년의 고민거리

5) 스웨덴 청소년위원회의 교육문화부 산하의 청소년문제 전담기구인 스웨덴 청소년 위원회(National Board of Youth Affairs)에서는 1994년, 1998년 그리고 2002년 총 세 번에 걸쳐 진행된 청소년가치체계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람이 자신을 포함한 세계나 만물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인 태도, 또는 견해를 가치관이라 한다면 가치관은 자아개념과 매우 유관하다고 볼 수 있다. 자아개념이란 자신에 대한 지각과 평가이며, 이것은 타인의 객관적인 판단 또는 평가에 근거한 것이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스웨덴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을 알아보기 위한 긍정적 자아개념과 부정적 자아개념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한국청소년개발원의 가족내 사회화 5개국 비교 연구 결과는 <표 II-2>와 같다.

<표 II-2> 스웨덴 청소년의 자아개념

긍정적 자아개념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	86.9%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83.3%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85.5%
	자신의 결정을 신뢰한다	77.1%
	문제해결력이 있다	80.3%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	71.8%
부정적 자아개념	가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60.0%
	가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0.9%
	대체로 내 자신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8.1%
	나는 문제아이다.	17.5%
	주위 사람들이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6.0%

최근 들어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으로서 스웨덴가정의 높은 동거율, 이혼율 및 재혼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청소년들이 다른 조사대상국 청소년들에 비해 긍정적 자아개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향후 스웨덴 청소년들의 특수한 고민거리에 대한 구체적 조사 및 후속연구를 통해 더욱 섬세한 연구 작업이 요구되는 부분일 수도 있으나 부정적 자아개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문항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 긍정적 자아개념이 비교적 높다고 할만하다.

최근 높은 동거율, 이혼율 및 재혼율(동거관계에 있는 파트너들의 빈번한 교체 등을 포함)로 인해 가족의 구성원이 매우 복잡해 졌다. 동일한 부모를 둔 아이들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부모가 공동양육권을 가진 경우 일정

기간씩 아이들이 양쪽을 번갈아 가며 생활하는 가족형태 반쪽자리 핵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반복 재혼한 부부가정의 아이들이 복잡한 형제관계로 구성되는 등의 가정구성에 따른 부모 통제기능의 역할이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현재 스웨덴 가족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⁶⁾ 그 변화 속에서 스웨덴 청소년들의 가치 혼란 양상과 자아개념의 변화 추이에 대한 고찰은 향후 스웨덴 청소년의 태도 및 행동양상을 파악하는 주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3) 사회복지 제도와 가치체계의 변화양상

스웨덴의 역사는 왕권이 교회를 통한 중앙통제와 함께 발전되어 왔다. 교회는 국가의 행정단위로서 주민들의 주민등록관리, 교회참석의 독려, 교육과 보건 등의 기초 규제활동 등을 통해 국가의 중심권력으로서 국민의 삶의 형태와 양식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산업화, 개인화의 진행과 함께 기독교적 전통의 급격한 약화와 세속화(Secularization)가 진행되었다.

1970-80년대까지 스웨덴 사회는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로서 국민의 90% 이상이 개신교에 속해 있었으며 기독교적인 규범과 행동양식이 스웨덴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후기 산업화의 진행과 개인화, 복지제도의 확산과 국가역할의 증대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이 곧바로 세속화로 진행되면서 스웨덴 사람들의 삶의 규범과 가치에 대한 시각이 급속도로 변화하였다. 스웨덴은 거의 모든 경제 지표에서 서구의 다른 복지체계 국가들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로 인해 오랫동안 복지국가의 원형으로 불려왔다(곽효문, 2001). 복지국가로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가정 내에서의 기독교적 교리와 전통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자녀들의 양육방식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야기되었다. 즉 교회가 일정부분 책임지던 사회부조와 교육은 국가의 복지제도 속에 편입되고, 학교가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게 됨

6) 예를 들어 이혼한 커플의 경우 아이들을 공동양육하는 형태가 1992/93년에는 전체 아동 중 4%만을 차지했으나 10년후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18%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서는 Demografiska rapporten, 2004: 53 참조. 또한 1916-25년 기간동안의 이혼율은 0.9%, 1946-55년 5.5%, 1966-75년 8.8%에서 1999년에는 25.3%까지 증가했다. Demografiska rapporten, 2003:1.2.

으로써 자녀들의 사회화 과정은 기독교적 전통 내에서의 행해지는 것과 판이하게 다른 양태로 발전되었다. 즉 부모의 탈교회화와 세속화의 진행은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치체계와 가족문화를 전수하는 과정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변혁기를 거친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은 그 이전의 양태에 있어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스웨덴 청소년들의 가치체계는 다른 산업국가들의 경우와 다소 다른 면을 보여준다. 즉 사회복지의 확대에 의해 개인 생활에서 국가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타 유럽 및 미국 등의 서구국가와 비교할 때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가치정향에서 국가의존성이 매우 높은 반면 부모의 전통적 역할인 교육, 양육 등에서의 의존성은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는 구미국가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층은 복지제도의 최대팽창기인 80년대에 태어난 세대로 국가의 부조정책, 재분배정책 등으로 인한 지역간, 계급간 평준화의 영향으로 가치체계에 있어 평등의식이 다른 세대에 비해 강하다. 이를 뒷받침 하는 것으로 기술직에 대한 임금우대로 인해 3D와 같은 혐오직업을 특별히 기피하는 양상은 보이질 않는다.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높은 취업률로 인해 오히려 일반 인문계고등학교보다 인기가 높은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진출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있어서도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보다는 취직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청소년 사이에서 경제적 자립을 통한 가족구성과 독립세대유지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

스웨덴 청소년의 경우 성년나이인 18세 이후 부모와 함께 한 집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며, 직장이 없는 경우 임시방편으로 부모와 잠시 사는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하다. 부모의 경우에 있어서도 18세 이후 자식의 경제적 부양 책임이 없어짐으로써 당연히 독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식이 18세가 되면 동거, 이성교제, 혹은 동성결혼 등의 개인생활에 대한 본인의 결정을 존중하며 부모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이 같이 아이들 의사를 존중하는 경향은 이미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16세부터 자연스럽게 각 가정에서 나타난다.

취업과 대학진학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대학교 3-4년 학업

후 취업한 노동자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노동자의 임금의 차이에 있어 전자의 경우가 더 높고, 직장경험과 실습을 대학에서 배운 학문과 동등한 지식적 가치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대학진학과 같은 동기유발이 되질 않는다. 또한 대학 입학 시 직장경력을 가산점으로 산정해 줌으로써 역으로 직장생활을 먼저 시작하고 이후에 대학진학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정치적 성향에 있어서도 교육수준이 낮은 노동자 집안의 경우와 소득이 낮거나 실직수당 등에 의존적인 가족이거나 비기독교 집안일수록, 사회민주당 및 좌익계열 정당에 지지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정당일치도 및 투표성향의 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는데, 가족 내에서의 대물림과 가족사회화는 청소년 가치체계 형성과 정치정향의 획득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⁷⁾

2. 생활양식과 태도

1) 여가, 직업, 교육, 사회, 삶에 대한 사고방식

스웨덴 청소년들의 가치성향은 복지국가의 발달과 산업주의와 후기물질주의(Post-materialism)의 영향으로 생활양식과 태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스웨덴 청소년 위원회(National Board of Youth Affairs)⁸⁾에서 1994년, 1998년 그리고 2002년 총 세 번에 걸쳐 진행된 청소년가치체계연구를 진행하였다. 스웨덴 청소년의 가치체계와 태도 성향에 대한 이 연구는 스웨덴 청소년 정책수립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⁹⁾ 위의 세 연구는 청소년들의 가치성향을 다음의 여러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7) 스웨덴에서 가족사회화 연구의 중요한 연구결과인 Westholm, 1991 참조.

8) 스웨덴 청소년위원회의 교육문화부 산하의 청소년문제 전담기구이다. 정부의 청소년관계 정책제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 청소년위원회는 한국의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개발원의 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정부조직이라 할 수 있다.

9) SOU 1994:73; Ungdomsstyrelsen, 1998; Ungdomsstyrelsen 2003:1.

• **여가 및 가족생활** : 가족, 직장, 높은 봉급수준보다는 개인취미와 여가생활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자 의미라고 지적하는 청소년이 최근 들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들어갈수록 가족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스웨덴 청소년 중 60%가 시민 및 체육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체육활동을 통해 새로운 것을 접하고 배울 수 있어 여가생활의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연령이 젊을수록 학생단체, 체육단체, 그리고 문화단체에서 여가활동을 하고 있었어 여가활동에 적극적인 의식을 드러냈다.

• **장래 가족계획** : 1993년과 2002년 사이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장차 장래의 가족계획에 대해 1993년 연구에서는 80%가 출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하고 있으나 2003년에는 70%수준으로 약간 줄어들었다. 여성의 경우 첫아이를 낳는 평균 연령이 28세, 남성의 경우 31세로 출산연령이 갈수록 늦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¹⁰⁾

최근 스웨덴 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높아지는 경향과 함께 여성의 초산연령이 높아져가고 있다. 1980년대에는 평균 초산연령이 25.5세로 낮았으나 10년대 별로 측정해본 통계에 의하면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20년만인 2000년 측정에서는 28.4세로 높아졌고, 최근 2004년에는 29세까지 높아졌다.

<표 II-3> 여성의 초산연령 추이 (1980~2004)

	1980	1990	2000	2003	2004
초산연령	25.5	26.3	28.2	28.8	29.0

자료 : Ungdomsstyrelsen, 2005 : 10, p. 56.

• **직업과 교육에 대한 열의** : 직업세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원활한 직장생활도 중요하지만 자기계발을 위하여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젊은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직장선택 문제에 있어서는 일에 대한 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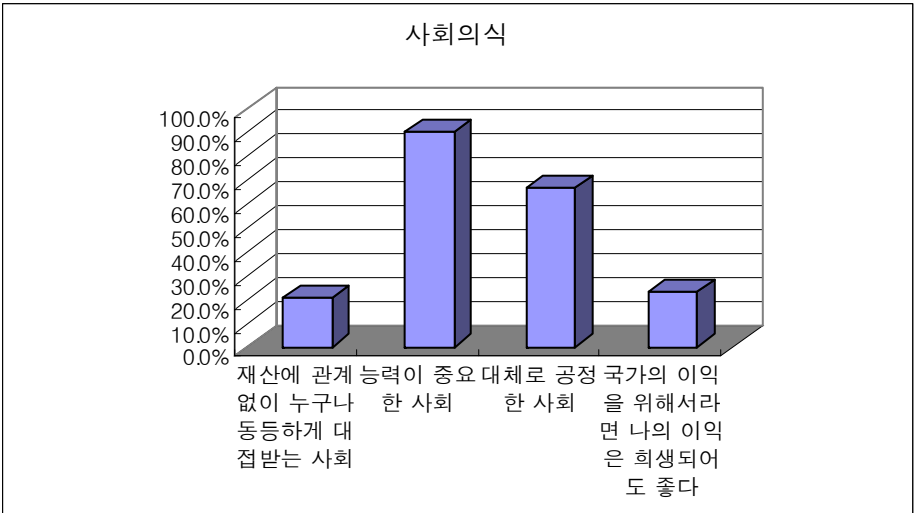
10) 보다 상세한 것은 같은 뒤 부분의 표를 참조.

성취 및 만족보다는 재정적 수입을 더 중요시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어 스웨덴 청소년들은 직업과 직장에 대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직종보다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직장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직장에서의 중요한 요소로는 직장동료, 노동환경, 그리고 상사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이 직장생활에 있어서 승진 및 진급과 경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유급 출산휴가, 부모수당 등을 통한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이 젊은이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사회 의식** : 2003년의 연구에서는 동성연애자들이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으며 나아가 입양할 권리도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비율이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가사노동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도 1990년대보다 2000년대 들어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남성에게 있어서도 가사노동이 직장생활 이상으로 재미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20대 후반으로 갈수록 가족이 삶의 중요한 목표라고 답한 것같이 자식의 미래를 위해 부모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점에는 80%의 청소년이 동의하고 있다.

1990년대 나타났던 경제위기와 연관된 정치가들에 대한 불신이 최근 들어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환되었고, 가두시위, 건물점거 등의 불법적 방법으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식이 10년 전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 하지만 16-19세 그룹에 있어서는 정치적 관심이 낮아지고 있으며, 중앙이나 지방정치에 직접 참여해 보고 싶은 욕구 표현도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스웨덴 청소년들 사이에 개인적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평등의식이 현저히 만연되어 있다는 점도 최근 변화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스웨덴 청소년의 평등의식은 20.4%로 나타났다. 능력중심사회에 대한 인식은 90.5%로 나타나 복지국가인 스웨덴 사회에서 다소 모순된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스웨덴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67.0%가 동의했으며 국가발전을 위해 개인이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23.2%로 나타났다.



자료 :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5개국 조사 (청소년개발원)

[그림 II-2] 스웨덴 청소년의 사회의식

• **법과 질서의식:** 청소년의 법과 질서에 관한 인식은 성인에 비해 다소 불법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와 나이가 많은 인구 층에 비해 불법적 행위에 대해 더욱 관대하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의식 및 책임감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4>를 통해서 젊은 세대층의 불법에 대한 관대 성향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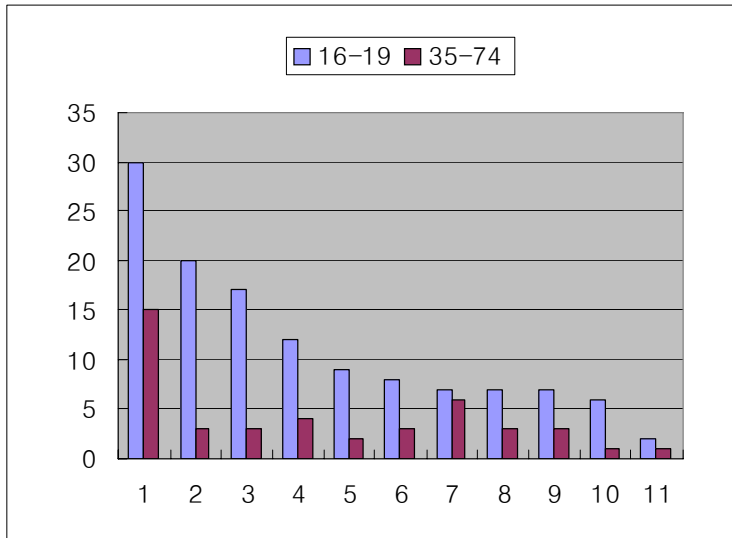
<표 II-4> 불법적 행위에 대한 관용도(2002)

	16-29세	35-74세	합계
1. 불법고용을 할 수 있다	3.5	2.2	2.5
2. 대중교통을 무임승차 할 수 있다	2.8	1.4	1.7
3. 20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법으로 금지하는 주류 구입을 대행해 줄 수 있다.	2.7	1.4	1.7
4.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버릴 수도 있다	2.3	1.5	1.7
5. 가능만 하다면 탈세를 해도 된다	2.1	1.6	1.7
6. 자격이 없는 사회복지기금을 타서 쓰는 것이 무방하다	2.1	1.3	1.5
7. 도난 장물을 구입해 쓸 수 있다	2.0	1.2	1.4
8. 성매매를 하는 것도 무방하다	1.8	1.6	1.7
9. 정치적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	1.8	1.3	1.4
10. 마약을 사용해도 된다	1.6	1.1	1.2
11. 음주운전 하는 것은 괜찮다	1.1	1.1	1.1

주 : 1. 매우 적절하지 않음 ~ 7. 매우 적절함.

자료 : Ungdomsstyrelsen, 2003:1, p. 262.

최소 1과 최대 7의 평균 점수계산에서 젊은 세대 층의 경우 대다수 항목에서 기성세대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불법노동자 고용에 대한 가부판단 문항에 대해서 16~29세의 젊은층은 기성세대보다 불법고용에 대한 관용도가 높게(3.5) 나타났다. 또한 버스 및 전철요금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행위에 대해 기성세대(1.4)보다 높은 관용도(2.8)를 보였다. 20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술을 대신 구입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공공장소에서 쓰레기 등을 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 모두 옳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훨씬 많이 나왔다. 기타 탈세, 사회복지기금의 불법적 유용성, 도난 장물의 구입의향, 폭력행사, 매춘, 마약 등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기성세대보다 행위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 단,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세대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음주운전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 : 위의 그림은 질문에 대해 적절-부적절 척도의 중간점인 4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5, 6, 7의 척도에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다.

자료 : Ungdomsstyrelsen, 2003:1, p. 263

[그림 II-3] 불법적 행위에 대한 관용도 (2002)*

불법행위가 적합하다고 지각한 사람들의 비율만 토대로 하여 비교한 위의 그래프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불법고용을 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이 16~29세의 젊은 층은 30%에 이르는 반면 기성층은 15% 밖에 이르지 않았으며, 두 번째 항목인 ‘대중교통을 무임승차 할 수 있다’라는 견해에 있어서도 16~29세의 젊은 층은 20%, 기성세대는 3%로 불법행위에 대한 관용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 같은 형태는 모든 항목에서 발견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주류구입, 쓰레기 버리기, 탈세, 불법복지 기금유용, 마약 등에서 기성세대에 비해 매우 관용적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사회에서 좋지 않다고 인식되는 행위나,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보다 관대한 가치성향을 보여줌으로써 기존 윤리와 질서에 대한 준법정신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기존의 가치관에 대한 청소년들의 불일치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스웨덴 청소년의 건강

청소년기는 성인기의 건강지위를 형성하는 주요한 생활주기인 동시에 앞으로의 삶에서 사망률과 질병 발생률을 결정하는 건강 위험의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김영호, 2000). 최근 청소년의 건강이 청소년의 생활양식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의식 확산과 함께 청소년 건강권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스웨덴 청소년의 식생활과 관련한 기본 건강상태는 체중과다와 비만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표 II-5>에서 볼 수 있다.

<표 II-5> 16~24세 청소년의 체중과다 및 비만을 (2005년)

	남	여	남녀합계
체중과다	15%	11%	13%
비만	4%	5%	4%

자료 : Ungdomsstyrelsen, 2006: 3, p. 38.

현재 스웨덴의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15%가 걱정 체중을 넘은 체중과다이며, 비만도 4%에 이른다.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체중과다는 11%로 남성에 비해 다소 낮지만 비만은 약간 높은 5%에 이른다. 따라서 남녀 합계 수치는 17%로 전체적으로 과다 영양 섭취와 운동부족 등으로 전형적인 현대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1980년대에 비해 체중과다는 10%증가하였고 비만은 2%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¹⁾

한편, 스웨덴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계한 자살, 정신병, 알코올 중독, 마약중독 등의 통계를 통해 육체적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은 아래 <표 II-6>과 같다. 아래의 <표 II-6>은 청소년들이 최근 1년 동안 자살, 정신병, 알코올, 마약중독 등의 이유로 병원을 방문한 경험 빈도를 파악한 것으로 스웨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11) The National Board of Youth Affairs, 1999. Review of national youth policy. p. 216.

<표 II-6> 15~24세 청소년의 자살, 정신병,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등으로 인한 의료시설방문 비율 (2004년)

10,000명 당 병원 방문이유	남	여
자살기도	11.7명	19.6명
정신병	6.0명	21.2명
마약중독	11.6명	35.5명
알코올중독	20.7명	13.6명

자료 : Ungdomsstyrelsen, 2006: 3, p. 35.

① 병원 내원 및 입원 경험

2004년 동안 자살기도로 인해 병원 내원하거나 입원한 경험이 있는 15-24세 청소년의 경우 여자그룹은 20명의 자살경험이 있었거나, 시도를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남성의 경우도 11.7명이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수치로 볼 때 스웨덴 청소년들의 자살경험과 충동은 그리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신병 혹은 정신분열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여성은 21.2명, 남성은 6명으로 이 경우에 있어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다. 여자 청소년의 35.5명이 마약경험으로 이로 인한 후유증, 혹은 치료를 위해 병원에 내원 혹은 입원한 경험이 있었으며 남자 청소년은 이보다 낮은 11.6명이 마약중독으로 인한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고 답변했다. 반면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병원방문 빈도수에 있어서 남자 청소년(20.7명)이 여자 청소년(13.6명)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남자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보다 상습적 알코올 섭취률은 높으나 전반적으로 스웨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상태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위의 통계수치를 통해서 스웨덴 젊은이들이 앓고 있는 스웨덴 사회의 ‘복지의 후유증’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② 청소년 사망

자살, 마약복용, 혹은 알코올섭취와 연관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빈도를 보면 청소년들의 건강 생활 영위정도를 알 수 있다. 아래 <표 II-7>은 2004년 청소년 사망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 II-7> 15~24세 청소년의 자살, 마약복용사망, 교통사고사망 빈도수 (2004년)

10,000명당	남		여		남녀합계	
	15~19세	20~24세	15~19세	20~24세	15~19세	20~24세
자살수	0.8명	2.1명	0.6명	1.0명	0.7명	0.7명
마약복용사망자수	0.2명	0.9명	0.2명	0.2명	0.2명	0.6명
교통사고사망자수	1.4명	1.7명	0.8명	0.5명	1.1명	1.1명
합계	3.8명	7.0명	3.0명	2.4명	3.4명	4.8명

자료 : Ungdomsstyrelsen, 2006: 3, p. 35.

15~19세와 20~24세 층으로 구분된 청소년 중 자살빈도수가 제일 높은 층은 남성 20~24세 그룹으로 2.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으며, 남자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각각 1.4명, 1.7명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남자 20~24세 그룹 중에서 자살, 마약, 교통사고 사망 빈도가 합계 7.0명에 이르고 15~19세 층에서도 3.8명에 이르는 등 청소년들이 20대 중반을 넘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다. 같은 또래의 여성청소년의 경우 남성에 비해 덜 심각하긴 하지만 자살률에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 층인 20~24세 그룹 여성 중에서 제일 높은 만 명당 1명, 혹은 10만 명당 10명의 자살 빈도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시기에 느끼는 사회적 소외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해 볼 수 있다.¹²⁾

12) 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스웨덴 정부에서는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1994년 자살방지국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살원인규명과 자살환경 개선을 위한 예방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시행해 오고 있다. The National Board of Youth Affairs, 1999, p. 207.

③ 흡연, 음주 및 마약

Ungdomsstyrelsen의 2006년 연구에서 보면 청소년들의 건강과 관련된 행태 중 담배 흡연율과 폭음경험은 16~24세 그룹 남성 중에서 8%, 여성은 16%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폭음 경험에 있어서는 남성의 경우 33%, 여성은 32%가 최근 1년 동안 폭음의 경험이 있다고 밝힘으로써 흡연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술, 담배는 아래의 마약과 함께 청소년들의 정신 및 육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3대 요소로 꼽히고 있음을¹⁴⁾ 알 수 있다.

<표 II-8> 16~24세 청소년의 흡연율 및 폭음경험율 (2005년)

	남	여	합계
담배흡연	8	16	12
스너프흡연	20	4	13
폭음*	33	32	32

자료 : Ungdomsstyrelsen, 2006: 3, p. 39~40.

* 폭음계수 0~12 중 남성 8~12, 여성 6~12에 해당하는 수치.

2004년과 2005년 기준으로 스웨덴 남성의 경우 17%가, 여성은 13.5%가 마약을 호기심으로 복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더욱 심각한 점은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남성이 5.5%, 여성이 2.5% 수준에 이르며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 정부에서는 지속적 마약 단속과 유입로의 차단 등을 이유로 유럽대륙과 남유럽국가들보다는 아직 청소년 마약 중독율에 있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동유럽국가들의 유럽연합 가입과 함께 여행객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해 갈수록 마약유입이 수월해지고 있으므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서 스웨덴뿐만이 아니고, 대다수 서구국가들이 마약밀수 등의 원천적 봉쇄에 심

13) 그러나 스웨덴 특허 담배로 구강에 넣어 녹여서 피우는 ‘스너프담배’는 역으로 남성이 20%를 여성은 4%만이 흡연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4) 국가차원에서 청소년 흡연과 알코올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1997년

혈을 기울이고 있다.

<표 II-9> 16~24세 청소년의 마약 경험율* (2004~2005년)

	경험삼아 해 본적 있음		최근복용경험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04	17	14	5	2
2005	17	13	6	3

자료 : Ungdomsstyrelsen, 2006: 3, p. 41.

3. 일탈행위

스웨덴 청소년 범죄와 일탈행위는 갈수록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청소년 폭력 실태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범죄율은 1950년까지는 거의 증가하지 않다가 1960년 이후 최근 20년 동안은 그 증가율에 있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¹⁵⁾

청소년 범죄의 실태는 주로 학교 내 폭력을 중심으로, 집단패싸움, 강도, 절취, 파괴, 장물구입, 주거침입, 폭행, 신분증위조, 자동차도난, 소매치기 등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표 II-10>에서는 친구 혹은 타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10> 13~24세 폭력으로 인한 상해경험 (2005년)

	남	여
13~18세	7.8%	2.3%
19~24세	16.9%	2.9%

자료 : Ungdomsstyrelsen, 2006: 3, p. 44.

13~18세의 남자 청소년 7.8%, 여자청소년 2.3%가 폭력으로 인한 상해를

15) The National Board of Youth Affairs, 1999, p. 230.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24세의 경우 여자 청소년 그룹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으나 남자 청소년 그룹의 경우 현저하게 증가하여 16.9%가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답변함으로써 청소년 폭력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스웨덴 청소년들의 집단따돌림 현상이나 인격 모독에 대한 경험 여부는 <표 II-11>과 같다.

<표 II-11> 16~24세 청소년의 최근 3개월간 왕따 혹은 인격모독 등의 경험률 (2005년)

혹은 인격모독 등의 경험률	남	여	합계
비율(%)	25%	40%	32%

자료 : Ungdomsstyrelsen, 2006: 3, p. 37.

학교친구, 직장동료, 혹은 단체 활동에서 직접 집단따돌림(일명 왕따) 혹은 인격모독 행위를 경험해 본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남자 청소년 (25%)보다 여자 청소년의 경험비율(40%)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스웨덴 사회에 전반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고 여성의 정치참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과 비교해보면 대조적인 면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들의 부정적 성의식 및 문란한 성경험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심각하다. 비교적 어린 나이인 13~14세 초등학교 7~8학년 학생이 이미 낙태하는 경우와 출산경험이 미미하나마 존재하고 있고, 이 같은 현상이 나이가 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II-12>는 청소년 낙태와 출산에 대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12> 13~24세 청소년의 낙태와 출산건수 (2004년)

	나이별 해당 여성구분		
	13~14세	15~19세	20~24세
1000당 낙태건수	2.3	23.3	30.6
1000당 출산아수	0.1	5.8	47.1

자료 : Ungdomsstyrelsen, 2006: 3, p. 36.

15-19세 여학생의 경우 1000명당 낙태건수가 23.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출산아 수도 5.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나이가 많은 그룹인 20~24세 여성은 이보다 약간 더 높은 30.6명이 낙태를 경험하고, 출산하는 건수도 1000명당 47.1명에 이르고 있다. 청소년들의 문란한 성경험은 성병의 발병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¹⁶⁾

<표 II-13> 15~24세 청소년의 성병감염실태 (2004년)

	15~19세	20~24세	전체
남성	3.0	8.3	5.8
여성	9.4	10.2	9.8

자료 : Ungdomsstyrelsen, 2006: 3, p. 36.

15~24세 청소년들의 성병감염 실태를 보면 15~19세 남자 청소년의 경우 3.0%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같은 나이의 여자청소년 그룹을 보면 9.4%로 거의 10명중 1명이 성병이 걸려 있는 셈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추세는 20~24세 그룹에서 그대로 발견되는데, 이 그룹의 특징은 남성과 여성의 성병 감염율에 있어 연령이 낮은 그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남성의 경우 8.3%, 그리고 여성의 경우 10.2%가 성병에 감염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흡연, 음주, 마약 등과 함께 문란한 성관계와 이에 따른 스웨덴 청소년들의 정신 및 육체건강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¹⁷⁾

16) 스웨덴 청소년의 성병감염과 성관계의 문란화는 아마도 잦은 파티문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부모의 경우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파티를 할 때 놀 수 있도록 집을 비워 주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는데, 이 때 집에서 부모가 사놓은 맥주, 보드카, 양주 등 고 알코올농도 음료 등을 파티에서 섭취함으로써 쉽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부모의 역할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피임에 관한 교육만을 시킬 뿐 성경험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 관계된 질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17) 1988년 '전염성 질병 방지법'을 발효시켰으나, HIV 등의 병에 걸린 환자를 인위적으로 병원에서 감금하거나 격리시킴으로써 국내외적으로 비난을 받아 현재 법 집행이 잠시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Ⅲ. 사회화 과정의 사회적 배경

1. 사회변화 : 인터넷 및 정보화 사회
2. 학교, 복지체계와 관련 이슈들
3. 청소년인구 : 성, 인종, 결혼상태
4. 청소년 노동인구와 관련이슈들

III. 사회화 과정의 사회적 배경

1. 사회변화: 인터넷 및 정보화 사회

1) 컴퓨터 사용의 증가

스웨덴 사회도 급속히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02년 기준으로 80%의 가정에 인터넷이 가능한 PC를 사용하고 있고, 15-19세 청소년 중 88 퍼센트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15-24세의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63 분을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¹⁸⁾ 스웨덴 국민의 90%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16-30세 의 젊은 층의 경우 94%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젊은 청소년 가정의 경우 일반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폰만 사용하는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다. 즉 스웨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변화는 이제 스웨덴도 급속히 정보화 사회, 특히 모바일 정보통신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웨덴 청소년 중 16세, 22세 층의 컴퓨터 사용형태 조사연구(<표 III-1> 참조)를 보면 인터넷 사용 및 컴퓨터 사용이 청소년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 16세 스웨덴 청소년들의 컴퓨터 사용 형태에 있어서의 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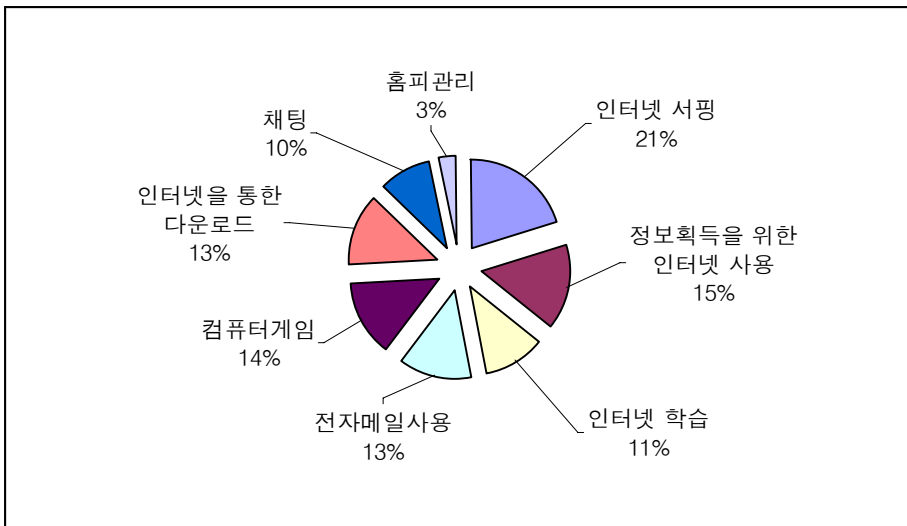
	여성	남성	합계
인터넷 서핑	81%	86%	84%
정보획득을 위한 인터넷 사용	51%	70%	62%
인터넷 학습	42%	49%	46%
전자메일사용	58%	49%	53%
컴퓨터게임	20%	82%	57%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	41%	66%	55%
채팅	30%	45%	39%
홈피관리	8%	17%	13%

자료 : Ungdomsstyrelsen (The Swedish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 2005:1, p. 107.

18) SIKa, 2004.

먼저 16세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이 중요한 소일거리로 활용하고 있다. 16세 남자청소년의 86%, 여자 청소년의 84%가 일상적으로 인터넷 서핑을 즐기고 있으며, 단지 시간을 보내고 즐기기 위한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학습을 위해 인터넷을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남녀 청소년이 각각 62%와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활용 형태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점으로 남자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정보화기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컴퓨터게임, 다운로드, 채팅, 홈페이지관리 등에 있어서는 여성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자 청소년의 58%가 전자메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남성의 경우 49%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전자메일 사용이 다소 많았다. 또한 과반수가 넘는 16세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을 즐기며 mp3 음악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있다. 이보다는 약간 활동비율은 떨어지나 채팅과 홈페이지관리 등도 상당수가 된다.



[그림 III-1] 16세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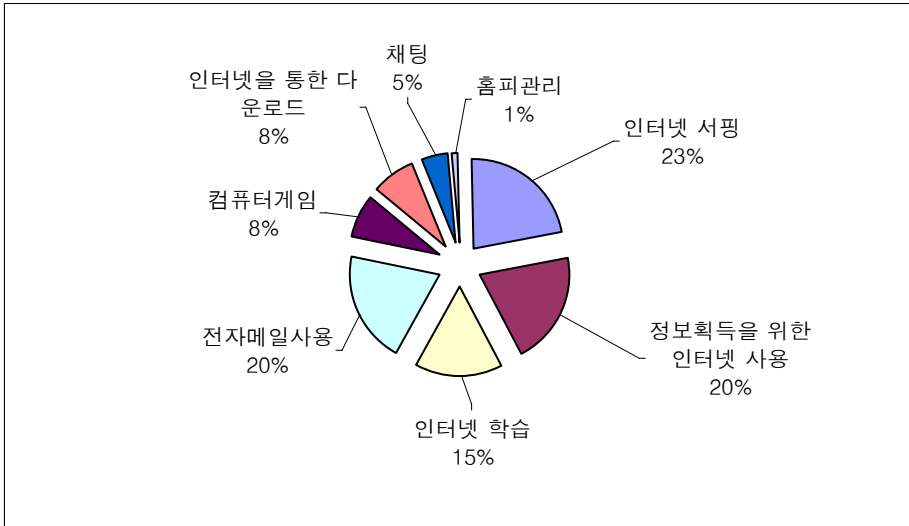
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거나 직장생활 혹은 실직상태로 집에 있는 청소년층인 22세의 조사에서는 <표 III-2>와 같이 16세 청소년들의 컴퓨터 활용양상과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2> 22세 스웨덴 청소년들의 컴퓨터 사용 형태에 있어서의 성 비교.

	여성	남성	합계
인터넷 서핑	70	77	73
정보획득을 위한 인터넷 사용	61	67	63
인터넷 학습	51	49	50
전자메일사용	69	62	66
컴퓨터게임	10	49	25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	17	42	26
채팅	10	26	16
홈피관리	2	7	4

자료 : Ungdomsstyrelsen (The Swedish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 2005:1, p. 110.

우선 눈에 띄는 양상은 22세 층에서는 16세보다도 전반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빈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컴퓨터게임, 다운로드, 채팅, 홈피관리 등에 있어서는 거의 두 배 이상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획득과 전자메일 등에 있어서는 16세 청소년층에서 보다 더욱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전자메일, 인터넷 학습의 사용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앞서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II-2] 22세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 내역

이상을 종합해 보면 16세, 22세 청소년 층 모두에서 정보기기 활용의 정도에 있어서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보다 적극적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엔터테인먼트 활동영역보다는 정보의 유용측면과 전자메일 등을 통해 의사소통의 방법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휴대폰 사용 증가

컴퓨터 사용이 국민 전체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 청소년의 생활양식에 큰 변화를 가져 온 것과 같이 휴대폰도 국민들의 생활을 바꿔 놓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10명 중 9명의 국민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특히 16~30세의 젊은 층의 경우 94%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휴대폰의 사용에 있어서 전화의 기본 기능인 통화기능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송신 기능인 SMS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2.5세대 기술인 사진 및 동영상의 송신, 그리고 3세대 통신기술인 화상통화 등의 기능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표 I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대폰의 기능 중 2003년 SMS 사용은 1년

전에 비해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표 III-3> 스웨덴 국민의 휴대폰 SMS 사용빈도 변화

회수	2002년	2003년
1일 1회	4	5
1일 2-5회	16	19
6-10	2	2
1일 10회 이상	1	1
1주일에 1-2회	7	12
1달에 1-2회	18	12
거의 사용 안 함	36	32

자료 : SIKA, 2004, p. 122.

휴대폰 사용에 있어서 SMS(short message service) 사용비율도 하루에 최소한 1번의 SMS를 보내는 비율이 2002년과 2003년 사이 23%에서 27%로 증가했으며, 이 같은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젊은 층(16~30세)의 경우 거의 50%에 육박하는 46%가 최소한 1개의 문자를 휴대폰을 통해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층일수록 휴대폰 본래 기능인 음성통화와 함께 SMS가 의사소통을 위한 중요한 통신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동영상 파일전송 기능, 휴대인터넷 기능, 화상통화 등의 기능을 위해 최근에 휴대전화기를 구입했거나 앞으로 최신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전화기를 바꿀 의사가 있는 대기자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¹⁹⁾

이와 같은 정보화와 함께 스웨덴 청소년의 사회생활은 컴퓨터가 중요한 정보획득을 위한 주요한 도구이자, 여가활용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휴대폰을 통한 문자송신(SMS)이 친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소통수단이 되고 있다. 이는 어느 정보사회에서나 발견될 수 있는 개인화, 폐쇄화, 즉흥성의 증가, 정서불안 및 신중 질병인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그리고 SMS 중

19) SIKA, 2004, p. 123.

독, 그리고 포르노 등과 같은 인터넷 음란 사이트의 접속을 통한 탈선 등의 부작용을 내포함으로써 청소년 사회화 과정에서 부정적인 요소들로 문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중독으로 청소년 여가의 파괴, 성장과 발달 파괴, 가족관계 파괴, 고유문화 형성 기회 상실 등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전 세계적 인식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스웨덴 정부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문제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즉 청소년의 여가활용을 다양하게 하고 매년 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체육단체, 레크레이션 단체, 문화단체 등의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와의 대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고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에 자녀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활동을 펴고 있다.

2. 학교, 복지체계와 관련이슈들

1) 스웨덴 학교 제도 역사적 배경

1950년 스웨덴 의회는 기존의 지역에 따라 7년 내지 8년의 의무교육(compulsory schooling) 연한을 9년으로 확대하고 인문계와 실업계간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과과정을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특별한 지역을 선정하여 부분적으로 이들 교육개혁 조치를 도입하였으며 이러한 개혁은 1962년 이후 스웨덴의 경우 중등교과과정의 커리큘럼은 인문계와 실업계가 함께 통합되어 이전의 중등교육과정의 복선형(Dual System)이 폐지되었으며 의무교육기간은 9년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이러한 교과과정의 통합은 기존의 실업계와 인문계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대학진학장벽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교과통합으로 인하여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저학년때 능력에 따른 선택을 하게 되는 학교 간 등급제도를 폐지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또한 9년 간의 의무교육과정의 도입도

교육연수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Meghir and Palme, 1999). 이러한 교육개혁에 따라 사회적 배경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교육기회의 장벽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정광호, 2002).

스웨덴 청소년들의 교육여건은 서구 국가에서 그다지 뒤지지 않는다. 우선 의무교육 기간인 유아원부터 초등학교 9학년(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까지 뿐만이 아니고 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교육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에 대한 진지한 열의와 관심만 있다면 얼마든지 학업에 열중할 수 있다. 부모의 수입의 차이에 따라 생기는 가정간의 격차를 줄이고 어느 학생이나 똑같이 삶의 질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으며,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업수당을 지급해 준다. 결과적으로 학생들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의 계급적 차이와 부모의 수입과 관계없이 소외와 따돌림을 당하지 않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복지국가의 원형인 스웨덴에서도 완벽한 교육기회의 불평등 해소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전체 사회의 복지 및 교육복지 여건 수준이 높은 스웨덴의 교육복지모델을 연구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2) 교육복지 체계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1세부터 15세까지는 아동수당(Barnbidrag)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해 주고 16세부터 20세까지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업수당(studiebidrag)을 지급한다. 성인이 되기 전 나이인 17세까지는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18세부터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 준다. 액수는 2006년 10월 현재 1명 당 1050크로네(한화로 대략 140,000원)를 부모의 수입여부, 혹은 수입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자녀에게 지급해 준다. 자녀가 둘 인 가정의 경우 각 한 명씩 1050크로네, 도합 2100크로네와 함께 추가수당 100크로네 포함 2200크로네를 지급한다. 자녀가 셋인 경우 기본수당 3150크로네와 함께 추가수당 454크로네를 합한 3604 크로네를 지급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녀가 다섯인 가정의 경우 부모가 수령하는 총 액수는 기본수당과 추가수당을 합해 7613크로네(한화 약 100만원 가량)가 된다. 자

녀 한 명당 추가수당의 폭이 커지는 것은 그만큼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수입이 줄어들고 자녀양육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자녀가 많은 집안을 복지제도로 보상해 주기 때문이다.

<표 III-4> 가정에 지급되는 아동 및 학업수당

가족 당 자녀 수	기본수당	추가수당	총 수령액
1	1050	-	1050
2	2100	100	2200
3	3150	454	3604
4	4200	1314	5514
5	5250	2363	7613

자료 : The National Insurance, 2006. FK4058_a_Fa.

복지제도의 틀 속에서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주택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급여수준에 따른 결손분을 주택보조금으로 충당해 주고 있다. 아래 표를 보면 청소년의 경우 18세 이후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쉽게 단독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고수입이 혼자 살 경우 연봉 80,000 크로네 즉 한화 약 1,000만원 정도의 수입 이하일 경우 정부에서 주택수당으로 매월 1,100크로네를 지급해 준다. 다른 파트너와 동거일 경우 연봉 100,000크로네의 수입까지 독거인 상태와 같이 1,100 크로네를 주택보조금의 형식으로 지급해 준다. 29세 이상의 성인이 독거, 동거, 결혼 시 자녀가 있으나 소득이 낮아 주택유지 결손분을 위해 아래 정해놓은 규정에 따라 주택보조금을 차등지급해 준다. 따라서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수입이 안정치 못한 청소년의 경우와 29세 이후 동거 혹은 결혼 등을 통해 아이를 낳아 기를 때 경제적 불안정으로 생기는 주택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표 III-5> 주택보조금 수준과 최저 및 최고 수입 범위

	최저수입	주택수당	최고수입
18~28세 청소년 독립가구			
독거	41,000	1,100	80,000
동거	58,000	1,100	100,000
부모가 함께 별 때			
1자녀	117,000	2,500	265,000
2자녀	117,000	3,100	310,000
3자녀	117,000	3,900	355,000
부모 중 한 사람만 수입이 있을 때			
1자녀	58,500	2,500	203,000
2자녀	58,500	3,100	244,000
3자녀	58,500	3,900	287,000

자료 : DS 2005:39, p. 187.

이 같은 보편적 교육복지와 주택보조금제도를 통해 부모의 수입과 실직상태와 관계없이 자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돈을 국가가 지급해 주거나 주택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한으로 줄여줌으로써 자녀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여주며, 진학을 등에도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3) 교육과 관련한 이슈 - 학교선택권(school choice) 제도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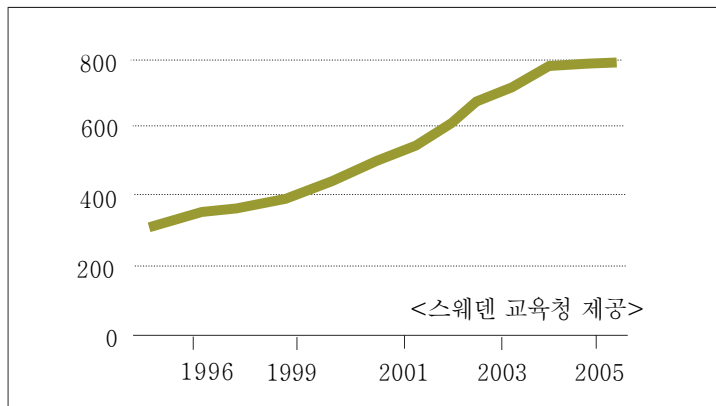
스웨덴의 학교선택권(school choice)제도는 우파정권이 집권 중이던 1992년 도입됐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한 이 제도는 경쟁이 심한 사립학교의 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교육현장에서의 경쟁체제 도입은 기존의 공립학교 중심의 학교 시스템에도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됐다. 이 영향으로 인해 주식회사형 학교(초등·고등학교)가 스웨덴 내에만 400여개에 이른다. ‘주식회사형 학교’란 수업료로 학교를 운영하고 ‘이익’까지 추구하는 학교를 말한다. 대학까지 전액 무상교육을 실

20) 조선일보 2006년 1월31부터 총 4회에 걸쳐 연재된 ‘세계는 교육 혁명중-스웨덴’편을 정리·요약하였다.

시하는 스웨덴 교육정책에서 보면 ‘이단아(異端兒)’인 셈이다. 유럽형 사회주의의 원조라 할 스웨덴에서 왜 주식회사형 학교가 나왔을까? 이는 평등화 정책에 대한 반성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1991년까지 스웨덴의 학교는 몇몇 특수학교를 제외하면 모두 공립학교였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은 없었고 오로지 거주지와 거리로 학교가 결정됐다. 그 결과 학교는 특색 없이 모두 같아졌고 학생들과 학부모의 요구에 둔감했으며 교육의 질 역시 낮아졌다. 이런 분위기는 1992년 ‘학교선택권’(school choice)이 도입되면서 바뀌었다. 그 골자는 글로벌시대를 살아갈 인재 양성에 ‘경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었다.

이후 1995년 좌파 연립정권이 등장하자 ‘사립학교를 없애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좌파 연립정권은 물론 국민들도 스웨덴 교육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반응 때문이다.



자료 : 조선일보 2006년 1월 31일자

[그림 III-3] 스웨덴 사립학교 증가 추이

스웨덴 교육청이 2001년 발표한 ‘학교선택권의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학부모의 90% 이상이 ‘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학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고 대답했다. 우파 정권이 제도화한 '학교선택권' 제도를 학부모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사립학교들의 개혁은 공립학교들을 자극했다. 스웨덴 공립학교들은 수년 전부터 갖가지 '자극'을 받고 있다. 사립학교들의 잇단 교육 혁신은 공립 학교의 '교육 리모델링'으로 이어졌다. 과거에는 가만히 있어도 학생들이 몰려왔지만 학교선택권(school choice)이 보장되면서 모든 것이 경쟁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공립학교들의 '반격'이 가능한 것은 스웨덴 학교에 자율성이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필수 과목 이외에는 학교별로 특정 영역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스웨덴 교육 정책의 특징이다.

이 같은 교육시장의 변화에 정치권의 시각도 바뀌기 시작했다. 과거의 공립학교 중심의 국가통제 교육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좌파정당들도 학교선택권에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며 사회민주당원의 절반, 공산당원의 4분의1, 환경당 정치인 대부분이 학교선택권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최근 스웨덴 교육당국은 학교선택권 제도는 유지하되 이로 인한 부작용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 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인종에 따라 학교 간 격차가 심해지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3. 청소년인구 : 성, 인종, 결혼상태

1) 청소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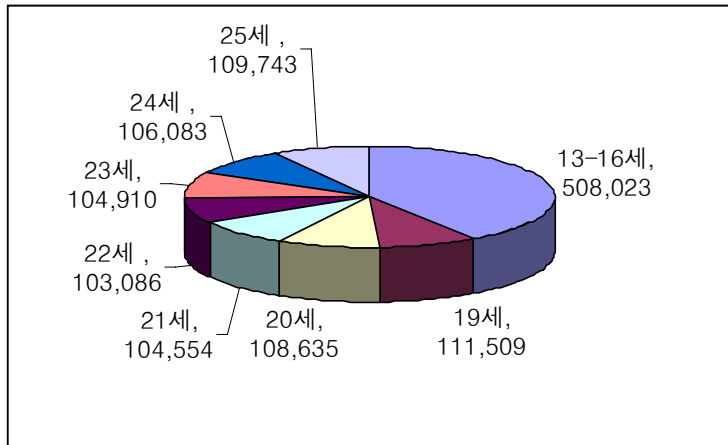
2005년 기준으로 스웨덴에서 13~25세의 청소년은 149만명으로 스웨덴 전체인구 9백만명 중 이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16.5%에 이른다. 남녀비율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많은 17.2%이며, 스웨덴 통계에서 사용되는 스웨덴 청소년의 연령층을 29세까지 늘렸을 때 149만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청소년의 비율은 21.3%가 된다.

<표 III-6> 청소년 남녀구분 인구 구성비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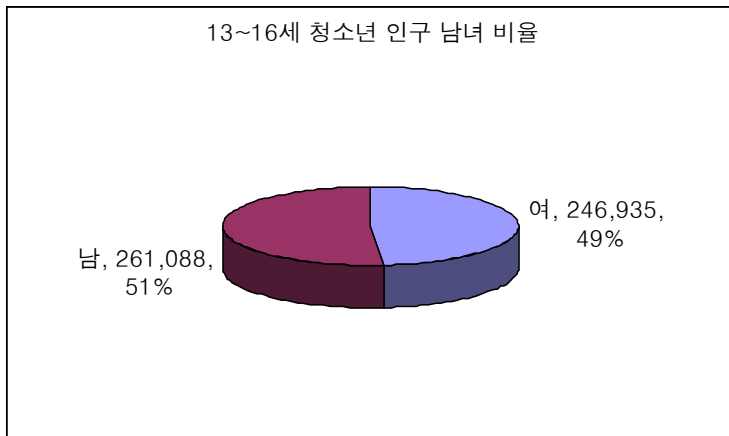
나이	여	남	합계
13	61,254	64,765	126,019
14	62,454	66,293	128,747
15	63,365	66,740	130,105
16	59,862	63,290	123,152
17	58,263	61,943	120,206
18	55,558	57,850	113,408
19	54,249	57,260	111,509
20	52,925	55,710	108,635
21	50,992	53,562	104,554
22	50,449	52,637	103,086
23	51,267	53,643	104,910
24	52,147	53,936	106,083
25	53,839	55,904	109,743
합계 (13-25)	726,624	763,533	1,490,157
청소년 비율 (13-25)	15.93	17.02	16.47
26	53,395	55,213	108,608
27	52,071	53,850	105,921
28	53,161	55,348	108,509
29	54,553	56,727	111,280
합계 (13-29)	939,804	984,671	1,924,475
청소년 비율 (13-29)	20.6	21.95	21.3
스웨덴 총 인구	4,561,202	4,486,550	9,047,752

자료 : SCB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2005. Befolkningsstatistik efter kn och lder 2005 (Population Statistics by gender and age in 2005). Stockholm.

청소년 연령층의 특징은 매년 10만명에서 13만명 수준을 기준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고 일정한 분포층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소년 중 13세에서 16세까지의 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13만명의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III-4] 청소년 연령별 비율(13세-25세)



[그림 III-5] 청소년 인구 남녀 비율(13~16세)

2) 다민족국가에서의 인구변화와 교육기회

스웨덴도 이제는 더 이상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사회가 아니다. 1960년대에는 외국인과 이민자를 합한 인구수가 총 50만명에도 미치지 않아 이민자의 비율이 6.5%에 머물러 있었지만 1970년대부터 칠레, 터키, 이디오피아, 이란, 이라크, 구 유고슬라비아로부터 정치망명이 꾸준히 증가하여 스웨덴 사회도 빠르게 다민족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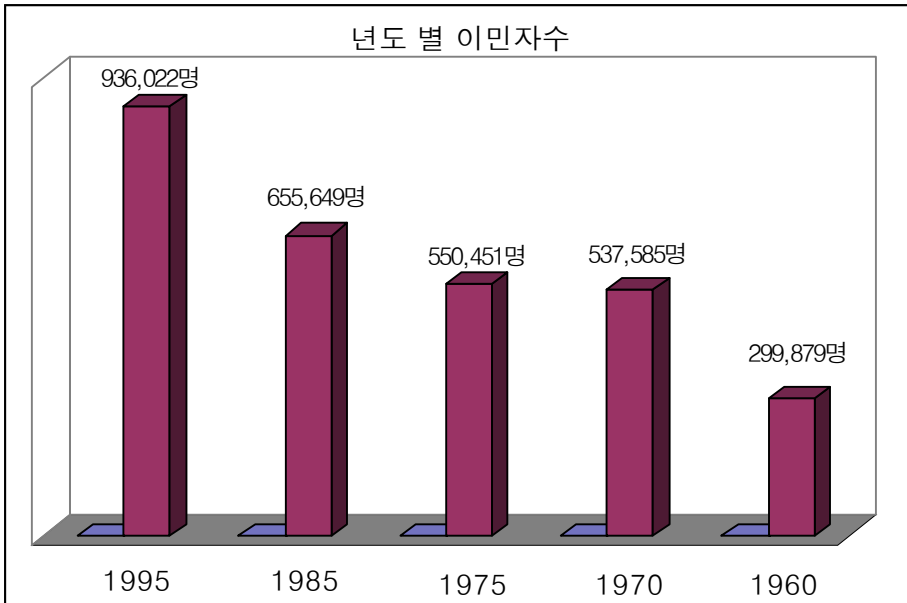
<표 III-7> 스웨덴 인구와 이민자 비율

	2005	1995	1985	1975	1970	1960
총인구수	9,047,752	8,837,496	8,358,139	8,208,442	8,081,229	7,497,967
외국인수	479,899 (5.3%)	531,797 (6.0%)	388,641 (4.6%)	409,894 (5.0%)	411,280 (5.1%)	190,621 (2.5%)
이민자수	1,125,790 (12.4%)	936,022 (10.6%)	655,649 (7.8%)	550,451 (6.7%)	537,585 (6.7%)	299,879 (4.0%)
이민자부모가 낳은 자녀수	337,568 (3.73%)	224,494 (2.54%)				
스웨덴 총인구대비 이민자 비율	21.4	19.1	12.4	11.7	11.8	6.5

자료 : SCB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2005. Befolkningsstatistik i sammandrag 1960~2005 (Population statistics). Stockholm.

1970년대부터 전체인구의 10%를 넘어 2005년 현재 이민자의 비율은 이민자 1,2세, 그리고 외국인국적 소유자까지 포함하여 전체인구의 21.4%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 사회 전체가 급속도로 다민족, 다문화사회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 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스웨덴 정부는 1999년부터 총 20억 크로네 (한화 약 2600억원)를 대도시 통합정책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²¹⁾ 이는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외국인의 삶을 개선하며, 이들을 스웨덴 사회로 편입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21) 대도시정책은 대도시내에서 외국인의 소외현상을 해소하고, 외국인이 스웨덴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스웨덴인과 외국인의 괴리와 이질감을 줄이고 통합을 유도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SOU 2000과 Kommitte direktiv 2006:66. Stockholm 을 참조.



자료 : SCB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2005. Befolkningsstatistik i sammandrag 1960~2005 (Population statistics). Stockholm.에서 재구성.

[그림 III-6] 스웨덴의 연도별 이민자 수

스웨덴 토착민과 외국인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논의는 스웨덴 사회에서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다. 스웨덴 부모를 둔 학생과 외국인 부모를 둔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상급학교 진학률은 과연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인가? 아마도 이 질문은 외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스웨덴인을 부모로 둔 학생보다도 낮을 것이라는 가설로부터 기인한다. 그 이유는 언어적 제약, 그리고 스웨덴 학생들과의 융화문제, 그리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소외 현상 등 때문일 것이다. <표 III-8>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의 출신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8> 9학년 학생의 성별, 출신별 고등학교 진학률 (2004/5 -2005/6)

	9학년졸업생	고등학교 진학 학생수	고등학교 진학율
총학생수	119,894	116,514	97.5
여학생	58,539	57,040	97.7
남학생	61,355	59,474	97.2
스웨덴부모를 둔 학생	103,430	100,835	97.8
외국인부모를 둔 학생	16,464	15,679	95.2

자료 : <http://www.skolverket.se/sb/d/1231/a/6239>. 2006-10-20. 16:30.

2004년 5월 전에 졸업한 9학년 학생의 수가 총 119,894명에 이르는데 이중 고등학교 진학률은 97.5%에 이른다. 이 중 남, 여학생간의 구분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진학률에 있어 큰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나, 부모의 출신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스웨덴 부모를 둔 학생들은 97.8%의 9학년 학생이 진학을 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 부모를 두고 있는 학생들은 약간 낮은 95.2%의 대학 진학률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상정한 가설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가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고자 할 때도 유효할 것인가? 즉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을 진학하는 비율에 있어 스웨덴인을 부모로 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높게 나타날 것인가? 아래의 <표 III-9>를 보면 위와 같은 가설이 더 이상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03년과 2004년의 자료를 보여주고 있는 아래의 도표를 보면 총 고등학교 졸업생 80,480명 중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진학률에 있어서 여학생이 앞서고, 출신별로는 스웨덴인의 부모를 둔 학생들이 16.8%의 진학률을 보이고, 외국인 출신의 경우 26.8%의 진학률로 무려 10%의 차이로 상대적으로 높은 진학률을 보여주고 있다. 중학교 졸업 때와 고등학교 졸업 때의 상위학교 진학률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아직 외국인 부모를 가진 학생들이 완전히 스웨덴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학업성취도에 있어 뒤쳐졌거나 그로 인해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는 언어의 어려움이나 문화의 차이를 이미 극복한 상태에서 학업성취도에 있어서는 두 그룹간에 어떠한 차이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측이다. 그렇다면 대학진학률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스웨덴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취업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지만 외국인 부모를 둔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해 더 좋은 직업을 얻게 하기 위한 부모의 희망과 자신의 희망이 일치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외국에서 부모가 이민자로서 스웨덴 사회에서 소외 받고 스웨덴 사회에 들어가 성공할 수 없었던 외국인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은 교육을 통해 신분상승하기를 바라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III-9>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 (2003~2004)

졸업	합계	여학생	남학생	대학교 진학율.	여학생	남학생
스웨덴인출신	70,048	35,294	34,754	16.8	19.2	14.2
외국인출신	10,432	5,378	5,054	26.8	30.2	23.3
합계	80,480	40,672	39,808	18.1	20.7	15.4

자료 : <http://www.skolverket.se/sb/d/1231/a/6239>. 2006-10-20.

그러나 무료 개방되어 있는 스웨덴 교육의 특성상 전반적으로 낮은 대학진학률은 고등학교 졸업 4년 내에 50% 이상까지 향상됨을 알 수 있다. 물론 외국학생의 진학률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노동시장에 진출했던 스웨덴 출신 학생의 경우도 다시 대학교육으로 진로를 바꿔 계속 학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무료로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대학 교육의 특성상 고등학교 졸업 시에는 아주 낮은 10%대의 대학 진학률을 보이지만 3~4년이 지나면 50% 이상의 졸업생이 대학을 진학하게 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스웨덴의 교육제도는 거시적인 복지제도의 틀 속에서 국가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으며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질 높은 노동력의 투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의 향상에도 일조하고 있다.

<표 III-10> 고등학교 졸업생의 연차별 대학진학률 (1998/1999 2003/2004)

졸업	합계	여학생	남학생	졸업 1년후 대학진학률	졸업 2년후 대학진학률	졸업 3년후 대학 진학률	졸업 4년후 대학진학률
1998/99	17.4	20.5	14.1	32.7	42.6	48.3	51.8
1999/00	16.6	19.5	13.5	32.6	42.6	48.1	51.3
2000/01	18.3	21.3	15.0	35.7	45.9	51.0	.
2001/02	17.8	20.8	14.7	34.6	44.6	.	.
2002/03	17.9	20.9	14.9	33.8	.	.	.
2003/04	18.1	20.7	15.4	.	.	.	.

자료 : <http://www.skolverket.se/sb/d/1231/a/6239>. 2006-10-20.

3) 청소년의 주거형태와 경제적 의존성

스웨덴 청소년들의 주거형태는 다음의 <표 III-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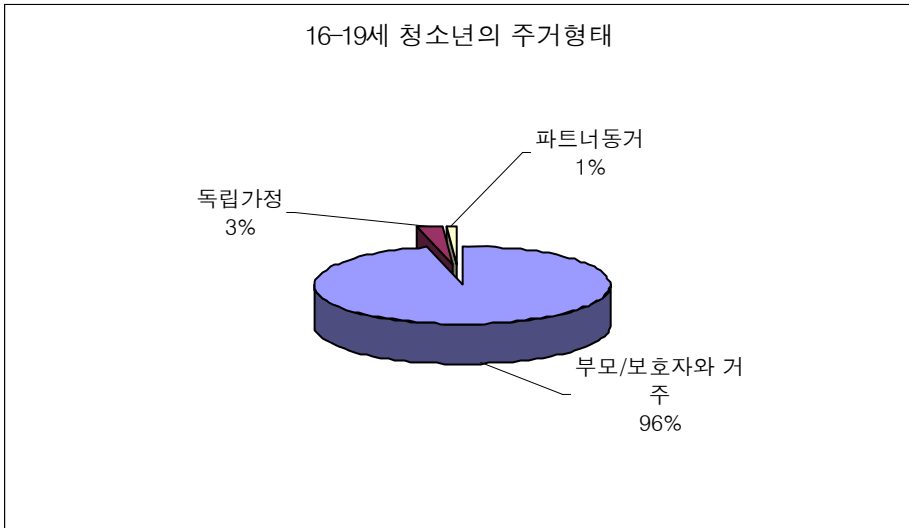
<표 III-11> 청소년의 연령별 주거형태와 비율 (2003년)

	16-19세	20-22세	23-25세	합계
부모/보호자와 거주	96	58	14	54
독립가정	3	24	38	22
파트너동거	1	18	48	24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 Ungdomsstyrelsen, 2005:10, p. 55.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연령층인 16~19세의 경우 96%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나, 단지 4%만이 독립가정을 이루거나 동거형태를 띠고 있으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인 19세 이후 20~22세 사이의 연령층에서는 부모 혹은 보호자와 함께 사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58%를 이루며, 파트너 없이 독립가정을 이루는 경우는 24%, 파트너와 이미 동거 상태에 들어가는 비율이 18%에 이른다.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마지막 23~25세 그룹의 경우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14%로 급감하고, 혼자 사는 비율이 38%, 그리고 이성 혹은 동성 파트너와 함께 사는 비율이 48%로 이미 20대 중반이 되면 86%가

독립가정을 이루고 사는 삶의 형태를 누리고 있다. 이 같은 삶의 형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주택형태이다.²²⁾



[그림 III-7] 16~19세 청소년의 주거형태

스웨덴 청소년들의 거주 주택 형태는 다음 <표 III-12>를 보면 스웨덴 청소년들은 상당수의 경우 부모로부터 독립할 때 아파트의 임대를 통해 독립가구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22) 청소년 남녀간의 차이에 있어서는 동일한 연령층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부모와 함께 사는 기간이 길다. 예를 들어 19세의 경우 남성은 80%가 부모와 함께 사는 반면, 여성은 60%만이 부모 집에서 살고, 21세의 경우 남성은 50%, 여성은 29%가 부모 집에 함께 산다. 29세까지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은 있지만 여전히 여성이 부모로부터 일찍 분가하는 양상은 지속된다. 아마 그 이유로 여성은 남성보다 서비스, 유통업계에 진출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직장을 상대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반면, 남성의 경우 실직상태인 경우 부모 집에서 계속 함께 사는 양상을 띤다. 따라서 경제적 자립이 부모의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세한 것은 The National Board of Youth Affairs, 1999, p. 12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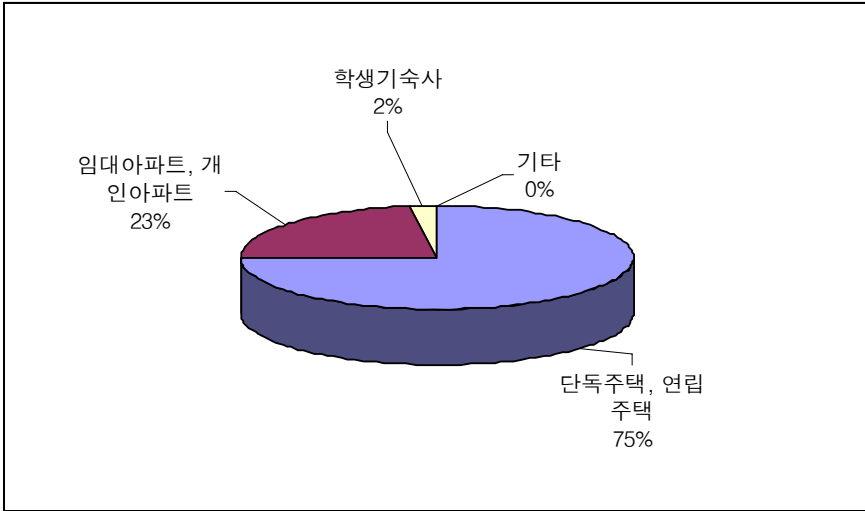
<표 III-12> 청소년의 거주 주택형태 (2003년 기준)

	16~19세	20~22세	23~25세
단독주택, 연립주택	71	45	21
임대아파트, 개인아파트	22	46	66
학생기숙사	2	8	7
기타	0	1	2
합계	100	100	100

자료 : Ungdomsstyrelsen, 2005: 10, p. 54.

16~19세의 경우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단독주택에 사는 비율이 71%에 이르고, 임대아파트에 사는 비율이 22%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문다. 하지만 20대 초반과 중반을 거치면서 주택형태는 주로 임대주택 및 아파트 거주형태로 바뀐다. 20대 중반의 23~25세 그룹에서는 임대 및 개인아파트 거주형태가 66%에 이르며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단독주택 거주율은 단지 21%에 이른다. 20대 초반과 중반 연령층의 거주형태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연령층이 대학생층에 속하기 때문에 대학기숙사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무려 8%(20~22세)와 7%(23~25세)에 이른다. 따라서 스웨덴 청소년 들은 상당수의 경우 부모로부터 독립할 때 아파트의 임대를 통해 독립가구를 이루고 있으므로 대도시의 경우 청소년 들이 쉽게 독립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특히 대도시에 임대아파트를 충분히 건설하여 공급하고 있다.²³⁾

23) 스웨덴의 주택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인 콤문(Kommun)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국가 혹은 콤문이 소유하고 있는 택지를 이용해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제공한다. 청소년의 경우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단독가정을 이룰 때 가장 보편적인 거주형태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국가와 콤문의 주택정책은 중요한 청소년 정책의 일환이 되고 있다. 스웨덴의 청소년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The National Board of Youth Affairs, 1999, Chapter 4.4를 참조.



[그림 III-8] 16~19세 청소년의 거주 주택형태 (2003년 기준)

4. 청소년 노동인구와 관련이슈들

1) 스웨덴의 노동시장과 실업률

스웨덴의 노동시장은 제반 직종별로 노동자 측과 경영자측이 각각 단체를 조직하여 각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효율적인 조직기능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변광수 외, 1993). 스웨덴은 1993년과 1997년 사이에 완전실업률(open unemployment rate)이 최고 8%까지 상승하기도 했다(손혜경, 2006). 스웨덴 노동시장은 2003년 후반기에 회복을 시작하는 듯 했으나 다시 약세로 돌아서 2004년부터 취업률이 하강하여 2005년도에는 실업률이 5.7%로 나타나 2005년 후반기부터 노동시장의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손혜경, 2006).

스웨덴의 실업률에서 주목할 점은 실업구조의 변화이다. 현재 실업자들의 상당수가 대학교육을 받은 이들로서 이는 최근 고학력 노동자들을 고용했던 IT업계 인원감축에 의한 것이다. 또한 스웨덴의 경우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의 실업률보다 1%정도 낮는데 최근 이 차이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는 제조업에 남성근로자에 대한 수요증가와 공공부문에 있어서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여성일자리가 감소한 결과이다. 그러나 취업률을 살펴보면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높은데 그 이유는 고등학교 졸업 후 더 많은 여성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기 때문이다(Dagens nyheter, 2006). 스웨덴 실업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스웨덴 이민자들의 높은 실업률이다. 스웨덴 이민자들은 스웨덴 자국민들에 비해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2004년 실업률 통계를 보면 특히 비유럽계 출신 이민자들의 평균 실업률은 약 20%에 달하고 있다(손혜경, 2006).

스웨덴의 실업률은 명목상 5~6%이지만, 재교육을 받는 실업자 등을 포함하면 20%에 이른다. 특히 22%에 이르는 청소년 실업은 심각하다(한겨레 신문, 2006/11/21)

2) 청소년 노동인구

청소년의 노동인구는 시대적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13~18세 청소년의 경우 1970년에는 60%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30년 후인 2001년에는 30%만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노동참여율의 75%수준의 연령비교에서도 나타나는데, 1990년 당시 20세 청소년들의 노동참여율은 75%에 이른 반면, 10년 후인 2000년에는 26세가 되어서야 75%의 노동참여율에 도달했다. 이 같은 통계치가 보여주는 것은 청소년들의 대학 및 대학원 진학률이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고, 노동시장의 수요측면에서 보면 높은 학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 실업이 높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늘다 보니까 노동시장에서 직업을 구하는 구직자의 교육수준이 전체적으로 상향되었다고 할 수 있다.²⁴⁾

그만큼 스웨덴 젊은이들의 독립가정 구성연령이 상향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있다. 197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할 때 개인자립도가 더욱 떨어지고, 국가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24) Ungdomsstyrelsen, 2005, p. 10.

흔히들 청소년기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는 청소년들에게 금전의 중요성을 학습시키고, 경제관념을 배양시키며, 경제적 자립심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조사대상국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는데 영향을 끼칠까? 한국청소년개발원의 2006년 조사에서는 청소년기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 시기를 결정하는 데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는 지난 1년 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조사하였다.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할 시기’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졸업 후’, ‘최종학업을 마친 후’, ‘취업 이후’, ‘결혼 이후’, ‘부모님에게 계속 의존해도 좋다’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표 III-13>과 같이 스웨덴 청소년들에게는 아르바이트 경험유무와 독립시기 결정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할 시기가 사회적으로 결정된 상황에서는 청소년들 사이의 아르바이트 활동이 독립 시기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13>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와 경제적 독립시기 결정

경제적 독립 시기	스웨덴			
	예		아니오	
	빈도수(명)	비율(%)	빈도수(명)	비율(%)
중졸	0	0.0%	3	0.6%
고졸	25	5.2%	27	5.6%
대졸	32	6.7%	31	6.5%
취업이후	133	27.8%	202	42.3%
결혼이후	1	0.2%	2	0.4%
계속 의존	1	0.2%	1	0.2%
카이 제곱값	11.95			

*. p<.05 **. p<.01

청소년 노동인구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가정이 증산증일수록 경제적 자립이 쉬워 일찍 독립하고, 노동자 가정일수록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그만큼 개인의 경제적 자립 정도 혹은 직업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청소년의 독립가정 성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실직과 관계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아래의 <표 III-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직자의 상당수가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가 직업이 있는 사람에 비교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표 III-14> 청년 취업자 및 실직자의 건강상태 (20-24세)

구분	심리치료를 받은 경험이나 알코올, 마약중독 경험	같은 또래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건강상태 평가가 안 좋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
정규직	7.4	8.6
임시직	20.7	19.0
실직자	36.1	34.0

자료 : Ungdomsstyrelsen, 2005: 144.

심리치료를 받은 경험이나 알코올, 마약 등에 중독된 경험이 있는 비율은 정규직에 비해 실직자가 무려 30% 가량이나 높게 나타났으며, 임시직의 경우에 있어서도 정규직에 비해 13.3%가 높게 나타났다. 같은 또래의 사람들과 비교한 주관적 건강상태의 평가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정규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이 다른 또래 사람들에 비해 나쁠 것이라는 생각한 사람의 비율은 8.6%인데 반해 임시직과 실직자의 경우 19%와 34%를 기록함으로써 이전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업이 불규칙하거나 없을 때 느끼는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가 매우 비관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젊었을 때 건강이 전체 성년의 삶에서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할 때 인생에서 너무 일찍 비관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사회 및 국가 전체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노동시장에서의 위치 변화가 미래의 전망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

을 것인지 아래 <표 III-15>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있어 비관적일 경우는 2년 동안 실직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 가장 높았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 시각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2년 연속으로 정규직에 있는 사람들보다 2년 전에는 일자리가 없거나 임시직에 있다가 정규직을 얻은 사람이 더욱 낙관적이고 덜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이 경우는 지속적으로 정규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보다도 최근 정규직을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현재만족도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더욱 밝게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표 III-15> 청소년의 노동시장 분류별 미래 전망 (20-24세)

구분	조금 혹은 매우 비관적	조금 혹은 매우 낙관적
2002년, 2004년 연속 실직상태	14.0	57.8
2002년, 2004년 연속 정규직	5.7	77.2
2002년 임시직 혹은 실직상태, 2004년 정규직	2.6	82.0

자료 : Ungdomsstyrelsen, 2005: 145.

종합해 보면 청소년실업 문제가 개인건강 및 사회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며, 국가 전체의 미래와 비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1980년대와 90년대에 태어난 세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청소년층은 최근 복지제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또한 청년 실업률이 높고, 국가의 실업프로그램에서 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남녀의 경우 2004년 기준 11.4%와 10.4%에 이른다.²⁵⁾

따라서 높은 청소년 실업률은 청소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 및 국가의 중요한 현안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25) Ungdomsstyrelsen, 2006: 3, p. 45.

IV. 사회화 과정의 장으로서의 가족

1. 스웨덴 가족의 역사
2. 가족구조의 변화
3. 성역할
4.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양육방식
5. 가족과 청소년 정책

IV. 사회화 과정의 장으로서의 가족

1. 스웨덴 가족의 역사

1) 전통적인 가족 개념

전통적으로 루터교 신교를 국교로 한 스웨덴에서 가족은 사회질서와 통합을 위한 중요한 도구였다. 1523년 스웨덴 왕조를 건설한 구스타브 바사(Gustav Vasa)는 교회를 통해 국가의 통치 기반을 닦았다. 즉 ‘국가-교회-가족’이라는 수직적 통치체제를 통해 국가는 교회를 통제하고, 교회는 교구를 통해 행정업무를 대행했으며 교구목사는 행정장의 역할과 함께 교구 내 가족들의 모든 삶 자체를 관여하는 실질적인 대민 업무의 창구가 되었다. 목사는 일요일마다 한번 씩 교구민을 만나서 믿음상태, 건강상태, 가족 내의 일상사를 모두 듣고 상담하는 사회상담원의 역할도 수행하며 국가와 국민(가족 들)간의 충실한 매개자 역할을 담당했다.

스웨덴에서 전통적 가족의 개념은 남편과 부인이 서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믿음 위에서 이루어졌다.²⁶⁾ 가족 내에서 남편과 부인의 상호 보완성은 매우 보편적인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아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남편에 대한 내조와 자녀의 양육과 사회화의 책임이 강했던 반면 남편의 역할은 오로지 가족의 경제적 책임에 모아졌다.

가족은 가장 근본적인 사회단위로서 음식, 상품, 보건, 서비스, 출산, 육아, 규칙과 규범의 재생산 등과 같은 경제, 사회, 윤리 등의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가족은 사회에서 가장 작은 생산과 재생산의 단위라고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가족의 역할은 농경중심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예를 들어 남편은 들에 나가 경작을 하거나, 숲에서 사냥을 통해 가족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고, 이것으로 곡물과 육류를 생산했으며, 물물교환 등을 통해 다른 상품으로도 교환할 수 있었다. 아내는

26) Darvishpour, 2004, p. 31.

가족 내에서 남편과 자녀를 위해 가사 서비스를 제공했고, 남편과 함께 재생산 작업에도 참여했으며, 출산 이후에는 육아와 자녀교육을 담당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를 부모와 같은 인간으로 재생산하는 가치의 세대적 재생산 작업도 책임지게 되었다. 즉 가족은 완전한 생산과 소비의 주체이자 가치의 재생산, 사회규범의 유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2) 가족의 역할 변화

전통적 가정의 개념은 시대가 지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사회에서 역할 분담이 진행되면서 가족이 지니고 있었던 책임영역들이 하나 둘씩 사회로 이전되었다. 산업사회로 이행되면서 경작을 통해 생산해 냈던 임금을 공장에 나가 일함으로써 창출해 냈고, 농경사회에서도 그랬듯이 가족이 아닌 밖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삶을 위해 필요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한 수입이 필요했다. 가족 생계를 위한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남편이 맡아 왔던 역할은 산업사회에서도 그대로 남성의 전유물이 되었다. 또한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영역인 가사서비스, 양육, 규범과 가치를 전수하는 자녀 사회화 등은 아내의 몫이 되었다.

그러나 스웨덴이 본격적 산업사회에 진입하면서 여성의 사회진출도 더욱 가시화 되었고, 사회적으로 남편과 아내 간에 암묵적으로 맺었던 역할분담의 영역이 깨지기 시작했다. 2차 대전 이후 1970년대 후반에 이미 스웨덴 여성의 노동시장의 진출은 서구 어느 나라보다 높은 75%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와 함께 진행된 복지제도의 구축은 여성이 가정을 떠나 직장생활을 영위할 때 야기되는 문제들, 즉 전통적으로 여성이 지니고 있었던 육아와 가정교육을 국가가 대신 떠안았다. 이와 더불어 적극적 가족정책을 구현하였다. 여성이 출산을 위해 직장을 잠시 떠날 수 있도록 유급 출산휴가, 출산전후 준비 및 조리기간 등, 출산 후 최고 1년 동안 육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부모보험을 통해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다.

산업화의 진행과 함께 부부간의 관계 또한 변화되었다. 1차 산업이 주된 생산활동 이었던 가족의 경우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어 남편은 가족의 경제적 책임, 그리고 아내는 가사 서비스 및 자녀교육이라는

역할로 가족이 일종의 보이지 않는 계약관계로 부부관계를 엮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지만,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이런 계약관계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즉 여성의 사회진출은 그런 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얽매이게 하는 전통적 관습과 통념은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이상 부부관계의 지속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현대 사회에서는 일의 분담에 의한 계약적 부부관계가 아닌, 사랑으로 결합된 관계가 부부라고 주장한다. 즉 부부 사이에 사랑이 사라졌거나, 약화되었다면 언제든지 편한 자유인의 상태를 원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원리로 산업사회에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²⁷⁾

3) 스웨덴 가족의 특징

스웨덴의 가족형태는 여타 서구국가와 달리 전통적으로 1세대만 사는 핵가족 형태를 띠어 왔다.²⁸⁾ 이미 1600-1700년대부터 소규모 경작 농민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해 왔는데, 자녀는 어렸을 때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 따라서 결혼 전에 자녀가 집을 떠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으며 가족을 떠나 혼자서 살아가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 즉 남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는 26세, 그리고 여성의 경우 23세가 스웨덴에서 평균적으로 적정 결혼연령이라는 통념이 자리 잡았다.²⁹⁾ 따라서 스웨덴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3세대가 함께 한 가족 내에서 산다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 할 수 있다.

스웨덴 가족형태의 또 다른 특징은 일찍부터 혼전 동거로 가족을 구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860-1890년대의 자료를 보면 스톡홀름에서 결혼한 커플의 42%가 이미 혼전에 동거를 하면서 살았고, 이 기간에 태어난 아이의 11%정도는 혼전출산에 이루어졌으며 출산 후 결혼을 통해 정식가족으로 등록되기도 했다.³⁰⁾ 또한 혼전에 태어난 자녀가 늘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

27) Boethius, 1983.

28) Darvishpour, 2004, p. 33.

29) Ibid.

가 종종 생기자 아이 양육에 있어 1917년에는 아버지의 경제적 책임권을 규정한 가족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최근 들어 중요한 이슈는 사회변화로 인한 가족의 급격한 해체현상이다. 스웨덴의 인구와 가족 통계를 보면 1960년 이후 0-17세의 인구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반면에 65세 인구비율은 점차 늘고 있어 전형적인 노인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출산율 평균은 1921년에 2.7명,³⁰⁾ 1960년에 2.13명에서 2005년 1.77명으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였으나 최근 들어 점차 회복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60년 한해 50,149의 커플이 결혼하고 9,563 커플이 이혼한 반면, 2005년에는 44,381 커플이 결혼을 하고 거의 절반에 이르는 20,000쌍이 이혼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의 <표 IV-1>은 이 기간 동안 스웨덴 가족은 급격히 해체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1> 인구분포 및 가족의 변화 (1960-2005)

구분	2005	1995	1985	1975	1970	1960
12월31일 기준	9,047,752	8,837,496	8,358,139	8,208,442	8,081,229	7,497,967
남자	4,486,550	4,366,071	4,127,110	4,127,179	4,045,318	3,757,848
여자	4,561,202	4,471,425	4,231,029	4,081,263	4,035,911	3,740,119
0-17세 인구수	1,934,239	1,967,138	1,844,497	2,012,638	2,007,012	2,046,306
0-17 세 인구비율	21.4	22.3	22.1	24.5	24.8	27.3
65세 이상 인구수	1,565,377	1,543,332	1,454,111	1,250,785	1,113,239	887,964
65세 이상 인구비율	17.3	17.5	17.4	15.2	13.8	11.8
출산율	1.77	1.74	1.73	1.78	1.94	2.13
결혼건수	44,381	33,642	38,297	44,103	43,278	50,149
이혼건수	20,000	22,528	19,763	25,383	12,943	9,563

자료 : SCB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2005. Befolkningsstatistik i sammandrag 1960~2005 (Population statistics). Stockholm.

30) Ibid. 혼전 가족구성 즉 동거의 형태가 당시에 보편적이었던 이유는 스웨덴의 농촌경제가 피폐해 있었기 때문에 스톡홀름으로 상경한 지방 여성이 많았고, 당시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사는 동거가 가족구성의 중요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31) Sorrentino, 1990, p. 42 .

이혼율이 높아지는 사회현상에서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16~17세 청소년의 부모 세대의 이혼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표 IV-2>는 16~17세 청소년 가정의 부모이혼율 추이이다.

<표 IV-2> 16~17세 청소년 가정의 부모이혼율 추이(1916~1999)

기간	부모이혼율
1916~25	0.9
1926~35	2.3
1936~45	2.1
1946~55	5.5
1956~65	7.4
1966~75	8.8
1976~85	15.3
1986~1999	25.3

자료 : Demografiska rappoerter, 2003 : 1.2

1910년대와 20년대에는 자녀들이 16~17세 이르렀을 때 이혼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으나 2차 대전 이후 1950~60년대에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76~1985년 사이에는 이미 이혼율이 10%로 높게 나타났고, 1986년 이후 10년 동안 연간 25.3%의 가정이 이혼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결혼 4쌍 중에 1쌍은 결혼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이혼을 통해 각자의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셈이다.

따라서 현재 스웨덴 가족은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뒤에서 계속 논하는 가족구조에 있어서도 엄청난 변화가 뒤따르고 있다.

2. 가족구조의 변화

1) 이혼율의 증가

부모의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둔 가족의 구성이 매우 복잡하게 변

화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결혼의 형태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둔 가정이 63%, 동거 형태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둔 경우가 37%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혼을 하고 다시 결합한 가정의 경우, 혹은 동거상태에서 파트너와 헤어져 다시 다른 파트너를 만나 가정을 구성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자녀가 엄마 쪽, 혹은 아버지 쪽인지, 혹은 함께 자녀를 두었더라도 이전의 가정에서 데리고 온 자녀가 있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의 가족형태가 생긴다. <표 IV-3>는 스웨덴의 다양 가족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표 IV-3> 1~21세 자녀를 둔 가정의 가족형태비율 (2002)

자녀 구성에 따른 가정의 형태 구분	가족형태별 비율		
	결혼가정	동거가정	합계
어머니 쪽만의 자녀를 둔 가정	97%	3%	100
아버지 쪽만의 자녀만 둔 가정	99%	1%	100
어머니, 아버지 쪽 각각의 자녀를 둔 가정	100%	0%	100
공동의 자녀와 어머니 쪽의 자녀를 둔 가정	49%	51%	100
공동의 자녀와 아버지 쪽의 아이를 둔 가정	57%	43%	100
공동의 자녀, 어머니 쪽, 아버지 쪽 각각의 자녀를 둔 가정	51%	49%	100
합계	63%	37%	100

자료 : SCB, 2003, p. 16.

어머니 쪽만의 자녀를 둔 가정, 아버지 쪽만의 자녀만 둔 가정은 새로 만난 커플이 각각 데리고 들어온 아이에 대한 구분이고, 공동의 자녀와 어머니 쪽의 자녀를 둔 가정, 공동의 자녀와 아버지 쪽의 아이를 둔 가정, 공동의 자녀, 어머니 쪽, 아버지 쪽 각각의 자녀를 둔 가정 등은 새로 가정을 이루고 공동의 아이를 낳고 각각 데리고 들어온 아이들의 차이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가장 보편적인 경우는 어머니가 이전의 결혼, 동거, 독거 상태에서 낳은 아이를 데리고 다른 파트너와 살면서 공동의 자녀를 두는 경우가 47,207건 수로 가장 많았는데 그 이유는 스웨덴에서 부부가 함께 살다가 헤어질 경우

자녀 양육권이 대개 어머니에게 주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2) 경제상황변화와 이혼율

가정의 변화에 있어서 이혼과 같은 가정의 위기가 경제적 경기상태와 관계가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최근 스웨덴의 경제상황변화에 따른 이혼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IV-4>는 사회경제적 상황이 이혼률에 미치는 영향을 말해주고 있다.

<표 IV-4> 이혼건수의 변화 (1960-2005)

2005	21,673	■ 병가의 증가, 높은 청소년 실업률	1990	19,357	— 1차 유가파동 이후 급격한 경기침체, 고용불안, 물가인상
2004	21,907		1989	18,862	
2003	19,357		1988	17,746	
2002	18,862		1987	18,426	
2001	18,862		1986	19,107	
2000	17,746		1985	19,763	
1999	18,426		1984	20,377	
1998	19,107		1983	20,618	
1997	19,763		1982	20,766	
1996	20,377		1981	20,198	
1995	22,528	} 외환위기와 대량실업률	1980	19,887	
1994	22,237		1975	25,383	
1993	21,673		1970	12,943	
1992	21,907		1960	9,563	
1991	20,149				

자료 : SCB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2005. Befolkningsstatistik i sammandrag 1960-2005 (Population statistics). Stockholm.

복지제도의 구축과 경제성장기인 1960년대에는 비교적 낮은 이혼율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통적 스웨덴 사회가 잘 지탱되어올 수 있었다. 그러나 1960년 이후 스웨덴에서 이혼율이 높아지는 시기가 생겨났는데 이는 경

제적 상황과 매우 밀접한 영향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예를들면 1981-1984년 기간 중에 20,000회 이상의 이혼횟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1979년 2차 오일파동으로 인한 경기의 급강하 현상과 물가인상, 그리고 고용불안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1975년과, 1991~1995, 2004~2005년 기간 동안의 공통적 특징은 경제의 침체와 높은 물가, 그리고 집값의 상승과 고용불안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매우 높았다는 점이다. 1975년에는 1973년의 유가파동으로 경제침체와 물가인상, 고용시장의 불안 등을 경험했으며, 1990년대 초에는 외환 유동성 위기를 거치면서 촉발된 경제불안정과 집값의 폭락, 고용불안정과 실업자의 양산 등으로 최고의 경제위기를 맞았다. 최근 2년 동안 스웨덴의 경제는 물가안정은 이루었으나, 고용불안의 요소가 그대로 상존하고, 특히 청소년 실업자율이 20%에 이르는 등 사회불안의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공통적으로 경제적 불안과 가정경제의 파탄이 가정의 해체와 이혼율의 증가를 일으킨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핵가족화

스웨덴의 가족구성에 있어서 또 하나의 특징은 핵가족화가 이미 일찍부터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농민이 자영농으로서 경제적 독립권을 가지고 있었다. 어렸을 때 자립심을 키워주는 전통에 따라 글을 쓰고,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집을 떠나 혼자 자수성가하는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스웨덴에서 2대 이상의 가정을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다.

이와 같은 특징은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은 거의 터부시 되어왔다. 이와 함께 독신자로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혼자서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와 함께 지속적으로 살지는 않지만 파트너와 서로 오가며 사는 독신자도 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파트너와 함께 동거가정을 이루고 함께 삶의 공간을 공유하는 가정도 늘고 있다. 따라서 <표 IV-5>와 같이 스웨덴의 가족구성은 매우 다양하며 그만큼 다양한 삶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 그에 따라 주택정책도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

다.³²⁾

<표 IV-5> 스웨덴 가족의 주택형태

연령	단독주택 혹은 소규모 주택			중대형 단체주택		사람 수
	임대주택	조합소유 개인아파트	단독주택	임대주택	조합소유 개인아파트	
0~17	10	4	54	24	7	1,938
18~29	8	2	23	48	16	1,298
30~49	8	3	46	28	13	2,439
50~64	5	2	59	21	12	1,702
65~74	6	2	51	22	17	746
75~89	9	1	27	35	22	732
전체 18~89	7	2	43	30	14	6,917

자료 : DS 2005:39, p.33.

스웨덴 성인의 거주 주택의 형태는 30세 이후 경제적 자립 및 안정이 높아지면서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형태가 늘어나다가, 75세 이상이 되면 다시 양로원,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연령이 적은 0~17세 사이의 아동 및 청소년들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형태가 제일 높고, 18~29세 사이의 젊은 층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내고 살아가는 형태가 56%로 가장 보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족구성 형태를 단독으로 가정을 구성하는 독거가정과 동거든 결혼이든 간에 어떤 형식으로든 함께 사는 동거 및 결혼가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구분 속에서 자녀를 둔 경우와 두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32) 예를 들어 신규 주택을 건설할 때, 독신자 아파트,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아파트, 자녀가 있는 부부를 위한 가족 아파트, 양로원 아파트 건설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위해 대비하고 있다. 스웨덴의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DS 2005:39를 참조.

<표 IV-6> 성인 (18~89세)들의 가족구성

가족구성 형태	성인 (1000명)	비율
독거가정 (자녀 無)	1,915	28
동거/결혼가정 (자녀 無)	2,305	33
독거가정 (자녀 有*)	209	3
동거/결혼가정 (자녀 有*)	1,452	21
기타	1,035	15

주 : 자녀를 가진 가정은 1-17세까지의 자녀 연령을 포함한다.

자료 : DS 2005:39.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독거가정의 형태로 사는 비가족의 비율은 31%에 이르고 54%가 동거 혹은 결혼가정을 유지하며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거나 결혼 등을 통해 부모가 함께 아이를 기르는 경우가 21%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스웨덴에서 가족을 구성하는 가구수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다음 <표 IV-7>은 스웨덴의 가구수와 평균 가족수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IV-7> 가구수와 평균 가족수의 변화 (1960~2005)

	2000	1996	1990	1985	1980	1975	1970	1960
총인구수	8,882,792	8,844,499	8,590,630	8,208,442	8,317,937	8,208,442	8,081,229	7,497,967
총 가구수	4,363,284	4,290,547	3,830,037	3,670,340	3,497,801	3,324,956	3,050,354	2,582,151
평균 가족수	2.01	2.06	2.14	2.23	2.32	2.41	2.59	2.84

자료 : SCB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2005. Befolkningsstatistik i sammandrag 1960-2005 (Population statistics). Stockholm.

1960년대에는 250여 가구였지만 꾸준히 늘어 1970년에 3백만 가구, 1996년에는 4백만을 넘었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가족 당 평균 가족 수도 1960년의 2.84명에서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최근 2000년에는 간신히 2명을 넘기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가족의 구성인원수는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미 위의 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스웨덴 가임 여성의 출산율은 1960년에 2.13%까지 이르렀으나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 심화되면서 최근 1.77%까지 낮아졌다. 한 가지 긍정적인 현상이라면 최근 들어 10년 사이에 출산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출산휴가, 출산 후 유급 산후조리 및 육아를 위한 부모수당을 도입, 자녀병간호를 위한 유급휴가 등 지속적인 보장 등 국가의 적극적인 가족정책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위의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구당 가족수가 계속 줄고 있는 것은 독신자 가정이 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즉 혼자 사는 사람이 늘면서 통계상 단독 가정의 수는 늘고 있지만 가구당 수는 감소하고 있다. 요즘 청소년,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파트너를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독신형태의 삶을 선호하고 있다. 동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파트너를 만나서 성은 즐기되 예측되지 않기 위해 각자의 독거적 삶의 형태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현재 스웨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통적 가족의 해체와 복잡한 가족구조는 곧 스웨덴 청소년들의 가족내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단절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어머니 혼자 아이를 기르거나, 혹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 어머니, 아버지를 1주일씩 번갈아 가며 생활하게 됨으로 인해서 정서적 불안과 부모의 경제적 불안정 혹은 새 가정에서의 다른 이복형제들과의 관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다소 역기능적인 사회화가 이루어 질 수도 있다. 청소년들의 불안정한 정서는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적지 않은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가정교육을 통한 사회화 진행상의 크고 작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극단적인 핵가족화의 가속화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성역할

일반적 평등사상과 더불어 양성평등 의식은 스웨덴의 일상생활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사민당이 1932년 선거에서 정권을 잡은 이래 2006년까지 평등과 연대를 가장 중요한 정치적 가치로 설정하여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는 보편적 복지제도를 구축한 결과 스웨덴 사회에서 평등의식이 국민 사이에 폭넓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스웨덴의 최초 초등학교는 스톡홀름에 1836년 설립되었는데 이미 그 때부터 여성에게도 교육권을 주었다는 사실은 눈여겨 볼만하다. 그러나 성차별적 교육이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여학생과 남학생은 같은 학급에서 수업받지 않고 여학생 학급, 남학생 학급으로 나누어 구분했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수업시간이 짧았고, 학업수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낮게 책정되었다. 1927년 스웨덴 최초로 여자 중등학교가 생겨나기 시작했으나 성 차별적 교육은 지속되었고 1962년이 지나서야 학교교육에서 성인지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었다.³³⁾

1962년 제출된 국가보고서에서 초등학교부터 남성, 여성 학급으로 나누어져 있던 제도를 정식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전국적으로 남녀아이를 동일 학급에서 수업하기 시작했다. 1969년 학습계획지침을 통해 남성,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성 인지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1980년 학습계획지침을 통해서도 고등학교 진학지도 및 대학입시 상담, 그리고 직업고등학교 상담 시 충분히 성인지적 선택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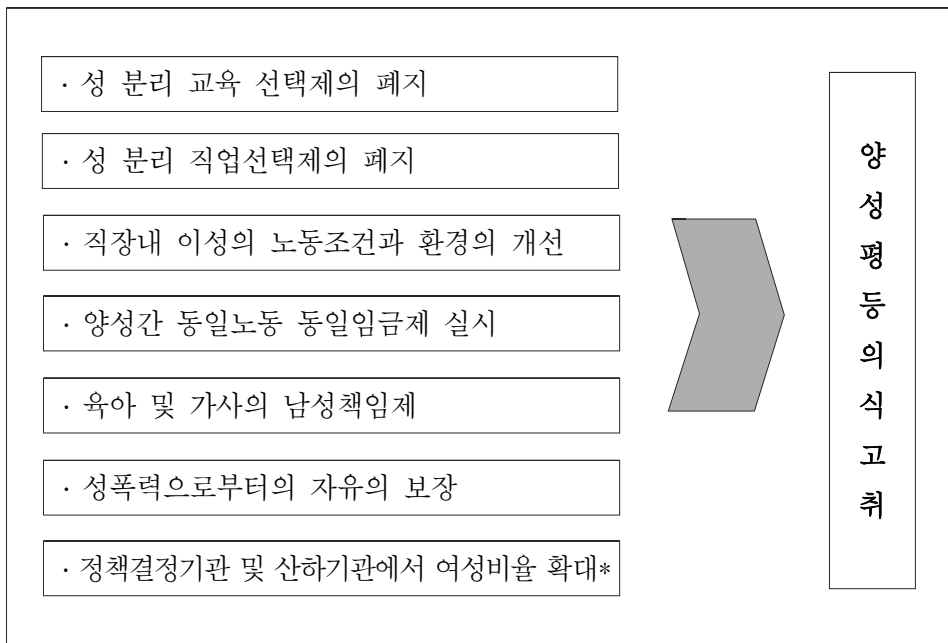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교육분야에서 성 인지 교육이 시작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성 인지교육이 아이들의 인성이 형성되는 탁아소, 유아원 교육부터 실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1994년 학습계획지침부터는 전형적인 성역할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고 각 개인의 관심과 창의력에 맞는 교육을 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

33) The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 1999, p. 240.

34) Lrärfrbundet, 2002, p. 7.

현재 스웨덴 학교법 (Skollagen 1985:1100) 1장 1절에서도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성 인지를 도와야 한다고 규정하고, 학습계획지침 (Lroplan)에 평등적 교수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초중등교육행정국 (Skolverket;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에서 평등학습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각급학교를 감독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1987년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인 Varannan damernas (여성 50% 할당제)에서 사회 전 반면에 걸쳐 양성평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자료 : The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 1999, p. 242.

[그림 IV-1] 양성평등 고취를 위한 정책목표 (Varannan damernas법안, 1987)

이후 여성 비율 50%를 법으로 규정은 하지 않았으나 권고사항으로 각 정당은 여성비율을 획기적으로 올려 후보를 선출함으로써 현재 스웨덴 의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48퍼센트의 여성의원 구성비를 보여 주고 있다. 1994년 정부교서에서도 국가정책 수립과 실행시 성인지와 성 평등에 대한 강조와 함께 정부 산하조직, 각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에 이르기까지 국정지침(Direktiv)을 통해 매년 보고하도록 하고 평가하고 있다.³⁵⁾ 이와 함께 정부구성에 있어서도 1994년 이후 내각의 5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또 한가지 스웨덴의 특징적 요소 중의 하나로 성과 관계하여 남성의 전유물인 폭력에 대한 규제를 일찍부터 시작했다. 다음은 폭력 및 성과 관계된 몇 가지 중요한 법률과 제도이다.

<표 IV-8> 성 혹은 남성폭력성에 대한 규제내용

년도	성 혹은 남성 폭력성에 대한 규제 내용
1864	아내 폭력금지법 (그 이전까지는 가정에서 남편의 폭력은 합법적이었음)
1921	가정부 폭력금지법
1958	학교에서 교사의 체벌금지법
1975	여성 낙태권 인정. 병원에 여성 클리닉 설치.
1979	부모의 자녀 체벌금지법
1979	양성평등법 (Equal Opportunities Act)
1980	양성평등 옴부즈만(Jmstlldhets Ombudsman; JmO, Equal Opportunities Ombudsman) 임명
1982	가정 내 남편의 폭력은 피해자의 신고없이도 구속 가능

폭력에 관계해서 1864년 남편의 아내폭력은 법으로 금지되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었으나 그 이후 남편의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되었다. 자녀들의 체벌금지법은 1979년에 채택되었는데 이로써

35) 양성평등 국가지침(Jmstlldhetsdirektiv)은 매년 정부에서 정부기관 및 각 산하단체에 예산을 배정할 때 국가의 정책목표를 시달하고 매년 연말 지침서에 따른 실행 여부를 보고서로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가정 내에서의 폭력과 차별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1975년에는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임신 및 출산은 여성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되었다. 1980년에는 양성평등 옴부즈만(Jmstlldhets Ombudsman; JmO)을 임명하여 양성평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사회에서 성에 기인한 불평등을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전권을 위임 받았다.

이와 같이 정치주도형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학교교육을 통해서도 신세대 학생들에게 교육되면서 양성평등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양성의 차이는 아직도 폭넓게 존재하고 있다. 그 차이는 예를 들어, 사용하는 언어, 행태, 성취도, 장래직업희망, 대학진학과목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³⁶⁾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진행된 양성교육지침에 따라 진행된 기술, 취미, 문화교육의 영향으로 여학생이 기술, 과학계 고등학교를 지원하거나 남학생이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비율이 그 이전에 비해 상당히 늘었다.³⁷⁾

그러나 아직까지도 남녀학생간의 선호하는 학과 및 진로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 예를 들어 간호학 및 수예 등을 전공하는 학생은 여성이 절대우위인 90% 정도를 점하고 있고, 문화, 예술, 유아 및 아동교육, 음식, 조리, 호텔 등은 아직 여성의 전유물이다. 반면 남성은 전기, 자동차, 에너지, 건설, 산업, 자연과학, 경영 등의 보다 역동적이고 육체적인 노동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³⁸⁾ 이의 지속적 개선과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초등 및 중등교육위원회와 대학교육위원회(Hgskoleverket; National Agency for Higher Education)에서는 교사의 능력제고 및 교육, 초·중등교육기관에서의 양성 교과목 개설,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한 연구투자, 특히 기술 및 자연과학 교과목의 재구성 및 여교사배치 등의 다양한 방안을 내 놓고 있다.³⁹⁾

그러나 스웨덴 교육제도에서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초·중등 및 고등학교

36) The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 1999, p. 246.

37) Ungdomsstyrelsen, 1996.

38) The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 1999, p. 247.

39) Op.cit., p. 248.

교사의 성불균형 현상이다. 현재 초·중등학교의 경우 75%, 고등학교에서는 48%, 그리고 대학에서는 37%만 여성이다. 이 같은 연유로 해서 이미 초·중등학교 시절 학생들이 여자 교사에게만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잘못된 성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즉 전문지식과 직업난이도가 높을수록 남성이 지배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교육기관에서의 성 균형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도 아직 폭넓게 존재하고 있다. 1997년의 경우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의 83% 정도로 주로 여성이 임금이 낮은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 많은 비율이 비정규직에서 일을 하고 있다. 남성의 60%가 정규직인 반면 여성의 경우 40%를 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출산 후 부모육아보험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무려 9배나 많은 90%가 육아보험금을 타고 있다. 즉 출산 후 최고 1년까지 할 수 있는 유급휴가를 본래 취지에 따라 6개월씩 남성, 여성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90%를 모두 활용하고 있는 것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남성의 수입을 유지하여 가계수입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정 내에서의 가사분담에 있어서도 성불균형의 양상은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보다 개선되기는 했어도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가사에 할애하고 있다. 또한 딸이 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청소, 세탁, 설거지 등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⁴⁰⁾

여가 활용에 있어서도 남녀성의 차이는 확연히 구분된다. 1995년 국가에서 임명한 여가활용 연구위원회 (Research and Investigation Committee for Leisure Activities)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 배정한 예산이 주로 체육시설 및 체육활동에 치우치고 문화시설 및 문화활동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하면서 체육 등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남자에게 훨씬 유리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⁴¹⁾ 또한 여성의 보다 활발한 체육 활동에의 참여와 남성의 보다 폭넓은 문화정책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40) The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 1999, p. 253.

41) SOU 1996:3.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의 변화를 위해서는 양성평등성의 일상화, 여성의 권력기관의 지속적 진출, 일반적 사회의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을 통한 변화, 정책으로의 지속적 계도, 직장에서의 성차별 개선, 여성의 적극적 참여유도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42)

4.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양육방식

1) 부모자녀 관계와 생활의 변화

1900년대 초까지 스웨덴의 일반적 가정은 주로 3~4명의 자녀를 둔 부부가 이끄는 대가족의 형태였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고 경작을 통한 생산활동에 대가족이 가장 적합한 형태였다. 주위에는 일가친척들이 가까운 이웃으로 살고 있었으므로 자녀의 인성형성에 부모뿐만이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가까운 친척 등도 적잖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는 늦게까지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대가족의 경우 큰 딸이 동생들을 돌보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⁴³⁾ 이때는 스웨덴 가족은 예외 없이 기독교 집안이었고 기독교는 스웨덴 가족 일상생활의 일부이자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와 세상을 보는 시각을 제공해 주었다.

이후 3세대가 지난 지금 스웨덴 사회는 엄청나게 변했다.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국교가 아니고 교회에서 최소한 1달에 한 번씩 예배를 보는 국민은 겨우 8%에 불과하다⁴⁴⁾는 보고가 있다. 가족당 평균 구성 인원수는 2명 밖에

42) The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 1999, p. 254.

43) Henschen, 1987.

44) 2003년 CIA Factbook을 보면 루터개신교 (Lutheran)를 믿는 사람은 87퍼센트라고 나와 있으나 이것은 스웨덴의 사회를 이해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스웨덴은 교회와 국가가 일체였던 정교일치주의를 2000년에 포기하기 전까지 태어나는 국민은 누구나 교회에 등록이 되었다. 200년 이후에는 세례를 받는 아이만 교회적에 오르게 되지만 지금까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직 스웨덴의 국교였던 루터교의 교적에는 그대로 남아있다. 따라서 구세대가 신세대와 완전히 교체되면 잘못된 통계도 다시 바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인의 수를 알아보기 위해 최소한 예

되지 않으며, 독거형태가 주요한 삶의 방법이 되고 있고, 결혼보다는 동거형태가 더 보편적인 가정을 이룬다. 이혼은 이제 더 이상 부정적 삶의 형태가 아니고 오히려 자유로운 삶의 방편으로 인식되어 두 커플 중 하나는 이혼을 경험한다. 스웨덴 사람의 19%는 외모, 언어, 문화에 있어서 이질적인 외국인 출신이다. 이들의 종교는 다양하지만 외국인 이민자 중 회교도가 가장 세력이 크다. 따라서 이제는 스웨덴 부모의 육아방식과 가정교육의 방법은 스웨덴의 기독교적인 전통양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 계급적 인식, 환경적 요인, 그리고 사회경제적 환경 변수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1958년 학교에서 교사의 체벌을 금지하고 1979년에는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시켰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과 사회화의 과정은 설득, 대화, Role Model 등의 자발적 모방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1993년에는 아동 옴즈즈만 (Barn Ombudsman; Ombudsman for Children)을 임명하여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스웨덴 아동의 90퍼센트는 집에서보다 탁아소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서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가정에서보다 탁아소에서 인성형성과 도덕심, 그리고 좋고 그름에 대한 판단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⁴⁵⁾ 스웨덴 아이들이 듣고 배우는 동요, 동화, 민속 멜로디 등은 주로 탁아소, 유아원 등에서 배운 것들이다.⁴⁶⁾

2) 양육방식의 변화

스웨덴 아동 및 학생들의 양육방식의 차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교육, 직업, 임금수준 등과 같은 사회경제변수와 사회적 수준의 차이, 결혼, 이혼, 재혼, 독거 상황에 따른 차이, 대도시, 중소도시, 시골 등과 같은 도시환경의 차이, 아파트, 주택 등과 같은 주택형태의 차이, 종교적 문화적 차이 등을 들 수 있다.⁴⁷⁾

배를 위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의 비율을 보면 2002년 선거연구에서 고작 8%만이 이 그룹에 속한다. 자세한 것은 Holmberg and Oscarsson, 2002를 참조.

45) Juul, 2005, p. 6.

46) Henschen, 1987.

그러나 양육방식의 차이에 있어 스웨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회경제적 변수와 사회적 지위 및 수준(혹은 계급), 그리고 문화적 차이라 할 수 있다.⁴⁷⁾ 스웨덴 사회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음의 4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노동자 방식이다. 이 방식은 주로 사회적으로 노동자 계급, 혹은 낮은 교육을 받고 육체노동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봉급수준은 낮은 편인 노동자 계급의 양육방식이다. 이런 가정에서는 아이를 낳고 기를 때 엄마의 역할이 크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아이를 기를 때 주로 탁아소를 이용하고 부부파티에 참석하거나 아이들이 아플 때, (외)할머니/(외)할아버지 혹은 다른 가족 등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젊었을 때는 여성이 함께 일을 하므로 가사를 반반씩 분담하는 경우가 많으나 나이가 들수록 음식, 가사 등은 주로 아내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방과후 프로그램에 자녀를 참가시킬 때 남녀의 구분이 명확해서 남자아이는 활동적인 축구, 아이스하키, 격투 스포츠 등을 시키고 여자아이는 정적인 피아노, 바이올린 등의 악기를 주로 다루게 한다. 아들은 대개 집단 스포츠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단체활동을 통하여 배움을 익히도록 한다. 자녀에게 운전을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가 주로 하고, 아들의 스포츠 활동에 직접 서포터즈 혹은 응원 등으로 참가하기도 한다.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자립심을 심어주기도 하며, 저축과 절약에 대한 근검정신을 가르친다.

둘째, 스웨덴 사회에 새로 유입된 이민자들의 양육방식이다. 이 방식은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적 성공을 위한 교육을 강조한다. 스웨덴 주류사회에 대한 반감과 무력감으로 이들 이민자 부모들은 자녀들의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스웨덴 사회에서 적응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격려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스웨덴과 고유의 문화의 차이로 인해 이중적 인격, 정서를 심어 줄 수도 있어 아이들의 반감과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종교와 문화를 강조하고, 민족적 뿌리에 대한 교육과 예절을 전수하기도 한다. 가족의 가치를 중요한

47) Brembeck, 1997, p.7.

48) op.cit, p.33.

요소로 보지만 스웨덴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치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칫 정서적 이탈이 일어날 수도 있다.

셋째, 중하층의 방식으로 주로 대학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을 하면서 신중산층을 구성한 계층의 양육방식이다. 주로 사무직이나, 세일즈, 혹은 개인 사업을 영위하기도 한다. 이들은 새로운 지식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신문화의 접촉과 여행 등 문화자본의 형성에 매우 긍정적이다. 자녀에게는 특별한 계급적 의식이나 편견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사회의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을 교육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자식과의 관계에서 가부장적인 요소보다는 자유로운 가운데 친구처럼 편한 상대로 대해주는 경향이 있다. 학교공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성적이 성공의 열쇠라고 믿지는 않는다. 단 창의성과 능력은 성공의 주요요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균형적 시각을 갖도록 강조하고 있다. 주로 전통과 인습에 따라 교육하기 보다는 주관과 세계적인 이슈를 중시하고 새로운 사상과 삶의 방식도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마지막으로 중상층 혹은 엘리트방식이다. 주로 사회의 기존질서를 유지하는 전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가족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 존재한다. 결혼 전에 가정 경제와 출산 계획 등을 꼼꼼히 준비하며, 역할 분담에 대한 대략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 아이는 탁아소보다는 개인적으로 보모를 쓰거나, 본인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크다. 수입에 따라 남성, 여성의 역할을 구분하여, 남성의 수입이 많을 때는 과감히 여성이 직장을 포기하고 남성의 수입에 의존한다. 아이를 키울 때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사회의 엘리트의 필요성, 경쟁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에도 관심이 있다. 자녀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다양한 여행을 경험하여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준다. 또한 고독을 맛볼 수 있도록 개인 스포츠나 악기 등을 다루게 해준다. 그러나 부모 모두 직장생활을 할 때 부모와의 소통의 단절 혹은 부재로 인해 쾌락적, 즉흥적, 퇴폐적 양식의 가치를 가지는 자녀를 배출하는 경향도 강하다.

양육법의 네 가지 구분법은 일반적 경향이지만, 개인적 편차가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문화적 결정론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양육방

식은 존재하지 않고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느 한 곳에도 속하지 않거나, 위의 몇 가지 경우를 조합한 형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위의 구분 방식은 스웨덴에서 일반적인 특성으로 사용될 수 있다. 물론 특수한 가족형태인 이혼, 재혼, 독거 등 형태의 가족상황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나 부모 한 사람 중 지배적 역할을 하는 사람의 역할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의 양육방식 구분은 부모의 기대와 자녀와의 소통방식 등에 상당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웨덴에서 유효하게 활용된다.

<표 IV-9> 사회계급에 따른 양육방식의 특징

방식의 구분	특징
노동자 방식	• 육아는 아내의 역할이 크다는 일반적 인식 • 탁아소를 주로 이용하고 그 이외 (외)할머니/(외)할아버지, 다른 가족 등의 도움을 받음 • 나이가 적을수록 가사분담은 반반씩 - 나이가 들수록 아내의 역할이 커짐 •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시 남녀의 차이가 명확함 (남자: 축구, 아이스하키, 격투; 여자 : 피아노, 바이올린) • 집단 스포츠에 참여 • 아버지가 아들의 스포츠 활동에 참가 (서포터, 응원, 운전) • 학생 아르바이트를 적극적으로 권장 (신문배달, 광고전단) • 주급 혹은 월급지급, 저축·절약에 대한 교육 • 자립심을 키워줌
이질적 방식	• 사회의 소외감 증대 주류사회에 대한 반감 • 종교, 문화에 따른 다양한 양육방식의 존재 • 문화의 역할 강조 가족과의 상호의존성 강조 • 사회적 성공을 공부와 경제적 부로 환산함 • 가부장적 요소가 많이 남아있음 이 같은 요소로 종종 갈등관계를 야기할 수 있음
신 중산층 방식 (무정형의 방식)	• 즉흥적, 무 방향적 계획 • 특별한 계급의식 없으나 노동자나 엘리트층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 자녀와 부모는 친구와 같이 편한 관계 • 식탁에서의 예절 중요하지 않음 • 학교 공부에 대한 중요성 인정. 그러나 좋은 성적은 요구하지 않음 • 사회-개인의 균형 • 자녀의 개인능력이 제일 중요한 재산이라는 신념
중상층 방식	• 계획적 출산 •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계획적 배분 • 탁아소보다는 개인 보모 혹은 사적 네트워크 활용 • 남성이 수입이 많을 때 부인이 가정에서 가사 그 반대인 경우 남편이 가사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거나 가정부를 둠 • 육아의 책임은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강함 그러나 엄마도 함께 일을 할 경우 육아가 유모, 보모 등 타인의 손에서 양육될 때도 많음 • 경쟁과 사회엘리트에 대한 교육 강조 • 개인 결정에 대한 중요성, 책임성 강조 • 다양한 운동, 악기, 여행 등을 경험 • 골프, 테니스, 승마 등의 개인운동 • 아버지와 소통의 단절성이 있을 개연성이 높음

3)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

2006년 한국청소년개발원의 가족내 사회화 과정 국제비교 조사에서는 스웨덴 청소년이 인지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부정적 양육행동을 조사하였다.

① 긍정적 양육행동

스웨덴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아래의 5문항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버지와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대화하는 편이다’라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아버지가 긍정적인 양육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0> 스웨덴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

긍정적 양육행동의 예	비율(%)
아버지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77.0
아버지는 나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73.1
아버지와 무엇이든 허물없이 대화하는 편이다	43.4
나의 능력과 노력을 높게 평가해준다	84.3
남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준다	80.3

자료 :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5개국 조사 (청소년개발원)

같은 항목을 가지고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모든 문항에서 대체적으로 높은 비율로 어머니가 긍정적 양육방식을 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비교해 볼 때, 어머니 쪽이 아버지보다 긍정적인 양육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IV-11> 스웨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

긍정적 양육행동의 예	비율(%)
어머니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88.8
어머니는 나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81.0
어머니와 무엇이든 허물없이 대화하는 편이다	61.4
나의 능력과 노력을 높게 평가해 준다	88.8
남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준다	89.1

자료 :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5개국 조사 (청소년개발원)

아버지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서로 상관성이 높은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 상관분석을 하였다. 아래의 <표 IV-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스웨덴 아버지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적인 것을 가리킨다. 즉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아버지를 둔 자녀는 어머니도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2> 아버지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 상관분석

어머니 \ 아버지	아버지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아버지는 나를 이해하는 편이다
어머니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500**	.271**
어머니는 나를 이해하는 편이다	.294**	.384**

** .p<.01

자료 :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5개국 조사 (청소년개발원)

② 부정적 양육행동

스웨덴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아래의 7문항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나에게 심한 욕설을 자주 한다’에서 12.5%가 그렇다라고 대답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외에 긍정적 양육방식의 비율은 매우 낮아서 스웨덴 아버지가 비교적 부정적인 양육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IV-13> 스웨덴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행동

부정적 양육행동의 예	비율(%)
나에게 심한 욕설을 자주한다	12.5
나를 심하게 때릴 때가 많다	0.8
내가 잘 못 했을 때 체벌을 가한다	1.6
내게 이유없이 화풀이 한다	7.8
나에게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다	4.7
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18.1
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강요한다	9.1

자료 :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5개국 조사 (청소년개발원)

같은 항목을 가지고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모든 문항에서 낮은 비율을 보여 스웨덴 어머니가 부정적 양육방식을 자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비교해 볼 때, 어머니 쪽이 아버지보다 부정적인 양육방식을 덜 사용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표 IV-14> 스웨덴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부정적 양육행동의 예	비율(%)
나에게 심한 욕설을 자주한다	7.0
나를 심하게 때릴 때가 많다	0.8
내가 잘 못 했을 때 체벌을 가한다	1.9
내게 이유없이 화풀이 한다	10.5
나에게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다	5.2
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19.1
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강요한다	6.6

자료 :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5개국 조사 (청소년개발원)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서로 상관성이 높은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다. <표 IV-1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스웨덴 가족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비록 ‘아버지는 내게 이유 없이 화풀이를 한다’와 ‘어머니는 나에게 심한 욕설을 자주 하신다’라는 문항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체적으로 문항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적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즉 자녀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이유없이 화풀이를 하는 아버지를 둔 자녀는 어머니에게서도 긍정적 양육태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V-15>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 상관분석

어머니 \ 아버지	아버지는 내게 심한 욕설을 한다	아버지는 내게 이유없이 화풀이 한다
어머니는 내게 심한 욕설을 한다	.534**	.081
어머니는 내게 이유없이 화풀이 한다	.159**	.461**

** . p<.01

자료 :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5개국 조사 (청소년개발원)

5. 가족과 청소년 정책

후기산업화의 진행,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제도의 성숙과 개인화의 진행, 가정구성요소의 다변화 등을 배경으로 가정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급격히 증가하였고, 전통적 부모의 역할이었던 육아, 보육, 유소년 및 청소년 방과 후 과정을 국가와 지방단체가 책임짐으로써 가정이 복지제도의 틀 속에 편입되고 청소년의 교육과 사회화 과정이 가정과 함께, 학교, 주위환경 등에 영향을 받는 형태로 발전되었다. 결과적으로 유소년, 청소년을 포함한 가정 정책은 급속히 복지제도의 틀 속에 편입되었고, 가족관계 정책예산은 국가 복지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로 부상되었다.⁴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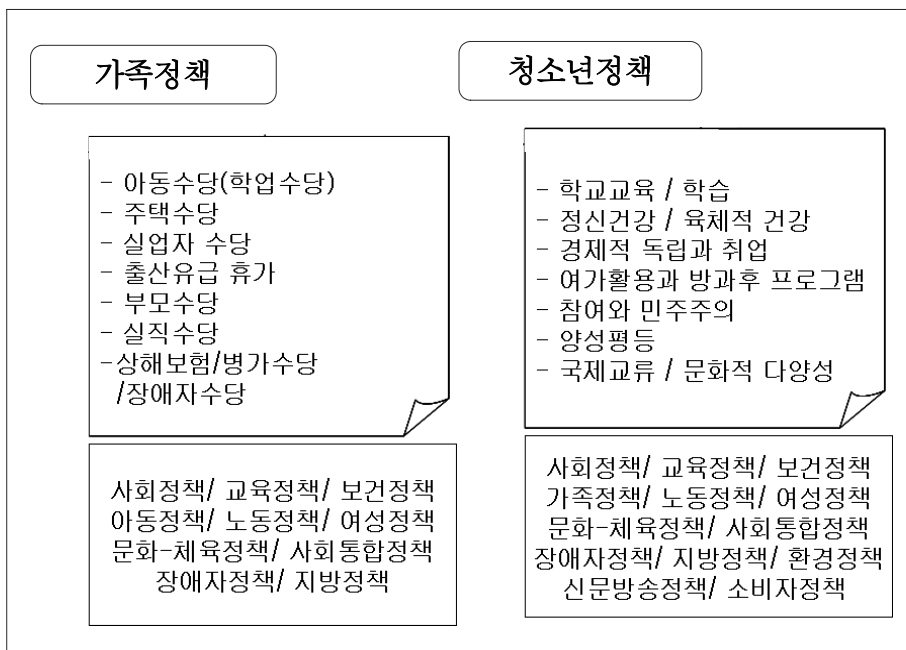
또한 대학원까지 무료로 되어 있는 교육제도로 인해 청소년들의 학교에서의 학습동기와 진학에 대한 기대치는 그만큼 낮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교육비 전액이 무료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 생활을 먼저 시작한 후 언제든지 원할 때 다시 대학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연유로 해서 대학 진학률은 아직 44% 정도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25세에 이르기 전까지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을 50%까지 높이겠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⁵⁰⁾

49) 가족정책과 관계되는 복지제도는 육아지원금, 부모수당, 아동수당, 탁아소운영기금 등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Hinnfors, 1992: 6.

50) Ungdomsstyrelsen, 2005, p.8.

스웨덴의 가족정책 및 청소년 정책은 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서 복지제도의 확대와 함께 발전되어 왔다. 195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시화되면서 파생되는 출산, 육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정책이 보다 세밀화, 전문화 되어 갔고, 자녀가 성장하면서 학교생활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현안들, 즉 청소년 건강, 소외, 자살 등과 같은 청소년과 관계한 이슈들이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 정책적,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과 함께 청소년 정책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청소년과 관련한 사안 중에서 중요한 이슈로서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부모가 퇴근해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건전하고 유익하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즉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여분의 시간이 많음으로 해서 범죄에 쉽게 빠져들 수 있고, 알코올 과다섭취, 마약복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보다 능동적인 청소년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IV-2] 가족정책과 청소년 정책의 범위와 연관정책분야

가족정책과 청소년 정책의 범위는 간단하지 않은데, 국가의 정책분야를 총 망라해야 그 정책범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장애아를 두고 있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장애인정책, 사회정책, 교통정책(장애인 전용 자동차), 지방정책(장애자 서비스의 집행자는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다양한 분야가 연관되어 이루어진다. 또한 청소년 정책분야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 범죄 등의 대안을 제시할 때 학교에서의 대응(교육정책), 결손가정의 해소문제(사회정책 및 가족정책), 방과 후 프로그램의 활성화(지방정치와 체육, 문화정책) 등의 다양한 분야가 망라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정책범위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족정책과 청소년 정책은 상호 보완성을 지니며 사회의 가장 중요한 단위인 가족의 삶의 질과 관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복지제도의 큰 틀 속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는 사회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국가가 복지국가라는 틀 속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즉 복지국가의 역할이 확대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복지국가의 한계란 결국 복지가 확대되면 될수록 전통적 가족의 역할은 더욱 축소되고 그 결과 가족의 해체가 가속화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포페노(David Popenoe)는 미국과 스웨덴을 비교 연구한 그의 저서 「*Disturbing the Nest*」에서 스웨덴 가족의 해체가 결국 잘 발달된 복지제도에 기인한다고 하였다.⁵¹⁾ 즉 국가가 결혼한 가정을 이혼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갖춰줌으로써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부부가 쉽게 헤어지는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탁아시설을 통해 완전히 엄마역할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아이들의 정서는 더욱 메마르고 황폐해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범죄의 증가, 마약, 알코올, 자살 등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는 갈수록 폭력적이며, 비인간적이 되 갈 것이라 본다. 포페노는 그러므로 앞으로 스웨덴 사회는 더욱 빠른 속도로 건강한 가족이 해체될 것이며, 가부장제도의 부활과 복지제도의 축소 없이는 문제의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51) Popenoe, 1988.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다르비쉬푸르(Mehrdad Darvishpour)와 같은 스웨덴 학자는 포페노의 주장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하였다. 즉 스웨덴에서 복지의 확대를 통한 국가역할의 증대가 가족의 해체와 이혼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사회구성원의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이혼이 하나의 삶의 형태이기 때문에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없었다면 사회는 완전히 파산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다시 말해 가족의 해체와 이혼은 사회현상이고 종속변수가 아니라는 주장인 셈이다.⁵²⁾

계란과 닭의 우선순위 논쟁과 같은 양측의 주장은 서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스웨덴은 삶의 질과 가치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여 이혼을 통해 자유롭게 파트너를 바꿀 수 있는 선택적 자유가 중요한 가치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멈출 수는 없다. 따라서 복지를 통해 해체된 가족을 보살피고, 상처를 만져주면서도 가족이 중요한 삶의 가치로 인식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2) Darvishpour, 2004, p.29-38.

V. 사회화 과정에 대한 제안점

1. 가치체계
2. 가족상호작용
3. 공식/비공식 교육체계, 친구관계
4. 부모의 역할

V. 사회화 과정에 대한 제안점

1. 가치체계

사회가 정보지식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가치와 인식의 체계는 함께 변화한다. 청소년의 가치체계는 사회적 변화에 순응 혹은 저항하면서 형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부뿐만이 아니라 체육, 문화 등의 다양한 경험과 접촉을 통해 성장하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에서의 경험을 보면, 가정해체의 진행, 결혼가정의 증가, 마약, 낙태, 음주 등의 탈선도 일어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스웨덴 청소년들이 건전한 발달을 꾀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방과 후 프로그램을 비롯한 사회정책과 비영리단체와 같은 다양한 조직에서의 활동 등이 있어 민주주의적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청소년 단체 활동을 통해 팀워크를 배우고, 어른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경쟁적이고 시장적인 생존경쟁의 방식도 중요하지만 스웨덴의 교육에서 강조하는 조화, 평등, 연대 등의 가치도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양성평등을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에 교육시키고, 이를 통해 균형 잡힌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급격한 사회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스웨덴 청소년교육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의 형태가 너무 다양하여 가치체계의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복지제도의 확대를 통해 급속히 진행된 동거, 이혼, 독거, 재혼 등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스웨덴 정책 입안자들의 앞으로의 숙제라고 할 것이다. 여성의 해방과 함께, 양성평등이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으나, 성혁명을 통하여 자칫 청소년들이 쾌락주의적, 즉흥적, 염세주의적인 가치체계를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 또한 필요할 것이다. 복지제도의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한국의 경우 스웨덴의 사례를 고찰하여 이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2. 가족상호작용

스웨덴 가족은 대체적으로 사회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부모-자녀간 소통체계를 갖고 있다. 노동자 가족에서는 집단주의적 가치를 추구한다. 이민자 가족은 스웨덴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경쟁성을 강조하며, 실패할 경우 사회적 일탈의 발생을 염려하여 엄격한 가부장적 가족 구조를 형성하고 아버지의 역할을 중시한다. 신중산층의 경우 가족간의 다양한 능력을 독창적으로 계발할 수 있도록 자유분방형으로 아이들을 키우는데 주안점을 둔다. 사회의 엘리트 층 혹은 중산층은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고, 세계를 보는 사고를 키워주며,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실력과 식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맞추어 자녀를 사회화 시키고 있다.

부모 유형에 따라 자녀와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관계가 이루어지는데, 노동자 집안에서 아버지는 아들과, 어머니는 딸과 소통이 보다 자유롭기 때문에 동성의 부모들이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이민자 가정은 수직적 소통과정을 거치면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배운 자녀들과 소통이 잘 되지 못할 때가 많으며 이는 갈등관계로 전이되기도 한다. 특징적인 점은 노동자의 집안일수록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자녀사에서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지지만 클수록 부모의 지적인 한계, 관심영역의 차이에 따라 소원해 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민자 가정일수록 부모와 대화의 단절이 올 수 있고, 부모에 대한 반발과 이중문화적 충돌로 인해 갈등의 요소를 내포하는 경향이 있다.

신중산층의 경우 부모는 자녀들에게 관대하며 격의 없이 지내는 관계로

아이들에게 스스로 경험을 통해 세상을 보는 방법을 전수해 주려는 경향이 강하며, 부모 모두 경쟁보다는 독창적 인성개발이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신중산층의 경우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기간 내내 소통이 원활 하게 진행되며 잦은 가족해외여행, 평상시 외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관계를 유지하는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중산층 이상의 엘리트 집안일수록 부모의 바쁜 일과로 인해 부모자녀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자녀소통의 관계가 원활하지만 성장할수록 시간의 부재로 인한 부모와 대화의 단절이 생겨 사춘기 동안 방황이 야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로 인해 유학, 세계여행, 다양한 문화의 체험 등으로 세계를 보는 눈을 갖추게 되고 부모의 역할을 이해하고자 하는 경향도 갖는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와 소통관계가 크게 개선하지는 못하더라도 부모의 활동 세계를 이해하고 전수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부모와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청소년의 인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가족단위로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저렴한 위락시설, 공원, 체육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가족 내에서 부모와의 소통을 통해서 야기되는 인성의 형성도 중요하지만, 스웨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수입과 관계없이 모든 중, 고등학생이 원할 때 언제든지 국외로 나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나 저리의 융자금 등을 통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도 청소년의 세계관 형성, 국제경쟁력의 배양에 매우 유효하리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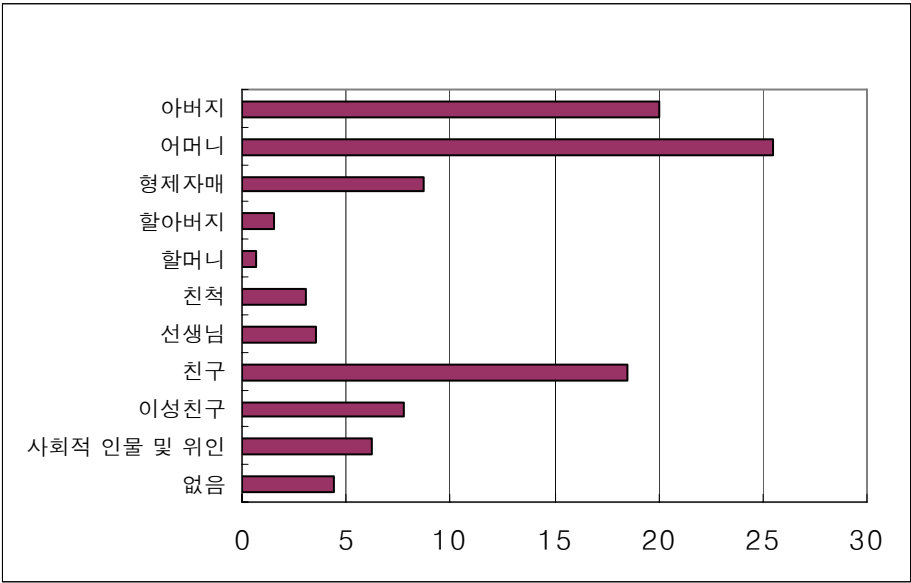
청소년에게 부모는 의미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s)로 삶에 가장 밀착된 역할 모델이다. KIYD(한국 청소년 개발원, 2006)에서는 스웨덴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스스로 느끼는 부모의 관심정도를 각 항목별로 조사하였다. 다음의 <표 V-1>은 그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 V-1>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

	삶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선생님	친구	이성 친구	사회적 인물 위인	없음
빈도(명)	161	205	70	12	6	25	28	149	63	50	35
비율(%)	20.0	25.5	8.7	1.5	0.7	3.1	3.5	18.5	7.8	6.2	4.4

자료 :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5개국 조사 (청소년개발원)

스웨덴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머니(25.0%), 아버지(20.0%)로 부모님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는 친구를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꼽았다. 조사결과, 스웨덴 청소년들에게는 부모가 가장 중요한 역할모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림 V-1]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

한편 위와 동일한 자료인 KIYD(한국 청소년 개발원, 2006)에서는 스웨덴 청소년들이 스스로 느끼는 부모의 관심정도를 각 항목별로 조사하였다.

<표 V-2>는 그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

<표 V-2> 부모님이 나(청소년)에게 가지고 있는 관심 정도

Q.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모 구분	아버지	어머니
공부에 대한 관심	79.2%,	89.1%
친구관계에 대한 관심	69.6%	85.4%
이성 관계에 대한 관심	62.8%	77.4%
여가·취미생활에 대한 관심	75.3%	81.3%
향후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관심	85.9%	89.9%

자료 :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5개국 조사 (청소년개발원)

스웨덴의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들의 관심도를 공부, 친구관계, 이성 관계, 여가·취미 생활, 향후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관심영역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스웨덴의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쪽이 자녀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취미생활에 대해서는 어머니 뿐 만아니라 아버지도 자녀의 여가·취미생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진학에 대해서는 스웨덴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자녀의 진로·진학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부모들이 청소년들의 어떠한 영역에 기대 수준을 갖고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다음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 1·2위 순위에 대한 결과이다. 스웨덴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그리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관심은 기대로 이어진다. 부모의 관심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님의 기대 내용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V-3>과 같다.

<표 V-3>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1·2순위 기대 (복수응답)

	아버지의 기대		어머니의 기대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학업성취	97	10.2	88	9.1
장래직업	107	11.3	68	7.0
사회적 성공	118	12.4	93	9.6
좋은 대학	37	3.9	32	3.3
자립심	94	9.9	96	9.9
인간적 성숙	54	5.7	43	4.5
건강	127	13.4	158	16.4
행복	288	30.3	336	34.8
결혼	29	3.0	51	5.3
전체	951	100.0	965	100.0

자료 :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5개국 조사 (청소년개발원)

스웨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행복과 건강을 1, 2위 순위로 기대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곧 스웨덴 청소년들이 지각하기에 스웨덴 부모들은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며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가 큰 한국의 사례(한국청소년개발원, 2006)와 대조를 이룬다.

3. 공식/비공식 교육체계, 친구관계

학생들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또 다른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 또한 친구관계를 통해 인성을 형성해 간다. 이와 함께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여가를 활용하므로써 청소년들의 성격형성과 단체생활을 통해 민주주의 학습 체험을 하기도 한다.

스웨덴의 교육의 특징은 사민주의가 오랫동안 뿌리를 내린 연유로 해서

국가의 교육지침이 매우 명확한 논조를 띤다. 즉 교육법과 학습지침서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유아원부터 대학까지 협조적 인성을 강조하고, 낙오자 없이 함께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 즉 개인의 독창성과 계발은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주로 학교교육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가르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즉 스웨덴 특유의 평등적 교육의 강조를 통해 서로 돕고 이해하는 사회를 이루어 가자는 인식이 강하다. 이와 같은 결과 국민 일인당 국제원조액이 세계에서 가장 높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친구관계를 통해서도 청소년의 삶은 영향을 받는다. 경제적 풍요로움과 부모와의 의사소통부재는 종종 청소년들이 정상궤도에서 벗어나 범죄와 마약, 알코올중독, 집단성행위 등의 퇴폐적 행위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탈의 과정은 잠시 사춘기, 혹은 사회적 방황기에 한 두 번 해보는 경험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상담원을 배치하여 대화하고, 계도하면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건전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참가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보조금을 통해 모든 가족의 자녀들이 경제적 이유로 인해 불참하는 경우가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축구, 아이스하키 두 종목이 가장 인기가 높고, 그 뒤로 테니스, 수영, 승마, 골프 등의 개인 스포츠도 꾸준히 인기가 높다. 이와 같은 체육활동 뿐만이 아니라, 바이올린, 피아노 등의 악기교습 등도 국가에서 보조금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체육 및 문화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성을 배양하기 위해 국가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 국민의 90% 이상이 체육, 문화, 혹은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하기 있다. 따라서 결국 퍼트남 (Robert Putnam)이 주장하고 있는 문화, 체육, 시민활동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건강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스웨덴에서 그대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 국민의 높은 정치적 관심도, 80%를 상회하는 높은 투표율, 낮은 부패율 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사회학자인 포페노 (David Popenoe)가 주장하는 것처럼 스웨덴의 가족해체가 결국 스웨덴 국가 전체를 해체시킬 것이라는 명제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연유라 하겠다.

4. 부모의 역할

스웨덴은 국가, 사회조직 전체가 기독교적인 전통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최근 2000년에 교회와 국가가 정식으로 결별은 했지만 아직까지 기독교적인 전통은 매우 강하다. 전통적인 기독교적 교리에 따라 부모는 자녀에게 기독교적 가치를 전수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비록 최근 들어 이민자의 증가와 다 문화의 영향으로 기독교적인 교리와 윤리, 그리고 가치체계가 전수되지 못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대다수의 국민이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이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1960년대부터 부모의 역할이 국가로 넘어가게 된 것은 사실이다. 탁아소, 유아원을 설치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국가가 대신 돌보아 주며,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에는 방과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자녀를 사회화시키는 데 개입하고 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국가가 대신해서 학비를 내 주며, 학비까지 제공해 준다. 자식이 직장을 얻지 못하고 청년실업이 되면 부모는 국가를 탓한다. 이 같은 현상은 가족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국가지배현상의 구조적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보이고 있는 현상이 비록 북유럽의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시사점도 있다. 이는 한국의 부모가 너무 자녀 개인의 삶을 좌지우지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부모의 역할과 부담을 어느 정도 국가가 담당하게 하고, 한국적 특징인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관심을 서로 보완하게 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교육제도 전체를 경쟁위주의 틀에서 창의성, 독창성 계발을 위한 토론, 참여, 실습 등을 통한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대학 제도도 경쟁 입시 위주에서 대학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입시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 인식에 있어 사회적 성공은 반드시 명문고, 명문대학을 졸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고등학교를 나와서도 신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

고, 이들도 성공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시민 단체 주도하에 가치관 전이가 일어나야 한다. 임금제도 등의 제도적 개선도 따라야 하지만 정부의 가치관과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무엇이 삶의 중요한 가치이고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모 자신도 자녀의 성공과 입신을 위해 매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부모는 개인 능력과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인성개발과 사랑, 관심으로 자녀를 사회에 배출시킬 수 있도록 밑거름을 주면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스웨덴의 국가의 역할과 사회가치관을 고찰하여 한국에 적용할 때, 자녀 사회화 과정에서 어떤 인재를 키울 것인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VI.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VI. 요약 및 결론

1. 요약

스웨덴의 청소년 정책에 명시된 청소년층의 연령은 13세에서 25세까지를 포함하며 종종 청소년 실업 및 주택정책에서는 29세까지의 20대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13세에서 29세를 포함하기도 한다. 2004년 스웨덴 정부에서 산출한 청소년 인구는 전체 8백9십만의 15.7%를 차지하는 140만명에 이르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이미 50%에 이르는 1950년대부터 스웨덴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시작되었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로 인한 자녀의 보육과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방과후 여가선용을 위한 가족 및 청소년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1930년대 이후 꾸준히 진행된 사민당의 정치적 지배와 이에 따른 복지제도의 구축은 현대의 가족정책의 틀을 갖추게 했다.

2차 대전 이후부터 꾸준히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여성의 보육 및 육아의 전통적 역할이 점차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탁아소로 전이되면서 또 하나의 사회적 변화로 대두한 것이 자녀들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였다. 1960년대까지는 자녀 방과후 어머니가 돌보는 가정이 많았으나, 산업화와 함께 핵가족제도가 정착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여가프로그램을 책임지게 되었다. 즉 1970년대까지 산업화와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체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분이 전통적 가정의 역할을 대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함께 복지제도의 구축으로 자녀수당, 청소년 학업보조금 등의 각종 보조금제도 등은 자녀의 용돈까지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가정 내 부모의 영

향과 역할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부모의 전통적 역할의 감소와 함께 결과적으로 가정 내에서 아이들이 경제적, 재정적으로 부모로부터 간섭을 덜 받게 됨으로써 부모의 자녀장악력이 많이 약화되었다.

복지제도의 확대와 후기산업사회의 진행과 함께 가족 해체현상이 급격히 진행되었다. 최근 들어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으로서 스웨덴가정의 높은 동거율, 이혼율 및 재혼율 (동거관계에 있는 파트너들의 빈번한 교체 등을 포함)은 가족의 구성원을 복잡한 관계로 만들어 결과적으로 동일한 부모를 둔 청소년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반복 재혼한 부부가정의 아이들이 복잡한 형제관계를 형성하는 등 가정 구성에 따른 부모 통제기능의 역할이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현재 스웨덴 가족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소년, 청소년을 포함한 가정정책은 급속히 복지제도의 틀 속에 편입되었고, 가족관계 정책예산은 국가복지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로 부상되었다.

2000년부터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었고, 이에 따른 종교적 세속성 (Secularization)의 진행은 가정 내에서의 기독교적 교리와 전통을 급속히 약화시키면서 자녀들의 양육방식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즉 부모의 탈교회화와 세속화의 진행은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치체계와 가족문화를 전수하는 과정으로 발전되었다. 즉 사회적 변혁기를 거친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은 그 이전의 양태와 비교하여 볼 때 부모에게 덜 의존하고 있으며, 탈기독교적 경향을 띄고 있다. 또한 스웨덴 인구의 거의 20%에 이르는 국민이 이민자로 구성되면서 새로운 가치체계가 상존하는 다양한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자녀가 18세가 되면 부모로부터 분가 혹은 출가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국가는 가족정책, 주택정책, 노동정책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청소년의 사회현상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스웨덴 청소년의 자살, 정신병, 알코올 중독, 마약중독 등의 통계를 통해 스웨덴 젊은이들이 얼마나 복지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자살률, 정신병 발병률, 알코올소비에 따른 중독, 마약의 경험 등은 최근의 조사에서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전반적으로 스웨덴 청소년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은 여성이 남성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청소년의 흡연습관, 문란한 성경험, 성병감염경험, 낙태 등의 경험 등을 보여주는 통계도 스웨덴 청소년들의 육체 및 정신 건강이 얼마나 열악한지 잘 보여준다.

스웨덴 청소년들의 또 하나의 특성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이용, 전자메일, 이동전화 및 문자사용, 인터넷 게임 등의 IT 및 정보지식사회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스웨덴 청소년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컴퓨터는 중요한 정보획득 도구이자, 여가활용의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휴대폰을 통한 문자송신이 친구 사이에 가장 중요한 소통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보사회에서나 발견되고 있는 개인화, 폐쇄화, 즉흥성의 증가, 정서불안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SMS 중독, 그리고 포르노 등과 같은 음란 사이트의 접속을 통한 탈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이 청소년 사회화 과정에서 부정적인 요소들을 형성하고 있다.

국가는 청소년들을 국가의 미래 중추세대로 인식하고 건강한 시민을 양육시키고 사회화시키는 요소로 문화, 체육, 예능활동 등 청소년의 여가활용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민주시민적 가치를 체험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스웨덴 청소년정책에서는 적극적인 복지를 통해 가족해체 현상에서 노정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가족을 보조하고 있다.

2. 결론

스웨덴에서는 전통적으로 핵가족이 일찍 이루어졌다.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던 19세기까지 농민이 자영농으로 경제적 독립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골에서 어렸을 때 자립심을 키워주는 전통에 따라 글을 쓰고,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집을 떠나 혼자 자수성가하도록 자녀를 일찍 독립시켰다. 이 같은 특징은 20세기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은 스웨덴에서는 거의 터부시 되어왔다. 이와 함께 혼자서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예를 들어 독신자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함께 지속적으로 살지 않고 파트너와 오가며 사는 독신자도 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파트너와 함께 동거가정을 이루고 함께 삶의 공간을 공유하는 가정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가족구성은 매우 다양하며 그만큼 다양한 삶의 형태에 충족시켜주기 위한 주택정책도 매우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스웨덴 가족의 변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감수성이 예민한 16~17세의 청소년을 둔 부부사이에서 이혼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25.3%의 가정이 이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혼 4쌍 중에 1쌍은 이혼을 하는 셈인데, 부모의 이혼증가와 함께 가족의 구성이 매우 복잡하게 변화되고 있다. 최근 들어 이혼 후 결혼을 반복한 결과 자녀가 어머니 쪽, 혹은 아버지 쪽인지, 혹은 함께 자녀를 두었더라도 이전의 가정에서 데리고 온 자녀가 있느냐에 따라 어머니의 자녀, 아버지의 자녀, 공동의 자녀 등이 함께 가족을 이루므로 이복형제,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 등이 한 가족을 이루고 사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또한 가구당 가족 수가 계속 줄고 있으며 독신자 가정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요즘 청소년, 그리고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삶의 형태로 파트너를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독신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동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파트너를 만나서 성은 즐기지만 예속되지 않

기 위해 각자의 독거적 삶은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를 띠는 것이 특징이다.

긍정적인 면은 양성평등 의식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마도 사민당이 1932년 선거에서 정권을 잡은 이래 2006년까지 단 세 번만의 선거에서 패배하여 9년을 제외한 74년 동안 65년간을 지배해 오면서 평등과 연대를 가장 중요한 정치적 가치로 설정하여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는 보편적 복지제도를 구축한 결과 스웨덴 사회에서 평등의식이 국민 사이에 폭넓게 자리잡은 결과일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1987년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인 “Varannan damernas” (여성 50% 할당제)에서 사회 전 반면에 걸쳐 양성평등의식을 획기적으로 고취되었다. 이 법안은 스웨덴 사회를 결정적으로 양성평등국가로 만드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중에서도 학교내 성평등교육, 육아 및 가사의 남성책임제, 성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등의 규정은 스웨덴 가정을 더욱 양성 평등적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정치적으로도 여성의원비율이 48퍼센트까지 이르고 내각에서도 반은 여성이 차지하는 등 실질적으로도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누리고 있다.

제도적으로 1958년 학교에서 교사의 체벌을 금지하고 1979년에는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시킴으로써 아동교육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켰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과 사회화의 과정은 설득, 대화, Role Model 등의 자발적 모방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스웨덴 가정의 특징이며,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1993년 이후 설치된 아동 옴부즈만(Barn Ombudsman; Ombudsman for Children)이 특별검사, 혹은 감사역할을 해 결과를 해당 사안별로 각 개인 및 가정에 통보하고 정부에 건의하게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공동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스웨덴 청소년들은 언어구사력에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뛰어나다.

그 것은 국가의 보조금을 통한 교환학생제도의 정착, 대화위주의 언어교육, 가정의 TV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조기언어교육 등 때문이다. 방과 후 프로그램의 국가보조를 통해 악기, 체육활동 등 청소년 들이 방과 후에도 탈선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스웨덴이 축구, 아이스하키, 테니스, 팝가수, 골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선수 및 아티스트가 배출되는 것도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의 덕이다. 또한 심도 있는 청소년 정책, 가족의 해체를 보완하는 가족정책 등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유도하고, 교육 제도, 무조건적인 경쟁보다 창의성을 개발하는 학교교육, 입시지옥에서 해방시킨 내신제 중심의 평가, 기술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 평등 의식 등으로 매우 경쟁력 있는 청소년을 양산해 낸다는 것이 특징이다.

스웨덴에서는 복지제도의 발달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해체된 가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사회적 치료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체계적인 청소년정책은 한 국가의 미래에 중요한 열쇠이다. 어느 나라든 경쟁력있고, 건강한 청소년을 교육시키고 양육시키는 것이 한 국가의 미래를 예견하는 척도가 된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 가족의 해체, 노령사회의 진행 등이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은 필수적이다. 청소년의 긍정적, 창조적 사회화과정을 통해 가정 내, 학교, 그리고 방과 후 활동 등 사회적 기능이 활성화되고 유기적으로 상호 협조하는 모습을 가진 스웨덴의 모델은 한국의 청소년 정책과 가족정책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곽효문(2001). 영국과 스웨덴의 복지국가 이념비교. 사회복지정책. 제12집. pp187-221.
- 김영호(2000). 청소년의 건강행동과 심리적 변인.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14호, pp145-153.
- 변광수 외(1993). 복지의 나라 스웨덴.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손혜경(2006). 스웨덴 노동시장 전망. 국제노동브리프.
- 윤은정 외(2005). 청소년의 생활양식유형과 정신건강 및 학교 적응간의 관계. 청소년 복지연구. 제7권 제2호. pp105-120.
- 정광호(2002). 선진국의 교육개혁 효과: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을 중심으로. 행 정논총, 제40권 3호. pp123-146.
- 조선일보(2006). 세계는 교육혁명중-스웨덴편. 2006/01/31일자 기사.
-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개발원(2006).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Bjornberg, Ulla & Jurgen Sass(Eds.), (1997) *Families with small children in Eastern and Western Europe*. Aldershot: Ashgate.
- Boethius, C. G. (ed.) (1993). *Varfr har det blivit s svrt att hlla ihop (Why has it been so hard to stick together)*. Stockholm: Prisma.
- Brembeck, Helene (1997). *Efter Spock uppfostran idag (The way of upbringing)*. Idrottens Grafiska AB.
- Dagens nyheter (2006). "Lura oss inte att atudera" <http://www.dn.se/DNet/jsp/polopoly.jsp>
- Darvishpour, Mehrdad (2004). *Sociologiska texter om familj, etnicitet, feminism och rasism (Sociological texts about family, ethnicity, feminism and racism)*. Centrum fr Vlfrdsforskning. Mlardalens hgskola.
- Demografiska rapporter (2003). Barn och deras familjer 2001 (Children and their families). 2003:1:2. Del 2. Texter och diagram. Stockholm: SCB.
- Demografiska rapporter (2004). Barn och deras familjer 2003 (Children and their families). 2004:3. Stockholm: SCB.
- Ds 2001:57, Barnafdandet i fokus. Frn befolkningspolitik till barnvnlgt samhlle (Giving birth to children. From a politics of population to a children-friendly society). Stockholm: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 Ds 2005:39. Stockhol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Social Structuring.

- Ekstedt, Eskil and Sundin, Elisabeth(eds)(2006). *Den nya arbetsdelningen arbets- och ningslivets organisatoriska omvandling i tid, rum och tal (The new labor restructuring: organisational change in time, space and era)*. Stockholm: Arbetslivsinstitutet.
- Esping-Andersen(1996). *Gosta. Welfare States in Transition. National Adaptations to Global Economies*. London: Sage.
- Henschen, Helena, (ed.)(1987). *Barn i stan frn sekelskiftet till ttital (Child in town from new millinium to 1980s)*. Kristiansatd: Kristianstads boktryckeri.
- Hinnfors, Jonas(1992). *Familjepolitik. Samhllsfrndringar och partistrateriger 1960-1990. (Family Policy. Social change and party strategy in 1960-1990)*. Gteborg. Gteborg University.
- Holmberg, Sren, and Oscarsson, Henrik(2002). *Svenskt vljarbeteende (Swedish electoral voting)*. Gteborg: Gteborg University.
- Jablonska, Beata(2006). *Ungdomars psykosociala frhllanden (Psychosocial Relationship of the Youth)*. Centrum fr folkhlsa (Center for Civil Health), Avdelningen fr folkhlsoarbete. Stockholm.
- Juul, Jesper(2005). *Livet i familjen om det viktiga samspelet (Life in family abou the important interplay)*. Stockholm: Fakta.
- Kommitte direktiv 2006:66. Stockholm.
- Lrarfrbundet (Teachers' Association)(2002). *Jmstlld skola strategier och metoder (School for equality strategies and methods)*. Stockholm.
- Meghir, C. and M Palme(1999), "Assessing the Effect of Schooling on Earnings: Using a Social Experiment", The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Working Paper, 99(10).
- Popenoe, David(1988). *Disturbing the Nest. Family Change and Decline in Modern Societies*. New York: Aldine de Gruyter.
- Proposition(2004). *Makt att bestmma rtt till vlfrd. (Power to decide: Right for welfare)*. Stockholm, Elanders.
- SCB(2003). *Barn och deras familjer 2002(Children and thier families)*, Demografiska rapporter 2003:7. Stockholm.
- SCB(National Bureau of Statistics)(2005). *Befolkningsstatistik efter kn och lder 2005 (Population Statistics by gender and age in 2005)*. Stockholm.
- SCB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2005). *Befolkningsstatistik i sammandrag 1960-2005 (Population statistics)*. Stockholm.

- SIKA, 2004. Fakta om informations- och kommunikationsteknik i Sverige 2004 (Fact abou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ique). Statens institut fr kommunikationsanalys (National Institute for Communication Analysis). Stockholm.
- Sorrentino, Constance, 1990, 'The changing family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Monthly Labor Review, March 1990. 41-58.
- SOU 1994:73. Ungdomars vlfrd och vrderingar. Rapport till Barn-och Ungdomsdelegationen och Generationsutredningen (Welfare and values of the youth. Report submitted to delegation of child and youth). Stockholm: Fritzes.
- SOU 1996:3. Fritid i frndring (Leisure in change). Stockholm: Fritzes.
- SOU 2000:1, En uthllig demokrati (A sustainable democracy). Demokratiutredningens slutbetnkande. Stockholm: Fritzes.
- SOU 2000:37, Vlfrdens frutsttningar. Arbetsmarknad, demografi och segregation (Welfare at the crossroads. Development during the 1900s). Stockholm: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 Strandbrink, Peter and Victor Pestoff(2006). *Small-scale Welfare on a Large Scale: Social cohesion and the politics of Swedish childcare*. Stockholm: Sodertorns hogskola.
- The National Board of Youth Affairs(1999). *Review of national youth policy*. Stockholm.
- The National Insurance(2006). FK4058_a_Fa. Stockholm.
- Ungdomsstyrelsen(The Swedish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1996). *Krokig vg till vuxen (Crooked way to the adult)*. Stockholm.
- Ungdomsstyrelsen(The Swedish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1998). *Ny tid - Nya tankar? Ungdomars vrderingar och framtidstro (New era new thinking. Value system of the youth and their future belief)*. Stockholm.
- Ungdomsstyrelsen (The Swedish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2003). *De kallar oss unga (They call us young)*. Stockholm.
- Ungdomsstyrelsen (The Swedish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 2005:1. Arenor fr alla (Arena for all). Stockholm.
- Ungdomsstyrelsen (The Swedish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 2005:9. Unga och Freningsidrotten (Youth and Sports Associations). Stockholm.
- Ungdomsstyrelsen (The Swedish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 2005:10. Fokus 05 (Focus 2005). Stockholm.
- Ungdomsstyrelsen (The Swedish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 2006:3. En Beskrivning av Ungomars Villkor (A Description of Life Conditions of the

Youth), Stockholm.

Westholm, Anders(1991). *The Political Heritage: Testing theories of family socialization and generational change*. Uppsala: Uppsala University.

<http://www8.cao.go.jp/youth/english/worldyouth7-e/html/mokuji-e.html>

부 록

1. 조사개요
2. 단순집계표
3. 질문지

1. 조사개요

스웨덴의 자료는 다단계 유층별 군집표집 (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 방법으로 스웨덴을 290개의 콤문으로 구분한 뒤 남성과 여성 군집으로부터 인구비례로 16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 1500명을 추출했다. 그 중 이사 5건, 사망 1건, 입원 등의 개인적 이유로 답할 수 없는 6건 등 총 12건이 제외되었다.

설문은 우편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3차에 걸친 발송으로 이루어졌다. 1차 발송에서는 협조문과 설문지를 발송했고, 2차 발송에서는 협조문만을 다시 발송해서 설문의 중요성과 협조에 대한 당부를 상기시켰고, 3차발송 시에는 다시 협조문과 설문지를 발송했다. 1차 발송과 2차 발송, 그리고 2차 발송과 3차 발송 사이에는 2주의 시차를 주었다.

설문기간은 4월 28일 1차발송, 5월 12일 2차발송, 5월 26일 3차 발송 등 4월 28일부터 시작하여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도 꾸준히 도착하여 8월 15일에 마감할 때까지 총 528명으로부터 설문이 회수되었다. 8월 15일까지 설문지를 보내준 참가자 528명에게 약속한 TIA LOTT을 발송했다.

3차에 걸친 발송과 이에 따른 응답률은 다음과 같다

- 1차 발송: 425개 설문 회수
- 2차 발송: 43개 설문 회수
- 3차 발송: 60개 설문 회수

전체 회수율은 12명의 system missing을 제외한 1,488명 중 528명의 비율인 36%이다.

2. 단순집계표

<문 6> 당신의 부모님은 다음의 기사노동에 각각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어머니가 전부 한다	어머니가 주로 한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버지가 주로 한다	아버지가 전부 한다	부모님 이외의 다른 사람	무응답
1) 식사준비	27.2	25.5	31.3	6.8	2.5	4.1	2.5
2) 설거지	19.5	19.8	43.0	4.1	4.1	6.0	2.9
3) 청소	25.9	27.4	31.1	2.9	2.1	8.0	2.5
4) 세탁	46.3	23.3	18.9	2.3	2.7	3.7	2.7

<문 7> 당신의 부모님께서서는 서로 의견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서로의 입장을 듣고 냉정히 이야기 한다	4.9	14.4	43.4	29.8	7.6
서로 감정적으로 대한다	14.4	34.8	30.2	5.6	15.0
서로 말하지 않는다	54.3	23.7	7.0	3.7	11.3
어머니가 아버지 의견에 따른다	22.2	32.5	29.8	3.3	12.3
아버지가 어머니 의견에 따른다	18.9	27.6	35.8	5.4	12.3
어느 한 쪽이 상대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49.0	27.0	8.4	3.5	12.1
어느 한 쪽이 폭력을 행사한다	82.1	3.9	1.4	0.8	11.9

<문 8-1> 당신은 아래 사항을 아버지와 얼마나 함께 하십니까?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하지 않는다	가끔씩 한다	자주 한다	무응답
1) 스포츠 등의 야외활동 참여	28.0	27.6	29.6	9.7	5.1
2) 여행	9.9	19.6	38.9	26.3	5.3
3) 음악회/영화/박물관 관람 등	33.1	39.3	18.7	3.7	5.3
4) TV시청	6.4	13.8	37.7	36.4	5.6

<문 8-2> 당신은 아래 사항을 어머니와 얼마나 함께 하십니까?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씩 한다	자주 한다	무응답
1) 스포츠 등의 야외활동 참여	24.9	31.9	25.9	7.4	9.9
2) 여행	6.6	17.9	40.3	26.1	9.1
3) 음악회/영화/박물관 관람 등	23.7	38.3	23.3	4.7	9.9
4) TV시청	4.3	12.6	37.4	36.6	9.1

<문 9-1> 당신의 아버지는 아래의 상황에 대해 당신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혀 관심 없다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무응답
1) 공부	2.7	13.0	45.1	34.0	5.1
2) 친구관계	4.7	20.8	52.3	17.3	4.9
3) 이성관계	8.9	23.3	43.2	19.6	4.9
4) 여가·취미생활	3.7	16.0	50.4	24.9	5.1
5) 진로·진학	2.1	7.2	35.2	49.8	5.6

<문 9-2> 당신의 어머니는 아래의 상황에 대해 당신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혀 관심 없다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무응답
1) 공부	1.6	4.3	41.1	48.1	5.1
2) 친구관계	1.2	8.2	51.4	34.0	5.3
3) 이성관계	4.3	13.0	44.4	33.1	5.3
4) 여가·취미생활	1.6	11.9	49.0	32.3	5.3
5) 진로·진학	1.2	3.5	33.1	56.8	5.4

<문 10> 부모님이 당신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한다면 고르십시오. 양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공부 해라	컴퓨터, 게임 그만 해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	남에게 폐 끼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마라	절약 해라	부지런해라	기타	무응답
24.3	8.4	3.7	1.8	5.4	11.5	11.9	31.5	1.6

<문 11> 부모님이 당신에게 하는 말 중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무엇입니까?

(한다면 고르십시오. 양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공부 해라	컴퓨터, 게임 그만 해라	다른 사람과 비교 하는 말	남에게 폐 끼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마라	절약 해라	부지런해라	기타	무응답
29.2	11.1	23.3	2.1	0.6	7.2	3.3	20.0	3.1

<문 12-1> 다음 문항은 당신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되는 번호에 √표하십시오. (양아버지일 경우 양아버지에 대해 응답 요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9	16.7	62.5	13.4	3.5
2)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4.9	17.3	48.8	25.3	3.7
3) 나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6.0	20.0	54.3	16.5	3.1
4) 나와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11.3	43.2	28.6	13.2	3.7
5) 나와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4.5	25.5	46.3	20.0	3.7
6)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들어준다	7.6	20.2	43.8	24.5	3.9
7)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누구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	6.6	23.3	42.8	24.3	2.9
8)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6.8	27.6	44.4	17.3	3.9
9) 나의 능력이나 노력을 높게 평가해 준다	3.9	11.3	56.8	24.5	3.5
10) 나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준다	3.1	15.8	50.2	26.7	4.3
11) 나에게 심한 욕설을 자주 하신다	41.1	42.8	9.9	2.5	3.7
12) 나를 심하게 때릴 때가 많다	89.1	7.4	0.6	0.2	2.7
13) 내가 잘못했을 때 체벌을 가한다	89.3	6.0	1.4	0.2	3.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4) 내게 이유없이 화풀이를 한다	66.7	22.2	7.0	0.8	3.3
15) 내게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다	76.3	15.6	4.1	0.6	3.5
16) 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62.3	15.8	12.8	5.3	3.9
17) 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강요한다	63.0	24.1	7.4	1.8	3.7
18)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	3.9	11.1	48.4	31.9	4.7
19) 나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자주 한다	23.5	58.0	11.9	2.5	4.1
20) 나는 아버지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1.9	7.2	44.9	42.8	3.1
21) 사춘기 신체변화가 있을 때 아버지와	10.7	26.8	45.1	12.8	4.5
22) 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30.7	41.1	21.2	3.1	3.9
23) 아버지는 집안의 모든 일을 나에게 알리고 상의한다	7.4	44.4	37.0	7.0	4.3
24) 성적문제에 대해서 아버지와 상의한다	4.5	18.5	53.3	19.8	3.9
25) 교우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와 상의한다	14.4	41.4	29.4	10.7	4.1
26) 이성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와 상의한다	19.6	45.1	22.8	7.2	5.3
27) 선생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와 상의한다	6.6	19.3	47.3	23.0	3.9
28) 아버지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지적인 적이 있다	3.9	11.5	54.1	26.1	4.5
29)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신다	3.3	13.2	36.4	42.6	4.5

<문 12-2> 다음 문항은 당신과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되는 번호에 √ 표 하시오. (양어머니일 경우에는 양어머니에 대해 응답 요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0.8	10.9	65.0	20.8	2.5
2)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2.7	8.2	49.4	37.2	2.5
3) 나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3.5	15.2	55.3	24.3	1.8
4) 나와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4.7	33.1	37.0	23.2	2.1
5) 나와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1.8	12.3	52.7	30.7	2.5
6)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들어준다	2.9	10.1	48.1	37.0	1.9
7)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누구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	1.6	14.0	51.4	31.1	1.9
8)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3.3	23.9	50.4	20.2	2.1
9) 나의 능력이나 노력을 높게 평가해 준다	2.1	8.8	59.3	27.4	2.3
10) 나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준다	1.9	8.8	55.3	32.3	1.8
11) 나에게 심한 욕설을 자주 하신다	47.9	42.4	5.4	1.6	2.7
12) 나를 심하게 때릴 때가 많다	88.9	8.4	0.6	0.2	1.9
13) 내가 잘못했을 때 체벌을 가한다	89.1	7.2	1.2	0.8	1.8
14) 내게 이유없이 화풀이를 한다	66.9	20.4	9.5	1.0	2.1
15) 내게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다	77.2	15.8	3.3	1.8	1.9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6) 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61.7	15.4	13.2	6.6	3.1
17) 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강요한다	63.6	26.7	4.9	1.8	3.1
18)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	2.9	8.9	49.2	35.4	3.5
19) 나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자주 한다	24.9	56.8	12.3	3.1	2.9
20) 나는 아버지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1.9	5.8	46.1	44.0	2.1
21) 사춘기 신체변화가 있을 때 아버지와 상담했다	7.4	22.2	52.3	14.4	3.7
22) 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16.7	35.4	37.7	6.6	3.5
23) 아버지는 집안의 모든 일을 나에게 알리고 상의한다	5.3	39.5	42.2	9.3	3.7
24) 성적문제에 대해서 아버지와 상의한다	2.1	11.7	56.2	26.7	3.3
25) 교우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와 상의한다	8.4	30.2	41.2	16.9	3.3
26) 이성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와 상의한다	14.2	37.0	32.7	12.3	3.9
27) 선생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와 상의한다	4.5	13.4	52.5	26.5	3.1
28) 아버지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지적인 적이 있다	2.5	9.3	59.1	25.5	3.5
29)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신다	1.8	11.7	36.8	45.9	3.9

<문 13-1> 다음 문항은 당신과 아버지와와 갈등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양아버지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 나의 헤어스타일이나 외모치장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30.7	40.7	22.0	3.5	3.1
2) 나의 용돈관리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12.5	36.0	39.7	8.8	3.1
3) 나의 친구관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27.4	48.6	18.3	2.3	3.3
4) 나의 이성교제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26.7	44.7	20.0	5.1	3.5
5) 나의 학원수강 및 학습시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16.7	38.7	37.0	4.5	3.1
6) 나의 외출 및 귀가시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15.6	27.8	37.9	15.6	3.1
7) 나는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33.9	47.7	12.1	3.3	3.1
8) 나는 성격 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60.3	30.2	5.3	1.0	3.3
9) 나는 친구관계 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67.1	27.6	1.4	0.4	3.5
10) 나는 이성교제 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69.8	23.5	2.1	0.8	3.7
11) 나는 성격, 습관, 태도 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40.5	33.7	17.5	4.7	3.7
12) 나는 행동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42.4	37.5	14.6	1.9	3.5
13) 아버지와 부딪힐 때 묵묵히 봐주신다	40.5	37.5	10.9	1.4	9.7
14) 아버지와 부딪혔을 때 일반적으로 야단을 맞는다	87.0	8.0	1.0	0.2	3.9
15) 아버지와 부딪혔을 때 내가 이긴다	34.2	43.8	13.6	1.2	7.2
16) 아버지와 부딪혔을 때 말로 서로 잘 풀어나간다	6.4	12.1	45.5	31.7	4.3
17) 아버지와 부딪혔을 때 서로 말을 하지 않거나 피한다	27.8	33.7	27.4	7.0	4.1

<문 13-2> 다음 문항은 당신과 어머니와의 갈등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양어머니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 나의 헤어스타일이나 외모치장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20.2	35.4	34.6	6.8	2.9
2) 나의 용돈관리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8.8	32.5	45.1	10.7	2.9
3) 나의 친구관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21.8	45.5	24.1	5.1	3.5
4) 나의 이성교제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21.6	41.1	26.5	8.4	2.5
5) 나의 학원수강 및 학습시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13.4	32.7	42.8	8.2	2.9
6) 나의 외출 및 귀가시간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11.7	20.8	41.4	23.5	2.5
7) 나는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30.2	45.9	16.0	5.1	2.9
8) 나는 성적 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60.1	28.8	7.2	1.2	2.7
9) 나는 친구관계 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65.2	27.2	3.3	1.2	3.1
10) 나는 이성교제 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67.5	24.9	3.1	1.2	3.3
11) 나는 성격, 습관, 태도 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38.3	32.1	20.0	6.6	2.9
12) 나는 행동때문에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39.1	35.4	18.9	3.5	3.1
13) 아버지와 부딪힐 때 묵묵히 봐주신다	39.9	38.9	10.3	1.4	9.5
14) 아버지와 부딪혔을 때 일방적으로 야단을 맞는다	87.2	8.2	0.6	0.2	3.9
15) 아버지와 부딪혔을 때 내가 이긴다	34.4	42.2	14.6	1.9	6.8
16) 아버지와 부딪혔을 때 말로 서로 잘 풀어간다	3.9	12.8	48.2	31.9	3.1
17) 아버지와 부딪혔을 때 서로 말을 하지 않거나 피한다	26.7	32.9	28.4	8.6	3.5

<문 14-1> 다음 문항은 당신에 대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기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주십시오.
(양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양아버지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 나의 학업성취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1.9	27.0	50.0	16.5	4.5
2) 나의 장래 직업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1.9	28.0	50.0	16.0	4.1
3) 내가 사회적을 성공하기를 바란다	1.0	1.8	47.3	45.9	4.1
4)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란다	2.5	25.9	40.7	26.1	4.9
5) 내 일을 내가 알아서 하기를 원한다	0.8	1.0	45.3	48.8	4.1
6) 내가 인간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0.8	2.9	46.5	45.5	4.3
7) 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1.4	4.5	35.6	54.3	4.3
8)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1.0	1.6	29.0	64.4	4.1
9) 좋은 집으로 시집(장가)가기를 원한다	4.7	11.9	46.9	31.7	4.9

<문 14-2> 다음 문항은 당신에 대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기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주십시오.
(양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어머니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 나의 학업성취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1.4	22.8	52.7	20.2	2.9
2) 나의 장래 직업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1.0	27.8	50.6	17.7	2.9
3) 내가 사회적을 성공하기를 바란다	0.4	1.9	48.1	46.3	3.3
4)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란다	2.3	24.3	42.0	27.8	3.5
5) 내 일을 내가 알아서 하기를 원한다	0.4	1.9	43.4	51.4	2.9
6) 내가 인간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0.4	2.7	46.3	47.5	3.1
7) 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0.8	3.3	34.6	58.2	3.1
8)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0.4	1.2	28.6	66.9	2.9
9) 좋은 집으로 시집(장가)가기를 원한다	4.1	11.7	44.2	36.6	3.5

<문 15> 문14의 1~9 항목 중 아버지/어머니가 당신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대는 무엇인지 2가지를 순서대로 기입해 주십시오.

	나의 학업성취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나의 장래 직업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내가 사회적 으로 성공하기를 바란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란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인간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건강 하기를 바란다	내가 행복 하기를 바란다	좋은 집으로 시집(장가)가 기를 원한다	무응답
아버지 1순위	15.2	10.3	8.4	3.3	6.8	3.1	9.7	34.6	8.6	
아버지 1+2순위	18.4	21.7	29.7	8.0	17.5	8.5	21.2	59.9	15.1	
어머니 1순위	12.5	6.2	7.0	2.7	8.0	2.1	11.7	41.6	8.2	
어머니 1+2순위	19.8	14.2	18.4	7.1	13.2	8.0	28.8	66.0	24.5	0.5

<문 16> 다음 문항을 자세히 읽어보고 해당하는 번호에 √ 표 해 주십시오.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이상	무응답
1) 당신은 어디까지 교육받기를 원합니까?	3.5	16.7	16.1	51.0	10.7	1.9
2) 부모님은 당신이 어디까지 교육받기를 원합니까?	3.3	16.5	13.0	52.5	10.9	3.7

<문 17>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 표 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	무응답
1)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39.3	57.4	3.3
2) 나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	37.0	60.1	2.9
3) 나는 아버지가 싫다	18.7	74.7	6.6
4) 나는 어머니가 싫다	17.5	76.1	6.4

<문 18> 당신의 삶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가지를 선택하여 순위대로 써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선생님	친구	교제하고 있는 이성 친구	사회적인 인물, 위인, 정치가	없다	기타
1순위	18.9	23.2	7.4	1.6	0.6	2.1	1.8	13.6	9.9	5.6	3.1	12.3
1+2순위	33.5	37.3	14.2	3.3	2.4	4.7	3.3	33.5	32.1	13.7	15.1	7.1

<문 19> 다음은 당신과 부모님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 표 해 주십시오.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하지 않는다	가끔 하는 편이다	자주 한다	무응답
1) 아버지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61.1	15.4	12.6	5.4	5.4
2) 어머니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54.1	18.9	16.0	5.4	5.6
3) 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57.2	17.7	16.1	4.7	4.3

<문 20> 당신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어	부모님의 권유로 (또는 영향으로)	친구 및 주위의 권유로	동아리 또는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종교단체 활동을 통해서	봉사점수를 얻기 위해	기타	무응답
5.8	23.3	2.5	5.8	0.8	0.2	5.4	56.0

<문 21> 아래 문항을 자세히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 표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 결혼 전까지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도 좋다	31.5	51.4	12.1	3.7	1.4
2) 내가 공부를 다 마칠 때까지 나의 생활비(학비 포함)는 전적으로 부모님이 책임져야 한다	2.3	18.9	52.1	25.3	1.4

<문 22> 당신은 부모님으로부터 언제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등 최종학업을 마친 후	취업한 이후	결혼한 이후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계속 의존해도 좋다	기타	무응답
1)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할 시기	0.6	10.7	13.2	66.9	1.2	0.4	4.1	2.9
2) 부모님 집으로부터 나와 혼자 살아야 할 시기	2.3	43.4	8.8	29.0	1.4	0.4	8.8	6.0

<문 23> 다음의 보기 중 당신의 고민거리는 무엇입니까?

(가장 심각한 고민거리 2가지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세요.)

	공부와 성적	친구관계	진로문제 (진학/취업)	가족관계 (가족문제)	외모	성격	이성교제	집안의 경제사정	특별한 고민거리 없음	기타	무응답
1순위	27.0	3.3	13.8	5.4	5.6	3.9	6.4	2.3	28.8	1.6	1.8
1+2순위	38.7	9.0	32.1	9.4	10.8	7.1	12.7	7.5	45.8	6.6	20.3

<문 24> 당신은 누구와 고민을 상담하십니까? (가장 자주 고민을 상담하는 두 사람을 선택해서 번호를 써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친구	할아버지	친척	선생님	상담전 문기관	학교 상담 선생님	누구 하고도 상담하 지 않음	기타	무 응 답
1순위	10.5	33.9	8.0	27.2	0.2	0.4	0.8	1.2		9.3	7.2	1.2
1+2순위	24.5	50.0	22.6	50.0	0.5	2.8	1.4	1.4		15.6	17.9	13.2

<문 25> 당신은 다음의 활동을 하루(평일)에 얼마나 하십니까?

폰메일 보내는 문자	폰메일 받는 문자	비디오 · 컴퓨터 게임 또는 인터넷 사용	TV시청	학습시간 (혼자 공부하는 시간)	학원 및 과외공부
4.61	4.39	124.86	117.95	77.66	29.46

<문 26> 당신은 학교나 학원을 마치고 주로 언제쯤 집으로 돌아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오후 4시 이전	오후 5시경	오후 6시경	오후 7시경	오후 8시경	오후 9시경	오후 10시경	오후 11시경	밤 12시 이후	일정치 않다	무응답
25.3	20.8	6.0	3.7	4.7	5.3	1.9	0.4	0.6	30.7	0.6

<문 27> 당신이 집에 돌아온 후, 자기 전까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 일이 가장 많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여 √표 해주십시오. 양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혼자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모두와 함께	주로 그냥 잔다	무응답
51.0	9.5	2.7	8.2		0.2	23.9	2.1	2.3

<문 28> 당신은 아래의 일 또는 활동을 얼마나 자주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씩 한다	자주 한다	무응답
1) 집안 일(청소, 요리, 세탁 등)	1.9	20.8	46.3	30.7	0.2
2) 취미/문화(미술관 관람 · 음악회 · 영화관람)	8.2	33.5	44.0	14.0	0.4
3) 스포츠 활동	9.9	16.9	30.5	42.4	0.2
4) 여행이나 캠프	8.8	26.7	36.4	27.8	0.4

<문 29> 당신이 장차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를 선택하시
고 순서대로 번호를 써주세요.

	하고 싶은일	재미 있는일	개성을 살릴 수 있는일	시간을 자유롭게 쓸수 있는 일	귀중한 경험을 많이 할수 있는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일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	무응답
1순위	78.4	4.7	1.4	3.5	8.4	0.6	2.1		1.0
1+2 순위	88.7	16.5	5.7	25.9	49.5	2.8	7.1		3.8

<문 30>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 나에게 적합한 직업은 나보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더 잘 아신다	44.0	49.0	5.4	0.6	1.0
2) 나의 진로는 내가 선택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다	1.2	2.9	51.6	42.8	1.6
3) 부모님은 내가 당신의 직업을 이어 받기를 원한다	53.3	39.7	5.4	0.2	1.4
4) 나는 부모님의 직업을 이어 받고 싶다	51.4	34.0	10.9	1.6	2.1

<문 31> 당신은 지난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무응답
41.2	54.5	4.3

<문 31-1> 당신이 했거나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는 어떤 것입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모두 √표 해 주십시오)

전단지 물리기 (스티커 부착)	패스트 푸드점	24시 편의점	상점에서 물건팔기	신문-배달	주유소	사무보조	건설 현장 일	이벤트 행사장	음식점 (피자, 치킨, 분식집 등) 에서 서빙	음식점 (피자, 치킨, 분식집 등)에서 오토바이 배달	기타
7.5	6.1	5.2	13.7	3.8	0.5	7.1	5.7	2.8	14.6		51.4

<문 31-2> 당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선택하고 순위대로 써 주십시오.

	용돈을 벌기 위해서	친구들이 하니까	부모님의 권유로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일반적인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	장래의 직업과 관련한 경험을 쌓기 위해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기타	무응답
1순위	75.9	0.5	0.5	1.4	9.9	1.9	5.2	4.2	0.5
1+2순위	86.3	1.9	2.8	1.9	55.2	9.4	24.5	11.3	6.6

<문 32> 여러분 나이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경험이다	한 두번 정도는 해도 좋다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
62.5	28.2	2.1	0.6		6.6

<문 33> 아래 상황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사를 돌봐야 한다	67.7	25.7	4.1	1.8	0.8
2) 사회적 성공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중요하다	62.5	30.2	4.9	1.8	0.8
3) 남자는 집안의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	51.8	35.8	8.4	2.5	1.6
4) 여자는 양전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	81.1	14.8	1.4	0.8	1.9
5) 여자에게는 사회적 성공보다 행복한 결혼이 더 중요하다	38.1	36.8	18.7	4.5	1.9
6) 자녀교육은 어머니의 책임이 더 크다	38.1	37.4	19.3	4.3	1.0
7) 남자도 가사에 참여해야 한다	0.8	1.4	40.9	55.8	1.2
8) 여자들도 경제적인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1.0	3.9	51.9	42.4	0.8
9) 사회적 성공은 여자에게도 중요하다	3.5	11.7	52.3	30.5	1.9
10) 남자가 늘 주도적일 필요는 없다	5.8	2.1	35.8	54.5	1.8

<문 34> 아래 상황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 미국에서는 재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대접을 받는다	21.8	56.4	17.3	2.7	1.8
2) 미국사회는 능력이 중요한 사회이다	1.4	8.0	65.8	23.3	1.6
3) 미국사회는 학력(학벌)이 중요한 사회이다	0.8	4.3	62.1	31.5	1.4
4) 미국사회는 인맥(연줄)이 중요한 사회이다	0.8	8.6	58.4	30.9	1.4
5) 미국사회는 혈연이 중요한 사회이다	1.0	26.1	57.6	13.8	1.6
6) 미국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이다	5.4	27.0	55.8	10.1	1.6
7) 나라가 발전해야 개인도 발전한다	4.9	33.9	50.6	7.4	3.3
8)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의 이익은 희생되어도 좋다	24.7	48.8	17.3	4.9	4.3

<문 35> 아래 상황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에√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1)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8	10.9	52.3	31.9	3.1
2)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6.1	59.7	20.8	3.3
3)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0.8	13.2	52.7	30.0	3.3
4) 나는 내가 내린 결정을 신뢰할 수 있다	0.4	21.8	51.4	23.3	3.1
5)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0.6	18.5	59.9	17.9	3.1
6)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	1.6	25.7	52.9	16.5	3.3
7)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0.5	28.2	50.6	7.6	3.1
8)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0.2	46.3	17.5	2.7	3.3
9)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12.5	37.7	40.9	5.6	3.3
10) 나는 나 자신이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30.7	48.8	14.6	2.3	3.5
11) 주위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51.9	39.1	5.6	0.2	3.1

3. 질문지

Enkät om ungdomars uppfattning om familj och familjeliv

Hej,

En forskargrupp vid Södertörns högskola bedriver ett internationellt forskningsprojekt som undersöker ungdomars familjeliv i fem länder nämligen Sydkorea, Japan, USA, Tyskland och Sverige. Vårt mål är att med resultat från denna enkät öka förståelsen av ungdomars levnadsförhållanden och publicera rapporter för att skapa oss en bättre ungdomspolicy.

Svaren från denna enkät kommer endast att användas i forskningssyfte. All personlig information kommer att betraktas som konfidentiell och vi uppmanar er därför att svara så ärligt ni kan. Din åsikt är av stor betydelse för oss forskare för att veta hur ungdomar i Sverige har det inom och utanför familjelivet. Till enkätundersökningen är du vald genom ett slumpmässigt urval.

Som belöning skickas en Tia-lott för dem som fyller i enkätformulären och skickar tillbaka dem i det medskickade kuvertet.

Den 20 april 2006

Yonhyok Choe, Docent i statsvetenskap

Forskningsansvarig

Institutionen för statsvetenskap, nationalekonomi och juridik

Södertörns högskola

tel. 08-608 4225, fax. 08-608 4340

Livia Alonso

Forskningsassistent

073-506 7332

Hedvig Jensmar

Forskningsassistent

070-352 5646

Instruktion för enkätsvar

Besvara frågorna i turordning utan undantag

En del av frågorna besvaras på anvisad plats. För frågor som har dessa instruktioner (T ex: gå till **Fråga 2-1**) , följ dessa anvisningar och besvara frågorna.

För frågor gällande föräldrar, för uppväxtförhållanden utan föräldrar går det bra att ersätta med vårdnadshavare eller förmyndare.

Observera att vissa frågor kan besvaras med flera svarsalternativ medan andra frågor endast kräver ett svarsalternativ.

För att markera ett svar på en fråga, bocka i rutan med $\sqrt{\quad}$. För frågor markerade med () eller övrigt (), besvara så utförligt du kan inuti paranteserna.

SQ 1

Kön?

___① Man ___② Kvinna

SQ 2

Födelseår? _____

SQ 3

Vilken skolnivå har du just nu?

___① Grundskola
___② Gymnasium(samhällsvetenskaplig)
___③ Gymnasium(natur/teknikvetenskaplig)
___④ Övrigt ()

SQ 4

Vilken årskurs går du i?

___① Årskurs 1 ___② Årskurs 2 ___③ Årskurs 3
___④ Annan _____

Fråga 3

Har din far ett jobb? (Om du bor med din adoptivfar, svara på frågan om din adoptivfar)

___① Ja (gå till Fråga 3-1) ___② Nej (gå till Fråga 4)

Fråga 3-1

Har din far ett jobb? Markera först det svar som överensstämmer bäst med ✓, skriv sedan så utförligt du kan inuti () mer konkret vad för typ av jobb det är.

Till exempel,

Kontorist (bankdirektör, bilhandlare, entreprenör etc.)

Jurist (domare, åklagare eller advokat)

Egenföretagare (restaurangägare, detaljhandel etc.)

Hantverkare (rörmokare, elektriker, murare etc.)

- | | | | |
|-----------------------------------|--------------------|---------------------|----------------|
| ___① Forskare/lärare vid högsolor | ___⑩ Religionsyrke | () | |
| () | ___⑪ Jurist | () | |
| ___② Lärare | () | ___⑫ Tvbranschen | () |
| ___③ Kontorist | () | ___⑬ Konstnär | () |
| ___④ Kommunalanställd | () | ___⑭ Idrottare | () |
| ___⑤ Entreprenör | () | ___⑮ Kändis | () |
| ___⑥ Sjukvårdsanställd | () | ___⑯ Hantverkare | () |
| ___⑦ Forskare | () | ___⑰ Egenföretagare | () |
| ___⑧ Polis | () | ___⑱ Övrigt | () |
| ___⑨ Militär | () | | |

Fråga 3-2 Vilket passar bäst in på din far?

- ___① Timanställd (Deltidsjobb eller tillfälligt jobb)
- ___② Heltidsanställd (Fast anställd)

Fråga 4

Har din mor ett jobb? (Om du bor med din adoptivmor, svara på frågan om din adoptivfar)

___① Ja (gå till **Fråga 4-1**)

___② Nej (gå till **Fråga 5**)

Fråga 4-1

Har din mor ett jobb? Markera först det svar som överensstämmer bäst med ✓, skriv sedan så utförligt du kan inuti () mer konkret vad för typ av jobb det är.

Till exempel,

Kontorist (bankdirektör, bilhandlare, entreprenör etc.)

Jurist (domare, åklagare eller advokat)

Egenföretagare (restaurangägare, detaljhandel etc.)

Hantverkare (rörmokare, elektriker, murare etc.)

- | | | |
|------------------------------------|---------------------|------------------|
| ___① Forskare/lärare vid högskolor | ___⑩ Religionsyrke | () |
| () | ___⑪ Jurist | () |
| ___② Lärare | () | ___⑫ Tvbranschen |
| () | ___⑬ Konstnär | () |
| ___③ Kontorist | () | ___⑭ Idrottare |
| () | ___⑮ Kändis | () |
| ___④ Kommunalanställd | () | ___⑯ Hantverkare |
| () | ___⑰ Egenföretagare | () |
| ___⑤ Entreprenör | () | ___⑱ Övrigt |
| () | () | () |
| ___⑥ Sjukvårdsanställd | () | |
| () | | |
| ___⑦ Forskare | () | |
| () | | |
| ___⑧ Polis | () | |
| () | | |
| ___⑨ Militär | () | |

Fråga 4-2 Vilket passar bäst in på din mor (kvinnlig förmyndare)?

___① Timanställd (Deltidsjobb eller tillfälligt jobb)

___② Heltidsanställd (Fast anställd)

Fråga 5

Hur är fördelningen i familjens inkomst mellan far och mor?

- ___① Mor tjänar in hela familjens inkomst
 ___② Mor tjänar mer.
 ___③ Mor och far tjänar lika mycket
 ___④ Far tjänar mer
 ___⑤ Far tjänar in hela familjens inkomst
 ___⑥ Vet inte

Fråga 6

Hur bidrar dina **föräldrar** till hushållsarbetet?(Om du bor med dina adoptvföräldrar gäller frågan dem)

	Mor sköter allt	Huvudsaklig en sköts allt av mor med fars hjälp	Mor och far gör hälften var	Huvudsaklig en sköts allt av far med mors hjälp	Far sköter allt	Andra personer förutom far och mor
(1) Laga mat	①	②	③	④	⑤	⑥
(2) Diska	①	②	③	④	⑤	⑥
(3) Städa	①	②	③	④	⑤	⑥
(4) Tvätta	①	②	③	④	⑤	⑥

Fråga 7

Hur gör dina **föräldrar** för att lösa meningsskiljaktigheter? (Om du bor med dina adoptvföräldrar gäller frågan dem)

	Aldrig	Sällan	Brukligt	Alltid
(1) Lyssnar på varandras åsikter och pratar lugnt	①	②	③	④
(2) Emotionellt och impulsivt	①	②	③	④
(3) Pratar inte med varandra	①	②	③	④
(4) Mor följer fars åsikt	①	②	③	④
(5) Far följer mors åsikt	①	②	③	④
(6) Vägrar lyssna på varandras åsikter	①	②	③	④
(7) Tar till våld	①	②	③	④

Fråga 8

Hur ofta spenderar du dessa aktiviteter tillsammans med dina föräldrar? (Om du bor med dina adoptvföräldrar gäller frågan dem)

	Med far				Med Mor			
	Aldrig	Sällan	Ibland	Ofta	Aldrig	Sällan	Ibland	Ofta
(1) Sport och utomhusaktivitete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Reso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Musikkoncert/gåpå bio/besöka museum etc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Titta på TV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Fråga 9

Hur intresserade är dina föräldrar när det gäller dig och dessa angelägenheter? (Om du bor med dina adoptvföräldrar gäller frågan dem)

	Far är				Mor är			
	Bryr sig inte alls	Verkar inte intresserad	Intresserad	Mycket intresserad	Bryr sig inte alls	Verkar inte intresserad	intresserad	Mycket intresserad
(1) Studie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Vänne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Umgänge medmotsatt kö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Fritidoch intress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Min framtid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Fråga 10

Vad brukar dina föräldrar ofta säga åt dig? (**Markera endast ett alternativ**. Om du bor med dina adoptvföräldrar gäller frågan dem)

___① Plugga mer

___⑤ Ljug inte för någon

___② Sluta spela dataspel

___⑥ Var sparsam

___③ Jämför mig med andra personer

___⑦ Var flitig

___④ Skapa inte problem som påverkar andra

___⑧ Övrigt ()

(16) Förlåter inte mig när jag har gjort fel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7) Tvingar sina åsikter på mig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8) Jag är lycklig när jag är med mina föräldra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9) Jag ljuger ofta för mina föräldra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0) Jag är tacksam gentemot mina föräldra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1) Under tonårsperioden har jag bitt mina föräldrar om råd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2) Vi har pratat om sex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3) Jag är delaktig i alla beslut som tas i hemmet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4) Vi diskuterar om mina betyg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5) Jag pratar med mina föräldrar när jag har problem med mina vänne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6) Jag pratar med mina föräldrar när jag har problem med min kille/tjej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7) Jag pratar med mina föräldrar när jag har problem med min lärare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8) Jag har påpekat när mina föräldrar gjort eller sagt fel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9) Mina föräldrar är villiga att göra allt för mig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Fråga 13

Svara på nedanstående frågor. Markera det som passar in med √.
(Nedanstående frågor handlar om din relation med dina föräldrar.
Om du bor med dina adoptivföräldrar gäller frågan dem)

	Med far				Med mor			
	Instämmer inta alls	Stämmer inte	stämmer	Instämmer helt	Instämmer inta alls	Stämmer inte	stämmer	Instämmer helt
(1) Läger sig i min klädstil eller min hårfrisy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Läger sig i hur jag spenderar mina penga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Läger sig i mina vänskapsförhållande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Läger sig i vem jag dejtaro och vem jag umgås med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Läger sig i mina efterskolan-aktiviteter och den tid jag studera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Läger sig i när jag är ute och hur sent jag kommer hem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Jag bråkar ofta med mina föräldra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Vi bråkar ofta på grund av mina betyg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Vi bråkar ofta på grund av mina vänne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0) Vi bråkar ofta på grund av min kille/tjej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1) Vi råkar ofta i bråk på grund av min personlighet, beteende och vana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2) Vi råkar ofta i bråk på grund av minahandlinga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3) Mina föräldrar ser mellan fingrarna när vi bråka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4) Jag får stryk när vi bråka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5) Mina föräldrar ger sig när vi bråka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6) Vi löser våra konflikter genom att prata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7) När vi har bråkat pratar jag inte alls eller undviker mina föräldra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Fråga 14

Nedanstående frågor handlar om dina föräldrars förväntningar på dig. Svar på nedanstående frågor. Markera det som passar in med √. (Om du bor med dina adoptvföräldrar gäller frågan dem)

	Far				Mor			
	Absol ut inte	Nej	Ja	Fullstä ndigt	Absol ut inte	Nej	Ja	Fullstä ndigt
(1) Har stora förväntningar angående mina studier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Har stora förväntningar angående mitt framtida jobb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Vill att jag ska lyckas i samhället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Vill att jag ska studera på ett bra universitet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Vill att jag ska kunna sköta mig själv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Vill att jag ska bli mogen som person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Är mån om min hälsa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Vill att jag ska bli lycklig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Vill att jag ska gifta mig med en bra familj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Fråga 15

Vilka är de 2 största förväntningarna som dina föräldrar har i utav (1) till (9)? Fråga 14

Far

Mor

Nr 1 _____

Nr 1 _____

Nr 2 _____

Nr 2 _____

Fråga 16

Svar på nedanstående frågor. Markera det som passar in med √.

	Högstadien ivå	Gymnasien ivå	Yrkesskola	Universitet snivå	Akademik ernivå
(1) Hur mycket tänker du studera?	①	②	③	④	⑤
(2) Hur mycket vill dina föräldrar att du ska studera?	①	②	③	④	⑤

Fråga 17

Svar på nedanstående frågor. Markera det som passar in med √.

	Ja	Nej
(1) Jag vill leva som min far	①	②
(2) Jag vill leva som min mor	①	②
(3) Jag tycker INTE om min far	①	②
(4) Jag tycker INTE om min mor	①	②

Nedanstående frågor handlar om dig och dina omgivningar.

Fråga 18

Vem **influerar** dig mest i ditt liv? (Ange 2 alternativ i turordning. Om svaret är ingen, skriv 11 i fältet Nr 1____)

Nr 1_____

Nr 2_____

___① far

___⑦ lärare

___② mor

___⑧ vän

___③ bror eller syster

___⑨ kille / tjej

___④ farfar/morfar

___⑩ känd person ex hjälte eller politiker

___⑤ farmor/mormor

___⑪ ingen

___⑥ släkting

___⑫ övrigt()

Fråga 19

Nedanstående frågor handlar om dig och dina föräldrars **volontärsarbete**. Markera det som passar in med √.

	Inte alls	Sällan	Ibland	Mycket aktiv
(1) Minfarär involverad i volontärsarbete	①	②	③	④
(2) Minmorärinvolverad i volontärsarbete	①	②	③	④
(3) Jag är involverad i volontärsarbete	①	②	③	④

Fråga 20

Om du är (har varit) involverad i volontärsarbete, vad är (var) dina skäl? (**Markera alla svar som passar in med √**)

- ___① På grund av mina föräldrar
 ___② För att jag vill
 ___③ På grund av mina vänner eller bekanta
 ___④ På grund av klubbaktiviteter
 ___⑤ Min religion
 ___⑥ För att fylla min resumé
 ___⑦ Övrigt ()

Fråga 21

Svara på nedanstående frågor och markera det som passar in med √.

	Absolut inte	Håller inte med	Håller med	Fullständigt
(1) Det är OK att vara ekonomiskt beroende av sina föräldrar tills man gifter sig	①	②	③	④
(2) Det är OK att föräldrarna står för skolvgifter och levnadskostnader tills man har studerat klart	①	②	③	④

Fråga 22

När är det läge att vara ekonomiskt självständigt? När är det läge att flytta ifrån sina föräldrar?

- ___① Efter högstadiet ___① Efter högstadiet
 ___② Efter gymnasiet ___② Efter gymnasiet
 ___③ Efter universitetsexamen ___③ Efter universitetsexamen
 ___④ Efter att man skaffat jobb ___④ Efter att man skaffat jobb
 ___⑤ Efter att man gift sig ___⑤ Efter att man gift sig
 ___⑥ Man kan bo kvar ___⑥ Man kan bo kvar
 ___⑦ Övrigt () ___⑦ Övrigt ()

Fråga 23

Markera 2 utav nedanstående **bekymmer**. (Markera de 2 mest allvarliga bekymren som du har i turordning. Har du inga speciella bekymmer, markera nr 9. Markerar du nr 10, fyll i ().

(Nr 1 _____ Nr 2 _____)

- | | |
|-----------------------------|------------------------------------|
| ① Studier och betyg | ⑥ Personlighet |
| ② Vänner | ⑦ Umgänge med motsatt kön |
| ③ Min framtid(studier/jobb) | ⑧ Familjens ekonomiska förhållande |
| ④ Familjerelation | ⑨ Inga speciella bekymmer |
| ⑤ Utseende | ⑩ Övrigt () |

Fråga 24

Vem vänder du dig till när du har bekymmer? (Markera de 2 personer som du mest vänder dig till i turordning. Om du inte vänder dig till någon, markera nr 11. Markerar du nr 12, fyll i ().

(Nr 1 _____ Nr 2 _____)

- | | |
|-------------------------|-----------------------------------|
| ___ ① Far | ___ ⑦ Släkting |
| ___ ② Mor | ___ ⑧ Lärare |
| ___ ③ Bror eller syster | ___ ⑨ Organisation eller förening |
| ___ ④ Vän | ___ ⑩ Studievägledare |
| ___ ⑤ Farfar/morfar | ___ ⑪ Ingen |
| ___ ⑥ Farmor/mormor | ___ ⑫ Övrigt () |

Fråga 25

Hur ofta gör du nedanstående aktiviteter per **dag vardag**?

(1) Skickar och tar emot SMS	Skickar ca () st
	Tar emot ca () st
(2) Surfar eller spelar dataspel	ca () tim () min
(3) Tittar på TV	ca () tim () min
(4) Pluggar (pluggar själv)	ca () tim () min
(5) Efterskolan-studier (språk, instrument etc)	ca () tim () min

Fråga 26

När brukar du komma hem efter skolan eller efter alla fritidsaktiviteter (**Markera endast ett alternativ.**)

- ___① före kl 16:00 ___⑥ Ungefär kl 21:00
 ___② Ungefär kl 17:00 ___⑦ Ungefär kl 22:00
 ___③ Ungefär kl 18:00 ___⑧ Ungefär kl 23:00
 ___④ Ungefär kl 19:00 ___⑨ Efter kl 24:00
 ___⑤ Ungefär kl 20:00 ___⑩ Oregelbundet

Fråga 27

Vem spenderar du mest tid med när du kommit hem?
 (Markera endast ett alternativ med √. Om du bor med dina adoptivföräldrar gäller frågan dem)

- ___① Självt ___⑤ Farfar/morfar
 ___② Bror eller syster ___⑥ Farmor/mormor
 ___③ Far(Adoptivfar, förmyndare) ___⑦ Hela familjen
 ___④ Mor(Adoptivmor, förmyndare) ___⑧ Går och lägger mig nästan direkt

Fråga 28

Hur ofta medverkar du i dessa aktiviteter? Markera det svar som passar in med √.

	Medverkar inte alls	Nästan aldrig	Ibland	Ofta
(1) Hushållsarbete (städa, laga mat, tvätta, etc)	①	②	③	④
(2) Intresse/kultur (se på konst, musikkoncert, gå på bio)	①	②	③	④
(3) Sportaktiviteter	①	②	③	④
(4) Skicka SMS	①	②	③	④

Fråga 29

Vad är dina kriterier för ditt framtida jobb? Markera de 2 viktigaste alternativen i rangordning.

Nr 1 _____ Nr 2 _____

- ① Något som jag vill göra
- ② Något som jag tycker det är kul
- ③ Ett arbete där jag kan bestämma arbetstiden
- ④ Ett arbete som ger mig värdefull erfarenhet
- ⑤ Något som kan berika livserfarenheter
- ⑥ Ett arbete där jag blir känd.
- ⑦ Stabilt jobb (kommunanställd etc)

Fråga 30

Svar på nedanstående frågor. Markera det som passar in med √.

	Stämmer inte alls	Stämmer inte	Stämmer	Instämmer helt
(1) Mina föräldrar eller min lärare vet bättre vad för jobb som passar mig	①	②	③	④
(2) Jag bestämmer själv och tar ansvar för min framtid.	①	②	③	④
(3) Mina föräldrar vill att jag tar efter deras yrken	①	②	③	④
(4) Jag vill ta efter mina föräldrars yrke	①	②	③	④

Fråga 31

Har du eller har du haft ett deltidsjobb under det senaste året?

___① Ja (gå till Fråga 31-1) ___② Nej (gå till Fråga 32)

Fråga 31-1

Vad har du eller haft för typ av deltidsjobb? (Markera alla alternativ som passar in med √.

___① Dela ut reklam ___⑦ Kontorsarbete

- ___② Snabbmatsrestaurang ___⑧ Hanterk och Bygg
- ___③ Kiosk ___⑨ Events och Parties
- ___④ Sälja varor ___⑩ Servitör/Servitris
- ___⑤ Dela ut tidningar ___⑪ Köra ut mat på beställning
- ___⑥ Bensinmack ___⑫ Övrigt ()

Fråga 31-2

Varför har du ett **deltidsjobb**? (Markera de 2 viktigaste alternativen i rangordning.)

Nr 1 _____ Nr 2 _____

- ___① Tjäna ihop till fickpengar
- ___② För att mina vänner jobbar
- ___③ På grund av mina föräldrar
- ___④ Bidra till familjens ekonomi
- ___⑤ Skaffa mig livserfarenhet
- ___⑥ För att det har anknytning till mitt framtida yrke
- ___⑦ Jag vill inte vara beroende av någon
- ___⑧ Övrigt ()

Fråga 32

Vad tycker du om ungdomar i din ålder som
deltidsjobbar?

- ___ ① Det är en mycket bra erfarenhet
- ___ ② Det är OK att pröva någon enstaka gång
- ___ ③ Man bör undvika deltidsjobb
- ___ ④ Man bör absolut inte deltidsjobba
- ⑤ Vet ej

Fråga 33

Vad är din åsikt i följande frågor? Markera det som passar in med √.

	Absolut inte	Håller inte med	Håller med	Fullstä ndigt
(1) Män bör arbeta utanför hemmet och kvinnor bör vakta hushållet	①	②	③	④
(2) Karriär är viktigare för män än för kvinnor	①	②	③	④
(3) Män bör ansvara för familjens ekonomi	①	②	③	④
(4) Kvinnor bör vara tysta och lydsamma	①	②	③	④
(5) Det är viktigare för kvinnor med ett lyckligt äktenskap än att göra karriär	①	②	③	④
(6) Kvinnor är ansvariga för barns uppfostran	①	②	③	④
(7) Män bör hjälpa till i hushållsarbetet	①	②	③	④
(8) Kvinnor bör bidra till familjens ekonomi	①	②	③	④
(9) Karriär är viktigt för kvinnor	①	②	③	④
(10) Mannen behöver inte bestämma hela tiden	①	②	③	④

Fråga 34

Svara på nedanstående frågor och markera det som passar in med √.

	Absolut inte	Håller inte med	Håller med	Fullstä ndigt
(1) I Sverige behandlas man på samma sätt oavsett inkomst och förmåga.	①	②	③	④
(2) I Sverige är det viktigt att kunna försörja sig	①	②	③	④
(3) I Sverige är det viktigt med utbildning	①	②	③	④
(4) I Sverige är det viktigt med kontakter	①	②	③	④
(5) I Sverige är det viktigt med familjeband	①	②	③	④
(6) Sverige är ett ganska rättvist samhälle	①	②	③	④
(7) När det går bra för landet går det också bra för individen	①	②	③	④
(8) För landets bästa är jag villig att ge upp min förtjänst	①	②	③	④

Fråga 35

Svara på nedanstående frågor och markera det som passar in med √.

	Absolut inte	Håller inte med	Håller med	Fullstän digt
(1) Jag tycker att jag är en person med god karaktär	①	②	③	④
(2) Jag tycker att jag har talang och förmågor	①	②	③	④
(3) Jag tycker att jag är en värdig människa	①	②	③	④
(4) Jag kan lita på mina handlingar	①	②	③	④
(5) Jag vet att jag kan lösa mina egna problem	①	②	③	④
(6) Jag har kontroll över mitt eget liv	①	②	③	④
(7) Ibland tycker jag att jag inte duger någonting till	①	②	③	④
(8) Ibland tycker jag att jag är ond	①	②	③	④
(9) Ibland tycker jag att jag är misslyckad	①	②	③	④
(10) Jag tycker inte om min personlighet	①	②	③	④
(11) Folk runtomkring mig tycker att jag är ett problem	①	②	③	④

Tack för att du medverkat i denna undersökning!

2006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6-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IV -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김기현
 06-R01-1 청소년의 선호직업 및 직업가치 특성에 관한 연구 / 이경상·강영배
 06-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종단 분석 / 김기현·유성렬
 06-R01-3 청소년 비행 및 범죄 응답패턴에 대한 종단 분석 / 김기현·민수홍
 06-R0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I : 결과부분 측정 지표 검증 / 김신영·임지연·김상욱·박승호·유성렬·최지영
 06-R02-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 조사 I : 청소년 발달 종합지표 / 김신영·임지연·김상욱·박승호·유성렬·최지영
 06-R03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 양계민·오승근·권두승·전명기·조대연
 06-R04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 -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 백혜정·길은배·윤인진·이영란
 06-R05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 최창욱·박영균·김진호·임상택·전상민
 06-R05-1 청소년 생존권 현황과 지표개발 / 이용교·천정웅·안경순
 06-R05-2 청소년 보호권 현황과 지표개발 / 황옥경·정준미
 06-R05-3 청소년 발달권 현황과 지표개발 / 이중섭·박해석
 06-R05-4 청소년 참여권 현황과 지표개발 / 강현아
 06-R06 동북아 청소년의 역사인식·국가관 비교연구 / 오해섭·De-Ping Lu·Kazuhiko Fuwa
 06-R07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모바일을 중심으로 / 성윤숙·박한우
 06-R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국내외 청소년 정보화 정책연구 / 이혜연·조정문·김아미
 06-R08-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청소년의 온라인 생활과 학업적응 현황 / 장근영·남주희
 06-R09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 윤철경·조흥식·김향초·이규미·우정자
 06-R10 청소년 유형별 복지욕구 실태와 지원방안 / 김경준·김지혜·류명화·정익중
 06-R11 학교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 서정아·권해수·정찬석·김귀량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 / 김현철·김은정·손승영·이기재·박현주 (자체번호 06-R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2 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 장혜경·홍승아·김혜영 (자체번호 06-R1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3 일본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와타나베 히데기·마츠다 시게키·무꾸오 아사코·배지혜 (자체번호 06-R1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4 미국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김재은·김상학 (자체번호 06-R12-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5 독일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서병문·

- 안드레아스헤네커 · 제스퍼 코글린 (자체번호 06-R12-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6 스웨덴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 최연혁 · 피터 스트랜브링크 (자체번호 06-R12-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1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V / 이춘화 · 윤옥경 · 조아미 (자체번호 06-R1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2 가정 · 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 김은경 · 홍영오 (자체번호 06-R13-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9-03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 김영지 · 방은령 · 박정선 (자체번호 06-R13-2)

■ 수시과제

- 06-R14 청소년 생활시간 활용실태 및 변화 / 김기현 · 이경상
- 06-R15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조사 / 강병철 · 김지혜
- 06-R16 중국유학 한국청소년의 규모추정과 적응실태연구 / 김익기
- 06-R17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과 인간관계: 이동전화와 인터넷 미디어의 영향 / 류춘렬
- 06-R1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시설환경 모델개발 / 김호순 · 황진구 · 한도희 · 김중훈
- 06-R19 청소년 법의식 평가척도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김신영 · 신동준
- 06-R20 21세기 사회변화와 청소년정책의 중요성 / 고숙희 · 김영희 · 서동희
- 06-R21 고교생의 생활의식과 친구관계에 대한 국제비교 조사 / 김현철
- 06-R22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최인재

■ ISSUE PAPER

- 06-IP0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실태와 발전 방향 / 김영호
- 06-IP02 외국의 청소년근로보호정책 연구 · 독일의 청소년근로보호법을 중심으로 / 김문섭
- 06-IP03 한국 청소년의 젠더 차이와 성차별 : 현황과 과제 / 손승영
- 06-IP04 사이버 상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이버 윤리지수 개발 · 평가 / 김성벽
- 06-IP05 청소년의 휴대전화 문제행동 현황과 과제 / 성운숙

■ 용역과제

- 06-R25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및 참여권 확보방안 연구 / 최창욱 · 조혜영
- 06-R26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국제회의 / 성운숙 · 이해연 · 이창호
- 06-R27 제10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 / 서정아 · 김경준 · 이춘화 · 김귀랑
- 06-R28 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1차) 평가 / 김현철 · 백혜정
- 06-R29 청소년육성기금지원사업(2차) 평가 / 김현철 · 백혜정
- 06-R30 청소년 문화갈등 분석 및 세대간 문화소통 방안 / 박영균 · 박영신 · 김의철
- 06-R31 2006년도 지방행정기관 청소년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김신영 · 임지연

- 06-R32 제2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김영지
 06-R33 동북아 청소년문화공동체 모형정립과 교류협력 모델개발 / 오해섭·이민희
 06-R34 2006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만족도 조사연구 / 김은정
 06-R35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실천적 운영에 관한 연구 / 이민희·오해섭·이장현·신순갑
 06-R36 청소년보호 관련법령의 개선방안 연구 / 이춘화·서정아
 06-R37 2006년 청소년시설 종합평가 / 이민희·김경준·최창욱·황진구·성운숙·오승근·양계민
 06-R38 2006년 청소년 백서 / 김현철·김기현
 06-R39 200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과제 :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조사) / 김기현·임지연
 06-R40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I / 김기현·장근영
 06-R41 청소년활동 참가 실태조사 연구 / 장근영·김기현
 06-R42 제11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 분석 보고서 / 서정아·김경준·이춘화·김귀랑
 06-R43 특별지원청소년 선정 및 지원방안 연구 / 윤철경·김경준·박병식·정익중
 06-R44 청소년행복·역량 지수 개발연구 / 김신영·이경상·백혜정
 06-R45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청소년직업체험활동 활성화 방안연구 / 임지연·김신영·김기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6-S01 「위기청소년 지역사회보호 현황진단 및 발전방안」 (6.17)
 06-S0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연구 workshop : 결과 부문 지표의 이론적/경험적 타당도 검증」 (6.21)
 06-S03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IV 중간발표 워크숍」 (6.23)
 06-S04 「주요선진국의 가족정책 특성과 한국의 정책과제 :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 협동연구기관 중간발표 워크숍 (6.29)
 06-S05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7.7~8)
 06-S06 「청소년의 가족내 사회화과정 - 한국·일본·미국·독일·스웨덴 5개국 비교」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 (8.2~5)
 06-S07 「청소년 유형별 복지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8.14)
 06-S08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8.17)
 06-S09 「동북아 청소년의 역사인식·국가관 - 한국·중국·일본 3개국 비교」 (8.18)
 06-S10 「사이버상의 청소년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회의」 (9.6~9.8)
 06-S11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모바일을 중심으로」 (8.22)
 06-S12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현황 및 발전방안」 (9.9)
 06-S13 「청소년문제행동 종합대책 IV · 최종발표 워크숍」 (10.10)
 06-S14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 · 최종발표 워크숍」 (10.19)
 06-S15 「청소년과 미디어」 (11.10)
 06-S16 「한국청소년행복지수」 (11.15)
 06-S17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24)
 06-S18 「청소년 활동관련 정책과 뉴 패러다임」 (12.6)
 06-S19 「경영목표·혁신 직원 워크숍 및 청소년정책개발·연구를 위한 산·학·연 정책협의회」
 (12.14~12.16)

■ 연구수행 자료집

06-M01 2005 연구보고서 요약집 / 연구기획팀

06-M02 2006년도 고유과제 실행계획서 모음 / 연구기획팀

06-M03 2006년도 고유과제 중간보고서 모음 / 연구기획팀

■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1호 (통권 제43호) / 연구정보지원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2호 (통권 제44호) / 연구정보지원팀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봉사활동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연구보고 06-R12-5

스웨덴의 가족 및 가족내 사회화 과정 연구

인 쇄 2006년 12월 12일

발 행 2006년 12월 15일

발행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배 규 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전화 (02)786-2999 대표 박진태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89-7816-655-5(93330)

116	스웨덴의 가족 및 자녀 사회화과정에 대한 연구	부록	117
118	스웨덴의 가족 및 자녀 사회화과정에 대한 연구	부록	119
120	스웨덴의 가족 및 자녀 사회화과정에 대한 연구	부록	121
122	스웨덴의 가족 및 자녀 사회화과정에 대한 연구	부록	123
124	스웨덴의 가족 및 자녀 사회화과정에 대한 연구	부록	125
126	스웨덴의 가족 및 자녀 사회화과정에 대한 연구	부록	127
128	스웨덴의 가족 및 자녀 사회화과정에 대한 연구	부록	129
130	스웨덴의 가족 및 자녀 사회화과정에 대한 연구	부록	131
132	스웨덴의 가족 및 자녀 사회화과정에 대한 연구	부록	133
134	스웨덴의 가족 및 자녀 사회화과정에 대한 연구	부록	135
136	스웨덴의 가족 및 자녀 사회화과정에 대한 연구	부록	137